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1132-01

문화도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적용 연구

20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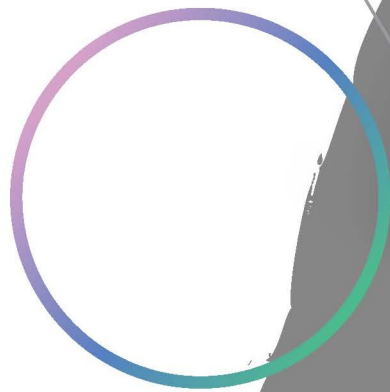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1132-01

문화도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적용 연구

2021.3.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0. 요약본	i
I.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5
1) 사례 분석	5
2) 사업 성과측정 모형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5
3) 성과관리 기본방향 및 지표체계 수립	6
4) 성과관리체계 적용 및 향후 활용 방안 제안	6
3. 연구의 방법	7
1) 국내외 사례 분석	7
2) 사업 성과측정 모형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7
3) 성과관리 기본방향 및 지표체계 수립	9
4) 향후 활용 방안 제안 및 제언	9
II. 국내·국외 사례 분석	11
1. 국내 사례 분석	13
1) 문화 관련 사업	13
2) 도시/지역 관련 사업	26
3) 책임운영기관 제도	42
4) 사업 예산 차등지원 사례	46
2. 국외 사례 분석	49
1) 유럽 문화수도(European Capitals of Culture)	49
2) 유네스코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53

목 차

3)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데이터베이스(Collaborative Governance Case Database)	55
4) 영국 예술위원회의 자기진단(Self-Evaluation) 프로그램	56
5) 책임운영기관 제도 해외 현황	57
3. 시사점	59
Ⅲ. 문화도시 사업 성과측정 모형 수립	61
1. 이해관계자 소통 과정 및 내용	63
1) 문화도시 사업의 이해관계자 도출 및 유형화	63
2) 문화도시 사업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64
3) 문화도시 전문가 자문	81
4) 문화도시 성과관리 운영방안 및 성과지표 의견조사	85
5) 추진주체 대상 문화도시 성과관리 보완 의견 수렴	92
6)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	94
2. 문화도시 추진 현황 분석	108
1) 문화도시 1년차 사업 현황	108
2) 문화도시 사업의 성격과 성과관리를 통한 해결 과제	109
3. 문화도시 성과관리 추진 방향	114
1) 문화도시 성과관리 균형의 필요성	114
2) 문화도시 성과관리 방향성	114
3) 문화도시 성과관리의 영역과 내용	115
4. 성과지표 설계 및 평가기준 마련	117
1) 성과관리 기본방향 및 지표체계 마련	117
2) 문화도시별 특성화 계획 평가기준 마련	119
3) 연차별 성과지표 고도화 작업	119

목 차

Ⅳ.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 적용	121
1.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123
2. 문화도시 성과평가 시행	186
1) 성과평가 일정	186
2) 성과평가 방식	186
Ⅴ. 활용 방안 및 제언	189
1. 향후 활용 방안	191
2. 제언	192
참고문헌	195
부록 [별첨]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도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적용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3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0

요약본

문화도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적용 연구 (요약본)

1.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 문화도시 사업 본격 추진('20년~)에 따라 중·장기적 성과관리 체계 마련 및 적용 필요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2014년)으로 문화도시 지정근거를 확보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문화도시 지정이 포함됨에 따라 2018년부터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
 - 예비 사업 추진을 거쳐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문화도시 추진 효과 및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1차 문화도시 7개소 지정('19년.12월)에 따라 중·장기적 성과관리 필요

2) 연구의 목적

(1) 지표 개발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

- 문화도시 사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부합하는 지표 체계 수립 및 적용 방안 필요
 - 첫째, 다년간 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도시 사업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면밀한 성과관리 필요
 - 둘째,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기대효과의 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 필요

(2) 문화도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 성과분석의 필요

- 최초 지정 이후, 발굴·육성, 확산이 지속되는 문화도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 성과분석으로 문화도시 발전 방향의 고도화와 정책 보완 제시 필요
-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되어 온 과정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 체계 방법 필요
 - 공통지표와 고유지표의 병행 개발 필요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복합 운영 필요
 - 도시발전 기여효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과 컨설팅 작업 병행 필요
 - 문체부, 전문가 집단, 문화도시 상생협의체, 사업 참여자와 효과적 소통을 통한 협의 방식의 성과관리 운영 필요

(3) 현실적 성과관리 적용의 필요

-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엄정한 성과관리 필요와 1년차 사업 진행 현황을 고려한 현실적 성과관리 적용 방안 필요
 - 우수 사업성적을 올린 문화도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부진 사업성적을 올린

- 문화도시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여 선별사업비 집행 방안 마련
- 1년차에는 사업도입과 시범운영, 2~3년차에는 활성화와 과정평가, 4~5년차에는 집중 지원과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총 5년의 다년간 사업 기간에 걸쳐 성과관리 적용하는 관리 방안 필요

2.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분석

- 연구과정에서 참고한 국내 사례는 크게 ‘문화 관련 사업’ 사례와 ‘도시 관련 사업’ 사례, ‘성과운영 관리 사례’로 구분할 수 있음.
- 문화 관련 사업의 사례로는 문화영향평가, 문화다양성지표, 무지개다리사업 평가지표를 참고하였음.
- 도시 관련 사업의 사례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 평가체계, 생생 문화재사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을 참고하였음.
- 성과운영 관리 사례로는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참고하였음.

[표 1] 국내 사례 분석

구분	사례	분석
문화 관련 사업	문화영향평가	각 사례별로 사업개요, 평가지표, 성과관리로 구분하여 분석
	문화다양성지표	
	무지개다리사업 평가지표	
도시 관련 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체계	
	생생문화재사업/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성과운영 관리 사례	책임운영기관 제도	

2) 국외 사례 분석

- 연구과정에서 참고한 국외 사례는 다음과 같음.

[표 2] 국외 사례 분석

구분	사례
국외 사례	유럽 문화수도 European Capitals of Culture(ECoC)
	유네스코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영국 예술위원회의 자기진단(Self-Evaluation) 프로그램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데이터베이스(Collaborative Governance Case Database)
	책임운영기관 제도 해외 현황

3. 사업 성과측정 모형 수립

○ 연구과정에서 성과측정 모형 수립을 위해 진행한 과정은 다음과 같음.

[표 3] 성과측정 모형 수립 진행과정

구분	단계	진행 사항	추진 내용
1. 성과지표 설계 및 평가기준 마련	문화도시 사업의 이해관계자·수혜자 도출 및 유형화	사업의 이해관계자·수혜자 도출	이해관계자·수혜자 도출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자·수혜자 유형화	이해관계자·수혜자 유형화
	성과관리 기본방향 및 지표체계 마련	연구진 회의(오프라인 19건 이상, 온라인, SNS, 유선 수시 연락)	오프라인 주의회 의 19건 이상, 온라인 회의, SNS 채널 및 유선을 통한 수시 커뮤니케이션
		사업 예산 차등지원 적용 검토 (총 5건)	예산 지원 방식의 변화 및 차등지원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의 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차등지원 방식 검토
	문화도시별 특성화 계획 평가기준 마련	문화도시별 특성화 계획에 적합한 평가방식으로 도시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성과관리 지표를 마련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내 수록
2. 객관성 적합성 검증	연차별 성과지표 고도화 작업	사업비 지원 기간(1차년도~5차 년도) 동안 목표치를 설정하여 제시하는 것을 요청하여, 연차별 성과지표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내 수록
	성과관리체계의 객관성·적합성 검증 절차	사업의 이해관계자·수혜자 의견 수렴 및 성과관리체계 분야별 전문가 자문,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객관성/적합성 검증	다양한 주체의 의견 수렴을 통한 객관성/적합성 검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총 17회)	문화도시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회의 및 FGI 진행
	사업의 이해관계자·수혜자 의견 수렴	수혜자 의견 수렴(총 7회, 14인)	제1차 문화도시별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FGI 진행
		추진주체 대상 문화도시 성과관리 보완 의견 수렴(총 7회)	추진주체(문화도시별 센터, 사무국, 위원회 등)를 대상으로 '문화도시성과관리 가이드라인'과 성과평가 보고서와 관련한 의견 수렴
	성과관리체계 자문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 (총 11건, 18인)	연구의 진행 과정 전반에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 및 성과관리 체계의 객관성 및 적합성 확보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통한 연구의 방향성 및 설계안 검증 (심의위 워크숍 3회, 심의위 보고 3회)	연구의 진행 단계별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밟음
	문화도시 심의위원회 검증	문화도시심의위원(성과평가위원) 대상 성과관리체계 의견 수렴 조사 시행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지표에 대해 평가위원 및 지자체, 추진주체,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수행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교차적으로 확보

4.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 시행

○ 연구 진행과정에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 시행을 위해 진행한 과정은 다음과 같음.

[표 4]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 적용 과정

단계	진행 사항	추진 내용
1. 문화도시 추진 현황 분석	여섯 가지 의제 추출 1)단위 사업 묶음의 투입 중심 계획 2)현실적인 실천 전략 불명확 3)진화적 관점 미흡 4)문화민주주의 5)추진주체의 불안정성 6)특성화와 도시 전체 비전 사이의 긴장	문화도시 현장 점검 및 FGI, 문화도시 이해관계자와의 수시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파악된 문화도시 추진 현황에 대해 기술
2.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진행과정에서 수회의 자문 (문화도시심의위원, 외부전문가, 대학교수, 사업의 이해관계자 등)과 FGI(사업의 이해관계자, 일반시민 등), 현장점검, 사례분석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 성과관리 운영방안 및 성과지표체계는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으로 별도 제작되었음.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수록 사항 1) 성과관리 운영 방안 2) 성과지표체계 3) 분야별 지표내용 4) 전체 지표 일람
3. 문화도시 성과평가 시행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 영역을 3개 유형으로 담당하는 것을 확정하여 평가 진행 - 거버넌스 영역 평가자 - 고유성과 영역 평가자 - 전 영역(거버넌스+고유성과)	평가는 1차 서면평가 후 도출된 질의사항에 대해 각 문화도시가 답변자료를 제출한 후, 2차 온라인 미팅을 통해 질의응답 및 논의 시간을 갖고 최종적으로 2차 평가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5. 활용 방안 및 제언

1) 향후 활용 방안

○ 문화도시 성과관리를 통해서 관찰되고 판단된 내용을 각 문화도시에 구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문화도시 사업 수행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 도출의 환류 작업을 진작시킴.

- 문화도시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도시의 사업실행을 위한 방법과 노하우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문화도시의 지향점과 정체성 논의가 진행형으로 지속되며, 정책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아이디어 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임.
 -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통해서 문화도시 발전의 촉진자 겸 현황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역문화진흥원과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요구됨.
-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조사 도구 표준화 노력이 필요함.
 -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조사 도구로는 1) 참여 인원 계수, 2) 사업 참여자 만족도, 3) 시민의식 조사 등 세 가지 종류에 대한 조사방법 가이드라인 및 표준질문지 제시를 통해 성과평가 자료의 객관성을 제고함.

2) 제언

- 장기적으로는 문화도시 성과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현재 심의위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고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현재의 심의위원이나 현장검토단 인력을 중심으로 성과평가단을 구성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연중 문화도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성과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문화도시 관리 인력풀 확충을 통해 관리 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함.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문화도시 사업 본격 추진('20년~)에 따라 중·장기적 성과관리 체계 마련 및 적용 필요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2014년)으로 문화도시 지정근거를 확보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문화도시 지정이 포함됨에 따라 2018년부터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
 - 예비 사업 추진을 거쳐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문화도시 추진 효과 및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1차 문화도시 7개소 지정('19년.12월)에 따라 중·장기적 성과관리 필요

2) 연구의 목적

(1) 지표 개발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의 필요

- 문화도시 사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에 부합하는 지표 체계 수립 및 적용 방안 필요
 - 첫째, 다년간 사업으로 추진되는 문화도시 사업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면밀한 성과관리 필요
 -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내재적 발전을 중시하는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정립 및 평가 진행 필요
 - 총 5년의 지원을 통해 문화도시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하는 성과관리 필요
 - 둘째,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기대효과의 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 필요
 - 선정된 문화도시의 개별 사업계획은 대체로 비전 및 사업 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지역발전 효과 증진을 위한 성과지표체계 보완 개발 필요

(2) 문화도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 성과분석의 필요

- 최초 지정 이후, 발굴·육성, 확산이 지속되는 문화도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 성과분석으로 문화도시 발전 방향의 고도화와 정책 보완 제시 필요
 - 제1차 문화도시 7개소 지정 이후, 지정 확대 이어지며, 상당수 지자체가 사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은 직접 성과관리 대상인 제1차 지정 도시를 넘어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본 사업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발전 방향의 고도화와 정책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술적 전문성과 현장실무 안목이 조화된 종합분석 필요

- 문화도시 사업이 추진되어 온 과정과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관리 체계 방법 필요
 - 공통지표와 고유지표의 병행 개발 필요
 - 공통지표는 도시재생 사업 성과관리, 유럽문화수도 사업 평가체계 등 국내외 타 사업의 성과지표 관리체계 운영 방안을 고려하여 모든 문화도시에 적용하는 지표 개발
 - 고유지표는 각 문화도시의 사업목표 특성과 다양한 참여주체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형 평가(participatory evaluation) 방식으로 각 문화도시별 지표체계 개발
 - 특성화 분야 성과지표는 공통지표와 분야별 특수지표, 지자체별 고유지표 구분 개발
 -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복합 운영 필요
 - 정량지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적 자료와 각종 행정 집계 자료 등 데이터 기반 통계 산출
 - 정성지표는 데이터 기반 지표 산출이 불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의 질적 판단에 따른 등급 구분으로 작성
 - 도시발전 기여효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과 컨설팅 작업 병행 필요
 - 문화도시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 증진 위해 사업 내용 고도화 및 전략적 사업추진 필요
 - 문화도시 사업내용 고도화, 구체화에 필요한 컨설팅과 병행 추진
 - 문화도시 사업의 지역발전 기여는 문화산업 진흥, 지역관광 증진, 문화복지를 통한 삶의 질제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사회자본 증대 등에서 기대
 - 또한, 여타 문화정책 사업과의 연계 및 관광거점도시,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타 분야 사업과의 연계 효과 성과관리 필요
 - 문체부, 전문가 집단, 문화도시 상생협의체, 사업 참여자와 효과적 소통을 통한 협의 방식의 성과관리 운영 필요
 - 다양한 주체의 의견, 지식, 식견을 소통하고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워크숍, FGI, 현장평가,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3) 현실적 성과관리 적용의 필요

- 법정 문화도시 사업의 엄정한 성과관리 필요와 1년차 사업 진행 현황을 고려한 현실적 성과관리 적용 방안 필요
 - 우수 사업성적을 올린 문화도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부진 사업성적을 올린 문화도시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여 선별사업비 집행 방안 마련
 - 1년차에는 사업도입과 시범운영, 2~3년차에는 활성화와 과정평가, 4~5년차에는 집중 지원과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총 5년의 다년간 사업 기간에 걸쳐 성과관리 적용하는 관리 방안 필요

2. 연구의 범위

1)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분석

- 문화도시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국내 유사 정책 사례 및 선행연구 분석

(2) 해외 사례 분석

- 문화도시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해외 유사 정책 사례 및 선행연구 분석

2) 사업 성과측정 모형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1)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 설계

- 각 도시의 사업 유형에 따른 적정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설계
 - 모든 도시에 적용 가능한 사업별 공통 성과지표 발굴
 - 도시별로 차별화된 사업별 고유 성과지표 발굴

(2) 문화도시별 특성화 계획 평가기준 마련

- 문화도시별 특성화 사업의 평가 기준 별도 마련
 - 특성화 사업 과정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공통지표와 분야별 특성화 내용을 다루는 특수 지표로 구성
 - 개별 지자체의 고유한 상황을 반영한 고유지표 개발

(3) 연차별 성과지표 고도화

- 문화도시별 연차별 예산활용 및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달성해야 하는 성과목표 및 세부 성과지표 고도화
 - 사업연차별, 평가지표(항목)별 사업 성과목표, 체크리스트 마련
 - 질적, 양적 성과지표의 가중치(점수 배분) 설정
 - 사업유형별 기본(공통)지표와 지자체별 특성화 계획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연차별 세부 평가지표 설정

(4) 문화도시 조성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관리체계」 구축

- 분야별 전문가 자문, 기관과의 협업(지역문화진흥원)을 통한 연구 결과의 객관적 검증

- 연구 진행 과정에서 사업의 이해관계자(정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지자체, 추진주체 등) 및 각 분야 전문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연구의 품질 제고
- 이해관계자(지자체, 추진주체) 및 수혜자(각 문화도시의 시민)를 대상으로 FGI 실시
- 측정·평가의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창출되는 직·간접적 파급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성과 측정·분석모형 개발 및 환류(feedback)
- 사업유형 및 연차별 투입(input)·산출(output)모형 개발
- 개발 모형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결과(outcome)을 파악하고, 장기적·간접적 문화도시 조성의 영향(impact) 파악 단계까지의 효과 측정모형을 확장
- 측정된 사업추진 결과(outcome) 및 영향(impact)에 대한 환류(feedback)을 통해 사업 개선, 효율화 및 성공사례 확산 추진

3) 성과관리 기본방향 및 지표체계 수립

- 성과관리의 기본방향 마련
- 성과관리 지표체계 마련

4) 성과관리체계 적용 및 향후 활용 방안 제안

- 제1차 문화도시 사업에 성과관리체계를 적용하여 사업의 성과 측정 및 분석
 - 개발된 지표를 기반으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평가하고, 성과를 측정
- 문화도시 추진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지급 방안을 제시
 - 타 부처 사업의 예산 차등 지급 상황 검토를 기반으로, 문화도시 사업에 적합한 예산 차등 지급 방안 제시
- 신규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및 최종 지정 심의를 위한 적용 방안 제시

3. 연구의 방법

1)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분석

- 문화도시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국내 유사 정책 사례 및 선행연구 분석
 - 문화 관련 사업 분석
 - 도시재생 관련 사업 분석

(2) 해외 사례 분석

- 문화도시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해외 유사 정책 사례 및 선행연구 분석
 - 유럽 문화수도(ETCoC; European Capitals of Culture)
 - 유네스코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2) 사업 성과측정 모형 수립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1) 기본 방향

- 사업의 이해관계자와 수혜자¹⁾ 도출, 유형화를 통해 문화도시 비전 및 4대 목표에 따라 달성되는 유·무형의 구체적인 가치 파악

[표 1] 문화도시 정책 비전과 목표

비전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4대 목표	①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②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③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④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 사업성과 분석과 지역발전효과 분석을 포괄하여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종합적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사업의 고도화 방향 제안

(2)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 설계

- 각 도시의 사업 유형에 따른 적정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설계
 - 모든 도시에 적용 가능한 사업별 공통 성과지표 발굴

1) 수혜자: 지자체, 문화도시 사무국 또는 센터, 문화기획자 및 예술인, 참여 주민 등

- 도시별로 차별화된 사업별 고유 성과지표 발굴

[표 2] 문화도시 기본 분야

기본 분야	관련법 근거		세부 분야(예시)
역사전통 중심형	지역 문화 진흥 법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육성특별법 등	역사/전통 등
예술 중심형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국악/사진/건축/어문 등
문화산업 중심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영상/음악/게임/출판/광고/만화 /대중문화예술/문화콘텐츠 등
사회문화 중심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생활문화/여가/인문/문화교육/ 다문화/시민문화 등
지역자율형		문화도시 조성 관련법 일반	기본분야 융·복합/생태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3) 문화도시별 특성화 계획 평가기준 마련

○ 문화도시별 특성화 사업의 평가 기준 별도 마련

- 특성화 사업 과정의 적정성을 파악하는 공통지표와 분야별 특성화 내용을 다루는 특수
지표로 구성
- 개별 지자체의 고유한 상황을 반영한 고유지표 개발

(4) 연차별 성과지표 고도화

○ 문화도시별 연차별 예산활용 및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달성해야 하는 성과목표 및
세부 성과지표 고도화

- 사업연차별, 평가지표(항목)별 사업 성과목표, 체크리스트 마련
- 질적, 양적 성과지표의 가중치(점수 배분) 설정
- 사업유형별 기본(공통)지표와 지자체별 특성화 계획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연차
별 세부 평가지표 설정

(5) 문화도시 조성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관리체계」 구축

○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창출되는 직·간접적 파급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하기 위한 성과 측정·분석모형 개발 및 환류(feedback)을 통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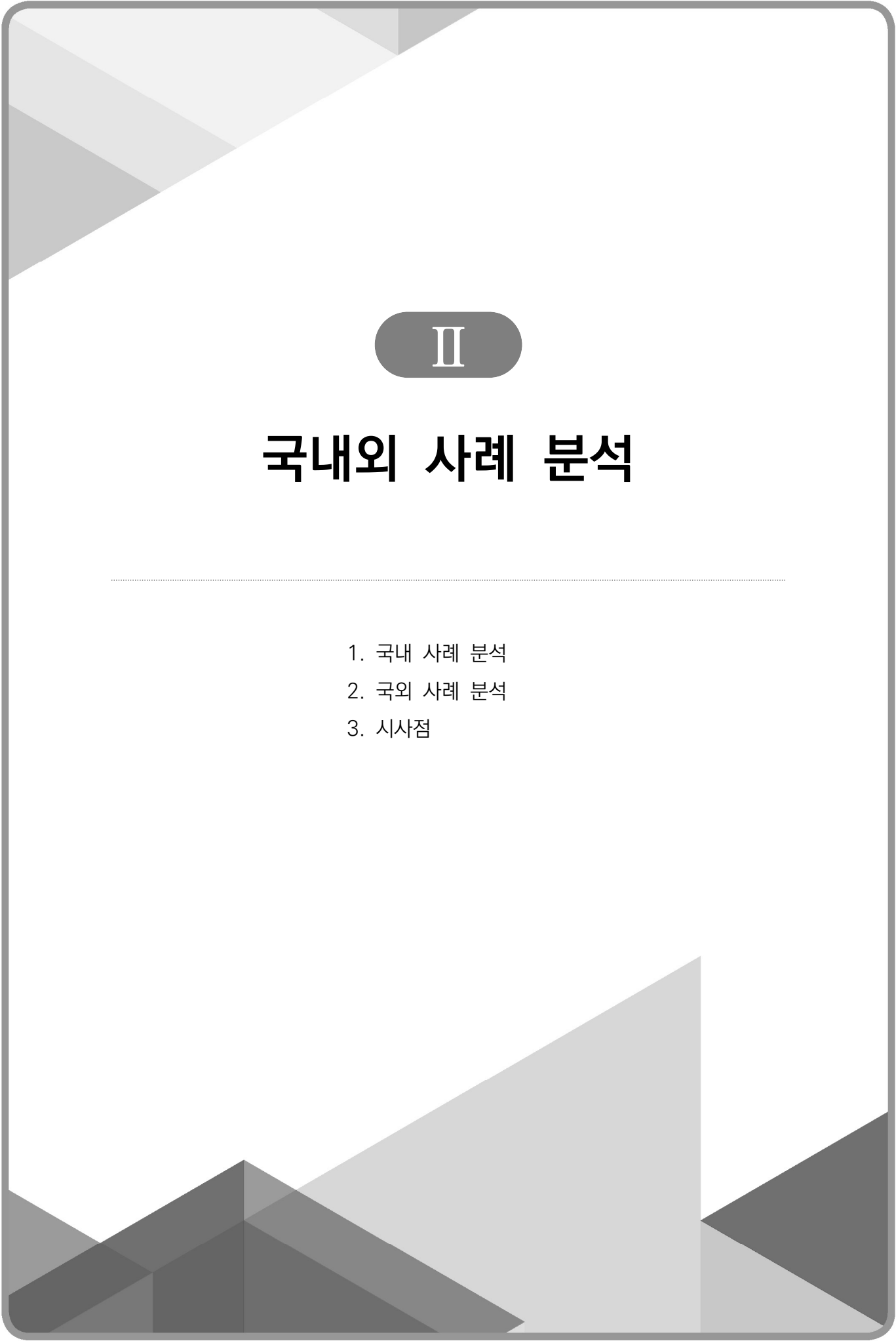
- ① 사업유형 및 연차별 투입(input)·산출(output)모형 개발
- ② '①'의 개발 모형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결과(outcome)를 파악하고, 장기적·간접적 문화
도시 조성의 '영향(impact)' 파악 단계까지의 효과 측정모형을 확장
- ③ 측정된 사업추진 '결과(outcome)' 및 '영향(impact)'에 대한 환류(feedback)을 통해
사업 개선, 효율화 및 성공사례 확산 추진

3) 성과관리 기본방향 및 지표체계 수립

- 성과관리의 기본방향 마련
- 성과관리 지표체계 마련

4) 향후 활용 방안 제언 및 제언

- 모델의 측정·평가도구(요인, 지표설계, 통계분석 등) 표준지침 마련
- 전문기관 협업, 관련자 자문을 통한 연구결과 품질 검증
- 제1차 문화도시 사업에 성과관리체계 적용하여 사업성과 측정·분석
 - 7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제 평가 진행 및 개선점/보완점 도출
 - 제1차 문화도시에 대한 최종 성과 평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통해 진행함.
- 문화도시 추진 성과에 따른 성과관리 모형의 연계·활용 방안 제언
- 현재 시행중인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및 최종 지정 심의를 위한 평가체계(지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언



Ⅱ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분석
2. 국외 사례 분석
3. 시사점

II.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분석

1) 문화 관련 사업

(1) 문화영향평가

가. 사업개요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의 제4항과 제5항, 같은 법 시행령의 제 2조, 제3조 및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제3조를 법제도적 기반으로 함(이상열·이경진, 2019).
- 2013년 12월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문화영향평가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긍정적 영향을 강화·확산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규정(한승준 외, 2017)
- 문화영향평가는 2003년 참여정부의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문화부문의 핵심 전략에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구상되기 시작함. 이후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을 공약사항으로 내걸면서 연구와 시범평가가 진행됨(한승준 외, 2017).
 - 「문화영향평가제도 연구(문화사회연구소, 2003), 「문화영향평가제도 해외사례조사 연구(김규원, 2003)」 수행을 시작으로, 2006년 「문화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법제화 방안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06)」 등을 통해 문화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모색이 진행됨(양혜원, 2017).
-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이상열·이경진, 2019)
 -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평가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으로 규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계획 및 정책과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계획 및 정책이라고 구체화하여 제시
- 문화영향평가는 2014년과 2015년 시범평가 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며, 2018년부터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조례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문화체육관광부, 2020)

[표 3] 문화영향평가 주요 추진 경과

연도	추진내용
2013	• 「문화기본법」 제정(법률 제12134호, 2013.12.30.제정) 및 법 제5조 제 4항에 의거한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
2014	•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 지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35호, 2014.9.11.) •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토교통부의 4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시범평가 시행
2015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및 강원도의 5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시범평가 시행
2016	• 총 15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시행
2017	• 총 15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문화영향평가(광주광역시) 시행 지원 1건 포함
2018	• 총 35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시행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계획, 경주 월성(신라왕궁) 발굴·복원사업 등 총 25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전문평가 실시 • 10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을 대상으로 점검표를 활용한 약식평가 10건 추진
2019	• 총 35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시행 • 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근대역사문화공간 재활성화 사업 등 총 17개 계획 및 정책사업에 대한 전문평가 실시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을 대상으로 점검표를 활용한 약식평가 18건 추진

주: 2018년, 2019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조례에 의한 시행한 문화영향평가 총 9건 제외한 결과임.
출처: 2020년 문화영향평가 안내(세부) (문화체육관광부, 2020)

나. 평가지표

- 2020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체계는 3대 평가영역(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에 6개 평가지표,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공통지표와 특성화지표로 구분(문화체육관광부, 2020)

[표 4] 2020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주요 측정개념
공통지표 (핵심지표)	문화기본권	1.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향유권, 문화환경권
		2.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참여권, 정보문화 향유권
	문화정체성	3.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 보호, 문화유산 향유권
		4.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 공동체, 갈등발생 가능성, 사회적 합의
	문화발전	5.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 다양성 권리, 문화평등권, 문화격차
		6.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 발전, 미래지향성
특성화지표 (자율지표)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적용		

출처: 2020년 문화영향평가 안내(세부) (문화체육관광부, 2020)

- 2017년 문화영향평가 전문평가의 평가지침은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도구 개발연구(양혜원, 2017)」의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도구(안)을 적용, 본 표준평가모형은 AHP분석과 ANP분석을 통해 기본평가·심층평가, 사전평가·과정평가별 가중치를 도출
- － 기본평가의 경우 ‘전문가 평가’로만 문화영향평가를 진행하나, 심층평가의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와 ‘주민평가점수’를 가중 합산하여 평가점수를 도출

[표 5] 기본평가(사전, 과정평가) 표준평가도구의 가중치

구분	세부평가항목	사전평가		과정평가	
		필수여부	가중치	필수여부	가중치
1. 문화향유 (100)	전문가 평가점수		100		100
	①문화향유에 미친 영향 평가	○	100	○	25.6
	②향후 문화향유에 미칠 영향 예측			○	74.4
2. 표현 및 참여(100)	전문가 평가점수		100		100
	①표현 및 참여에 미친 영향 평가	○	100	○	26.4
	②향후 표현 및 참여에 미칠 영향 예측			○	73.6
3. 문화유산 및 문화 경관(100)	전문가 평가점수		100		100
	①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친 영향 평가	○	100	○	26.5
	②향후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칠 영향 예측			○	73.5
4. 공동체(100)	전문가 평가점수		100		100
	①공동체에 미친 영향 평가	○	100	○	26.0
	②향후 공동체에 미칠 영향 예측			○	74.0
5. 문화다양성 (100)	전문가 평가점수		100		100
	①문화다양성에 미친 영향 평가	○	100	○	24.5
	②향후 공동체에 미칠 영향 예측			○	75.5
6. 창조성(100)	전문가 평가점수		100		100
	①창조성에 미친 영향 평가	○	100	○	23.2
	②향후 창조성에 미칠 영향 예측			○	76.8

출처: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도구 개발연구 (양혜원, 2017)

○ 2017 문화영향평가 표준분석 및 평가절차는 다음 [표 6]과 같음(한승준 외, 2017).

[표 6] 2017 문화영향평가 평가지 표준분석·평가절차

절차		주요내용	분석방법
1	대상 정책 및 계획의 개요 및 특성 분석	· 대상 정책 및 계획의 개요 및 특성 분석 · 대상 정책 및 계획의 문화영향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 기술 · 평가범위 및 대상 구체화	· 사업계획서 및 사업현황 자료 문헌분석
2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분석	· 대상 정책 및 계획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유사 사례분석을 통한 영향의 예측 및 시사점 도출	· 문헌분석
3	현황분석	· 대상 정책 및 계획 추진현황 분석 · 대상지의 문화영향지표 현황 분석	· 사업계획서 및 사업현황 자료 문헌분석, 소관기관 담당자 인터뷰, 현장조사 · 통계자료 분석, 설문 조사
4	영향요인의 파악 (이슈도출) 및 문화적 영향 예측	· 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이슈 도출 · 문화적 영향의 논리적 예측 · 평가지표 및 방법론확정: 설문지작성	·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5	문화영향평가	· 문화영향평가	· 전문가 평가단 구성(10인 내외) · 현장조사, 관계자 FGI 및 심층인터뷰, 관계자 설문조사 · 전문가 평가(전문가 평가단)
6	평가결과의 해석 및 정책적 제언 도출	· 평가결과의 해석 · 정책적 제언 도출 · 내부 컨설팅 워크숍(정책적 제언의 정교화)	· 전문가 평가단 회의 · 관계자 FGI
7	찾아가는 컨설팅	· 대상 정책 및 계획 담당자 면담, 컨설팅	· 개별평가기관 및 전문가 평가단

출처: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발전방안 (한승준 외, 2017) 재구성

다. 성과관리

- 문화영향평가의 평가유형은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평가대상에 따른 분류, 평가시기에 따른 분류로 구분(한승준 외, 2017, 양혜원, 2017)
 -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는 제3자인 전문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전문평가’와 소관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자체평가’로 구분. 전문평가는 ‘개별평가절차’와, 전체 개별 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에 해당하는 ‘종합평가절차’로 설계

[표 7]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유형	내용
전문평가	제3자인 전문 평가연구기관이 수행 (개별평가 + 종합평가)
기본평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정책 및 계획 또는 전문적·구체적인 문화컨설팅이 보다 필요한 대상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이 평가 - 질적 분석(정성적 분석)에 집중
심층평가	대규모의 정책 및 계획 또는 국민에 미칠 문화적 영향이 큰 정책으로 엄밀한 분석·평가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전문평가기관이 평가 - 질적 분석(정성적 분석) 및 양적 분석(정량적 분석) 병행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평가수행

출처: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도구 개발연구 (양혜원, 2017)

- 평가대상에 따른 분류는 평가대상이 정책인지 계획인지에 따라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와 법정계획 등 ‘계획에 대한 평가’로 구분
 - 평가시기에 따른 분류는 정책 등이 시행되기 이전에 평가를 실시하는 ‘사전평가’와 정책 등이 시행되는 과정에 실시하는 ‘과정평가’로 구분
- 문화영향평가 평가유형은 평가 형식에 따른 구분, 평가 심도에 따른 구분으로 구별
- 평가 형식에 따른 구분은 자체평가, 전문평가로 구성(문화체육관광부, 2020)
 - 평가 심도에 따른 구분은 진단평가, 약식평가, 기본평가, 심층(+전략)평가로 구성

[표 8] 문화영향평가 평가유형에 따른 내용, 평가방법, 소요기간

평가 종류	내용	평가방법	비고 (소요기간)
자체평가	진단평가	관련 정책(사업)의 자체 수준 진단 및 인식 제고	정책담당자가 진단평가서 작성·제출 →외부전문가 의견 송부
	약식평가	관련 사업(정책)에 대해 자체평가 및 외부전문가 검토·평가	정책담당자가 약식평가서 작성·제출 →외부 전문가의 반영 결과 보고서 통보→반영계획 제출
전문평가	기본평가	일반·단일 사업(정책)에 대한 외부 전문 기관 평가	외부 전문가를 평가기관으로 공모·선정하여 평가(결과보고서 통보)→반영계획 제출
	심층평가	다년도 종합 사업(정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평가	외부 평가기관을 공모·선정하여 평가(결과보고서 통보) 및 주민 설문조사 →반영계획 제출

출처: 2020년 문화영향평가 안내(요약) (문화체육관광부, 2020)

- 문화영향평가의 추진절차는 계획, 사전준비단계, 평가진행단계, 결과도출단계, 환류단계로 구성(문화체육관광부, 2020)
- 각 단계 별 과정 및 절차는 아래 [표 9]과 같음.

[표 9] 2020년 문화영향평가 추진절차(안)

과정 및 절차			평가 과정 및 주요내용
계획	1	평가계획	평가추진계획 구성 / 협의 / 확정
사전준비 단계	2	수요파악	수요조사 공시 및 수요접수 진행
	3	사전검토	수요조사 접수결과, 제안서 및 사전검토서 검토·확인 수요검토 결과 및 사전검토 결과 도출 (문평 대상 여부/ 평가유형 판단 포함)
	4	평가협의	평가대상별 평가유형 및 수행방식 협의 및 확정 [진단/약식/기본/심층(전략)]
	5	평가수행주체 결정 및 계약	평가수행주체 결정 및 계약
평가진행 단계	6	사전공유	문평 교육 및 워크숍(착수단계 설명/평가위원 섭외/평가지침 배포)
	7	평가운영	진단평가, 약식평가, 기본평가, 심층평가(전략)에 따라 평가준비 착수 보고, 검토/분석단계, 지표설계단계, 평가진행 단계1, 중간보고, 평가진행 단계2, 평가결과작성, 최종보고 순으로 추진
결과도출 단계	8	결과도출	결과보고서 제출(검토서 및 평가서) 약식: 약식 검토의견서 제출(검토위원→문광연→문체부)
	9	결과통보	검토 및 평가결과 최종 확정·통보(문체부→소관기관)
환류단계	10	결과환류	반영결과(예정) 공문 제출(소관기관→문체부)
	11	지속환류	환류 모니터링(필요) / 과정평가·결과평가 연결(필요) *심층평가에 한해 적용

주: 평가추진 절차 및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출처: 2020년 문화영향평가 안내(세부) (문화체육관광부, 2020)

-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단계적 확산과 개선을 통해 실효성 확보하고자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준비기('13~'15)와 본 평가 시행('16~'17)을 거쳐 현재 확산 및 실효성 확대('18~)단계로 구분하고, 확산 및 실효성 확대 단계는 다시 5단계로 분류하여 단계적 확산을 모색(한승준 외, 2017)
-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그 대상이 모호하다는 점과, 평가대상의 계획이 계속적으로 변동되어 사전평가가 어렵다는 점, 문화영향평가의 핵심 개념의 추상도가 높아 평가지표 적용 및 해석이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로 문화적 영향의 정량화 필요, 평가 결과의 정책반영과 평가추진체계 및 협력체계의 법적 위상 제고와 역할강화 등이 요구됨. 이에 문화영향평가가 가지는 문화적 영향의 비가시성, 장기성, 맥락의존성, 계량화의 어려움 등의 성격을 고려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단계적 확산 방향과 개선을 제시한 바 있음(한승준 외,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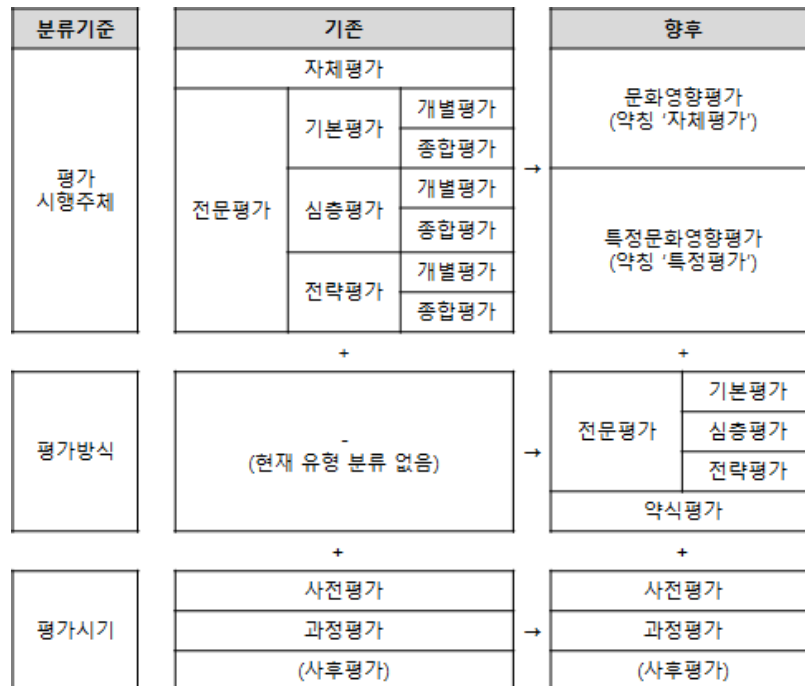
[표 10]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단계적 확산 방향

단계	내용
준비기('13~'15)	2013 : 문화기본법 제정 등 2014: 전문평가 시범실시(4건) 2015: 전문평가 시범실시(5건)
본평가 시행('16~'17)	2016 : 평가지침 작성 및 전문평가 본격 실시(15건) 등 2017: 표준평가 모델 개발, 전문평가(14건), 자체평가 시범실시(1건) 등
확산 및 실효성 확대('18~)	1단계: 경험 및 인식확산 • 자체평가 시범실시 확대 : 1 광역시 2 자체평가 추진 - 책임관 지정, 자체평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환류 • 전문평가 체계 개편 및 질적 고도화 : 심층평가 / 전략평가, 평가에 집중 • 문화기본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제고 • 추진체계 정비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영향평가팀 신설 및 인력확충 • 자체평가 우수기관, 전문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 및 수상
	2단계: 지원체계 구축 • 지자체 문화영향평가 조례 제정 확산 • 지역문화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문화영향평가센터 지정 및 운영 • 문체부 전담팀 구성
	3단계: 문화영향평가의 제도적 확산 • 정부합동업무평가 등 평가제도에 반영 • 예산 연계
	4단계: 문화영향평가제도의 고도화 • 문화영향평가법 제정
	5단계: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강화 • 주요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 절차로 포함 • 문화영향평가 개선권고의 구속력 강화

출처: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발전방안 (한승준 외, 2017)

- 기존 문화영향평가 유형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체계화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의 원칙을 포함한 유형별 가이드라인(guideline)제안에 따르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유형분류체계를 '문화영향평가'와 '특정문화영향평가'로 분류(이상열 외, 2018)
- 상위 유형으로 '문화영향평가'와 '특정문화영향평가'를 설정하고, 평가 방식에 따라 하위 유형으로 '전문평가'와 '약식평가'를, 그리고 평가시기를 기준으로 '사전평가', '과정평가', '사후평가'로 구성

<그림 1> 문화영향평가의 유형 분류체계 개선안



출처: 문화영향평가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연구 (이상열 외, 2018)

(2) 문화다양성지표

가. 사업개요

-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법률’을 의결하여 문화다양성 지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13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를 통해 문화다양성 시범지표를 제시(류정아 외, 2015)
- 문화다양성법 제 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김면 외, 2017)’.
- 문화다양성 지표는 초기 다문화지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로 다문화이주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그 범위가 확대되어, 여성, 청소년, 노인, 성소수자, 다원예술인 등으로 확대(류정아 외, 2015)
- 우리나라가 2017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문화다양성정책에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됨. 문화다양성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다양성정책에 대한 지표개발이 요청(류정아 외, 2018)
 - 2015~2017년간 각 부처에서 제출된 3년간 문화다양성 사업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문화다양성정책 사업도 증가하는 추세. 그 중 ‘문화기본권 신장(1,139개)’ 사업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류정아 외, 2018).

나. 평가지표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4 문화다양성 지표는 ‘정책지표’, ‘여건지표’, ‘활동지표’, ‘인식지표’를 대분류지표로 설정(류정아 외, 2015; 김면 외, 2017)
- 정책지표는 각 지자체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지원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등 3개의 세부지표(중분류지표)로 구성
 - 여건지표는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가 적절한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기반시설여건, 자원여건, 지원인력여건 등 3개의 세부지표(중분류지표)로 구성
 - 활동지표는 소수자들의 문화예술 활동수준, 활동여건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문화다양성 지원정책의 성과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참여도, 친밀도, 만족도, 포용도, 평등도’ 등 5개의 세부지표(중분류지표)로 구성
 - 인식지표는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 정도와 소수자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친밀도, 수용도, 필요도, 포용도, 평등도’ 등 5개의 세부지표 (중분류지표)로 구성

[표 11] 2015년 문화다양성 지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지표조사항목
정책지표		정책수립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조례·규칙 수
		정책실행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건수
		정책예산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예산
여건지표		기반시설여건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관·시설 수
		자원여건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관련단체 수
		지원인력여건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인력 수
활동지표	향유활동	참여도	문화예술 향유활동 비용
			문화예술 향유활동 참여도
		친밀도	소수자가 체감하는 사회적 호감도
		만족도	문화예술 향유 관련 정책지원 만족도
			문화예술 프로그램 만족도
			문화예술 향유 인프라 만족도
	창조활동	포용도	문화예술 향유과정에서 느끼는 포용성 정도
		평등도	문화예술 향유과정에서 느끼는 평등성 정도
		참여도	문화예술 창조활동 소득
			문화예술 창조활동 참여도
		친밀도	하위/비주류문화 예술가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호감도
		만족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정책지원 만족도
			창의성발현 여건 및 기회 만족도
			문화예술 창작 관련 인프라 만족도
	인식지표	포용도	문화예술 향유과정에서 느끼는 포용성 정도
		평등도	문화예술 향유과정에서 느끼는 평등성 정도
		친밀도	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호감정도
		수용도	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수용가능정도
		필요도	각 소수자 집단별 공공 지원예산 필요정도
		포용도	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포용성 정도
		평등도	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평등성 정도

출처: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류정아 외, 2015)

- 각 지표는 100점 환산 점수로 개별 지표 값을 표준화한 후 AHP분석을 통해 대분류지표별

가중치와 중분류지표별 가중치를 각각 산출. 가중치를 곱한 후 모두 합산하여 문화다양성 지수를 산출함.

○ 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최영화 외, 2017)

- 인천은 지정학적, 사회문화적, 역사문화적, 문화예술적으로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문화다양성 관련 행정자료 및 통계자료 구축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지표를 개발
- 2~3년 주기로 자체 조사할 수 있는 단순, 명확, 측정가능, 신뢰, 정보수집 가능한 항목으로 구성
- 지표는 '정책지표', '여건지표', '활동지표', '인식지표'로 설정

[표 12] 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지표	세부지표	조사항목	조사방법
정책지표	정책수립	문화다양성 조례·규칙·정책 수립 유무·건수	행정자료
	정책실행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건수	
	정책예산	문화다양성 지원사업 예산	
여건지표	기반시설여건	문화다양성 지원기관·시설 수	행정자료 통계자료
	자원여건	문화다양성 단체 수	
	지원인력여건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수(여성비율)	
활동지표	인지도	소수자/문화예술가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사업)인지도	설문조사
	수용도	소수자/문화예술가가 체감하는 사회적 수용도	
	참여도	소수자/문화예술가 문화예술활동 참여도	
		소수자/문화예술가 문화예술 시설·자원·인력 활용도	
인식지표	평등도	소수자/문화예술가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 평등도/차별도	
	인지도	각 소수자 집단/소수문화 인지도	
	수용도	각 소수자 집단/소수문화 수용도	
	참여도	각 소수자 집단/소수문화 참여도	
	평등도	각 소수자 집단/소수문화 우선지원 필요도	
	찬반여부	인천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출처: 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최영화 외, 2017)

○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류정아 외, 2018)」는 문화다양성평가지표를 대분류지표 6개, 중분류지표 14개, 세부 조사항목 15개로 구성

- 평가지표 초안 개발 후 현실성을 고려하여 주요 지표를 선정 후 관련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지표 우선순위를 선정.
- 대분류 지표는 정책수립(3순위), 정책집행(1순위), 정책내용(2순위), 정책인식, 정책여건, 정책효과로 구성

[표 13] 2019 문화다양성정책 최종 평가지표

대분류 지표	중분류 지표	조사항목
I. 정책수립 (3순위)	I-가. 정책연구	I-가-① 정책연구 총 건수
	I-나. 의견수렴	I-나-① 공식적 정책위원회 존재여부
II. 정책집행 (1순위)	II-가. 관련 제도(1순위)	II-가-① 관련 조례 및 법규 수
	II-나. 전담 인력	II-나-① 전담 인력 수
	II-다. 정책 자원(2순위)	II-다-① 전체 문화 예산 중 문화다양성 분야 예산 비율
	II-라. 정책 홍보	II-라-① 문화다양성 정책 홍보 건 수
III. 정책내용 (2순위)	III-가. 정책사업 (2순위)	III-가-① 문화다양성 사업(프로그램)수
		III-가-② 전체 지역 인구 중 사업(프로그램) 참여자의 비율
	III-나. 담당자 교육	III-나-① 공무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내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 개설 여부
IV. 정책인식	IV-가. 주민 대상조사	IV-가-① 주민대상 문화다양성 인식조사 총 건 수
	IV-나. 문화소수자 대상 조사	IV-나-① 문화다양성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총 건 수
V. 정책여건	V-가. 기반시설 여건	V-가-① 문화다양성 활동을 위한 시설 총 개수
	V-나. 활동여건	V-나-① 문화다양성 활동 단체 총 개수
VI. 정책효과	VI-가. 지속가능성	VI-가-① 문화다양성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건수
	VI-나. 환류가능성	VI-나-①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시스템 설치(제도화) 유무

출처: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 보고서 (류정아 외, 2018)

다. 성과관리

- 문화다양성지표가 적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이후 공식 문헌상에서 드러나지 않음.

(3) 무지개다리사업 평가지표

가. 사업개요

- 무지개다리사업은 문화 다양성사업의 대표사업으로 2012년 이래로 진행되고 있음.
- 지역 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다문화, 소수문화, 세대문화 등 다양한 문화 및 문화주체들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공공문화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이주민단체, 문화단체 등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다양성을 확산²⁾
 - 2012년에 문화체육관광부, 2013년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다가 2014년 이래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되면서 지역 문화재단 및 시설관리공단, 예술의 전당 등 주로 공공 문화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음(최혜자 외, 2019).
- 2019 무지개다리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관점의 사업개발 및 자원 발굴사업, 지역사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소통 교류 확대임(최혜자 외, 2019).
- 무지개다리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수는 2012년 6개, 2013년 12개에서 2018년 27개, 2019년 26개의 주관기관이 참여하는 등 증가추세

2) “무지개다리” 문화다양성아카이브. <https://www.cda.or.kr/main/contents.do?PID=0401>

- 무지개다리사업은 다양한 사업군의 구성 및 관리운영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직적 체계를 가진 주관기관의 참여가 요구되는 특징을 가짐. 이에 공적 운영체계와 지역적 기반, 사업 담당자의 적극적인 활동이 결합될 때 유리한 여건을 형성(최혜자 외, 2019).

나. 평가지표

- 2013~2016년까지 해마다 성과평가 지표가 변화하였으나, 2017 무지개다리사업의 평가 지표는 2016년 종합적으로 구성된 평가 체계를 유지하여 연속성을 확보(최혜자 외, 2018; 장현선 외, 2017)
- 기관별 운영기간에 따라 평가영역별 배점을 차등구성
 - 운영기관의 [성장과 발전] 영역의 경우 1~2년차 운영기관은 60점이었으나, 3~4년차에는 40점, 5~6년차에는 20점으로 감소
 - 프로그램의 [문화다양성 지향점 달성]의 경우 1~2년차 운영기관은 40점, 3~4년차 운영기관은 60점, 5~6년차 운영기관은 80점으로 증대

[표 14] 2017년 무지개다리사업 운영기관점수 가중치

평가 영역	운영기관의 [성장과 발전]	프로그램의 [문화다양성 지향점 달성]			총점 (A+B)
평가 방식	전문가 평가(A)	소계(B)	전문가 평가	참여자 만족도	
1~2년차 운영기관	60점	40점	26점	12점	100점
3~4년차 운영기관	40점	60점	42점	18점	100점
5~6년차 운영기관	20점	80점	56점	24점	100점

출처: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 평가 연구 (장현선 외, 2017)

- 2018년 평가지표는 사업주체와 사업의 단계별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평가 모델을 구축함 (최혜자 외, 2018).
- 이에 운영주체의 준비, 역량, 사업의 결과, 그리고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 지표를 개발
 - 성과평가는 1년차에서 7년차 단계별로 요구되는 과제의 차이가 있음.
 - 운영기간이 긴 기관일수록 ‘4)사업결과의 성과성’, ‘5)사업발전의 가능성’에 높은 배점을 적용하고 기간이 짧은 기관일수록 ‘1)주체 역량의 건실성’ 부분에 높은 배점을 적용

[표 15] 2018 문화디자인자리 연차별 차등 적용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1·2년차		3·6년차		7·8년차	
		배점	소계	배점	소계	배점	소계
주체역량의 건설성	①주관기관의 운영 적절성	30	40	20	25	15	20
	②협력기관과의 연계	10		5		5	
사업계획의 적절성	③계획의 적절성	10	20	10	20	5	10
	④프로그램의 적절성	10		10		5	
사업진행의 원활성	⑤프로그램 진행의 원활성	10	15	5	10	5	10
	⑥예산집행의 원활 정도	5		5		5	
사업결과의 성과성	⑦프로그램별 성과와 인식 변화	5	15	15	30	20	40
	⑧참여자 참여자 설문 결과	5		10		10	
	만족과 성장 자가평가 체크리스트	5		5		10	
사업발전가능성	⑨핵심집단의 발전 가능성	5	10	10	15	10	20
	⑩활동의 발전 가능성	5		5		1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2018년 무지개다리 사업 컨설팅·평가 연구 (최혜자 외, 2018)

- 2019년 평가지표는 사업의 성과 기준을 “지역 내 문화예술 네트워크 확대, 문화주체의 자존감 제고, 지역 내 문화예술 해소” 측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편적인 계량지표가 아닌 정성지표를 개발(최혜자 외, 2019)
- － 2018년, 2019년 연차별 차등 적용표의 차이점은 평가영역 중 ‘2)사업계획의 적절성’이 ‘사업성과 지역 내 문화예술 네트워크 확대’로, ‘3)사업진행의 원활성’이 ‘사업성과 문화주체의 자존감 제고’로, ‘4)사업결과의 성과성’이 ‘사업성과 지역 내 문화갈등해소(소통 기회확대)’로 재해석

[표 16] 2019 문화디자인자리 연차별 차등 적용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1·2년차		3·6년차		7·8년차	
		배점	소계	배점	소계	배점	소계
주체역량의 건설성	①주관기관의 운영 적절성	25	40	15	25	10	20
	②예산집행의 적절성	5		5		5	
	③협력기관과의 연계성	10		5		5	
사업성과 지역 내 문화예술 네트워크 확대	④지역 네트워크의 구축 정도	10	20	10	20	5	10
	⑤지역 네트워크의 활성화 정도	10		10		5	
사업성과 문화 주체의 자존감 제고	⑥소수문화주체의 발굴 정도	10	15	5	10	5	10
	⑦문화주체간의 상호 협력정도	5		5		5	
사업성과 지역 내 문화갈등해소 (소통기회확대)	⑧문화주체 간 소통 기회 확대	10	15	15	30	20	40
	⑨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5		15		20	
사업발전가능성	⑩핵심집단의 성장과 활동의 발전 가능성	10	10	15	15	20	2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출처: 2019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평가연구 (최혜자 외, 2019)

다. 성과관리

- 무지개다리사업은 사업 시행 초기부터 사업의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의 적절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최혜자 외, 2019)
 - 2017년 이래로 성과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2018년 성과관리의 관점에서 평가 제도가 강화됨.
 - 무지개다리사업 평가 방식의 변화추이는 다음 [표 17]과 같음

[표 17] 무지개다리사업 평가 방식의 변화 추이

연도	내용
2013	• 운영의 원활성 중심의 평가
2014	• 시스템이론에 기반한 체계평가 도입
2015	• 프로그램별 문화다양성 지향점 달성 정도 평가
2016	• 2014, 2015년 평가모델을 접목한 모델 구성
2017	• 전년에 구성된 평가 모델을 유지하여 지표의 연속성 확보
2018	• 전년도 구성된 평가 모델에서 주체의 변화, 성과/환류 영역 강화
2019	• 전년도 구성된 평가 모델을 유지하여 지표의 연속성 확보

출처: 2019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평가연구 (최혜자 외, 2019)

- 무지개다리사업의 정체성은 “소수자 문화표현의 기회 확대, 문화주체 간의 교류와 소통”으로, 성과는 “지역 내 문화 예술 네트워크 확대/ 문화주체의 자존감 제고, 지역 내 문화갈등 해소”로 정리. 효과는 “열린 시각과 창의성 증진, 사회통합”으로 설정(최혜자 외, 2019)
 - 하지만 무지개다리사업의 성과평가지표는 우리사회에서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편적이고 계량적인 지표측정이 어려움. 충분한 논의와 현장 분석을 통해 재구성되어야 할 것을 제언.
- 무지개다리사업의 성과 평가 과정은 서면평가, 자가진단평가, 심층인터뷰, 최종평가로 구성
 - 서면평가는 운영기관 전담자가 사업을 평가 후 기관 승인을 통해 제출
 - 자가진단평가는 운영기관담당자가 자가진단 실시 후 심층인터뷰 시 제출
 - 심층인터뷰는 평가자가 담당자의 인식 차이 및 내용을 점검. 서면자료, 자가체크리스트를 활용
 - 최종평가는 서면평가서, 체크리스트, 심층인터뷰로 최종 평가를 실시. 기관별, 사업별 우수사례를 진단하고 평가자 편견을 극복하는 토론실시.

2) 도시/지역 관련 사업

(1) 도시재생뉴딜사업

가. 사업개요

-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더딘 실행력과 낮은 주민 체감도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7년부터 도입.
 -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서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지역 주도로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 국토교통부는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 과제를 설정(관계부처 합동, 2018)
 - 3대 추진전략은 ①도시 공간 혁신 ②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③주민과 지역주도로 설정
 - 5대 추진과제는 ①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②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③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민간 참여 유도 ④풀뿌리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⑤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으로 설정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중앙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Bottom-up) 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임.
 -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를 아래 표와 같이 총 7개의 성과지표를 제시하였음(국회예산정책처, 2018).

[표 18] 도시재생 뉴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산출 지표	지역 혁신거점 조성 진행	250곳 이상 ('18~'22년) (복합기능 혁신공간 연평균 30여곳, 지역특화 사업 연평균 20여곳)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250개 이상 ('22년)
	도시재생대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도시재생대학(200개 이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300곳 이상) 설치
	공공임대상가 공급	연 평균 20여곳('18~'22년)
	내몰림 예상지역의 상생계획 수립, 공공임대상가 공급	100여곳 이상('22년)
결과 지표	전국 쇠퇴지역	65.9%('16년) → 63%('27년)
	저층 주거지의 거주가구 주거만족도 제고	67%('16년) → 75% 이상('22년)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8 도시재생 뉴딜 분석」 재인용;

관계부처 합동,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2018, pp.10~12.를 바탕으로 재작성

- 도시재생특별법은 도시재생 추진체계,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 및 규정을 포함.
 - 제13조 1항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안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성과관리 방법 및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제시되어 있음(김옥연 외, 2020).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은 '19년 98곳(신제도 포함시 116곳), '18년 99곳, '17년 68곳임(김옥연 외, 2020).

나. 평가지표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평가분야는 ① 거버넌스 ② 활성화계획 ③ 세부사업 ④ 사업효과 등 총 4개의 대항목으로 구성(국토교통부, 2018)
 - 정량·객관적 평가방식을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정성·주관적 평가방식을 보완하여 평가
 - 정량평가는 항목별 기준 또는 정성적 척도(충족/미충족 등)에 따른 점수를 부여
 - 조건의 충족기준이 명확하거나 수치화되기 어려울 경우 “매우 우수~매우 미흡”등 정성적 척도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
 - 정성적 평가는 평가과정에서 평가지원단의 검토의견과 평가단의 평가의견서상 평가 의견 등을 통해 지자체의 활성화계획 및 평가요청서의 보완이 반영됨.
 - 거버넌스, 활성화계획은 “사업의 준비 정도와 사업추진 가능성” 평가임.
 - 세부사업, 사업효과는 세부사업별 “목표달성 가능성 및 사업추진 가능성”과 전체사업의 “사업효과 타당성” 평가임.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유형별 배점은 아래의 [표 19]와 같음.

[표 19]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배점 구분

대항목 사업유형	①거버넌스	②활성화계획	③단위사업 중점사업 기준(일반사업기준)		④전체사업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추진 가능성	사업효과	일자리창출
평가범위(배점)	계획 전체 (100점)		개별 단위 사업(100점)		계획전체(100점)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60	40	50(80)	50(20)	80	20
일반근린형	50	50	50(80)	50(20)	80	20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50	50	50(80)	50(20)	50	50

* 출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국토교통부, 2018)

- 선정평가에서 정부는 기본적인 선정 가이드라인 및 기준만 제시하고, 광역지자체가 지역별, 사업 유형별 선정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관계부처 합동, 2018)
 - 선정주체는 사업유형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으로 분류
 - 2017년도는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도시재생 뉴딜 효과 등 대항목으로 사업을 평가하여 2018년도와 2019년도 항목과 차이가 있음(김옥연 외, 2020).

- 2018년도 선정부터 광역과 중앙 평가로 구분 진행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확보함(김옥연 외, 2020).
 - 광역평가는 각 지자체별 차등 배분된 예산의 총액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사업을 선정 하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확대
 - 중앙평가는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하여 평가
-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는 평가 과정에서 신청기관의 사업 준비정도를 검증하고, 부동산 시장 영향 등에 대한 사후 검증을 시행하며, 부동산 시장 영향 검증은 국토부가 별도로 시행(김옥연 외, 2020).
- 2017년, 2018년, 2019년 연도별로 각 사업유형의 평가지표를 살펴본 결과, 모두 거버넌스, 활성화계획, 단위사업, 사업효과분석 등 대항목으로 분석하되, 세부 평가지표가 일부 상이하며 2019년도에는 가점사항이 추가되었음.
- 2019년 주거지원형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항목은 거버넌스(20점), 활성화계획(20점), 세부 사업(50점), 사업효과(10점), 가점으로 구성.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의 [표 20]과 같음.
 - 평가항목 중 거버넌스와 사업효과항목의 구체적 평가내용은 구성 여부, 담당 부서 위계, 책임자, 구성내용 등 단답형 문항이 중심이며, 피평가자는 응답에 대한 활동증명서를 첨부
 - 거버넌스의 세부 평가항목은 ‘행정지원 역량 기반구축’, ‘지역현장 기반구축’, ‘지역 공동체 협력 기반구축’, ‘주거지정비 기반구축’으로 구성

[표 20] 2019년 주거지원형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항목

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1. 거버넌스(20)	행정역량 기반구축	5
	지역현장지원 기반구축	5
	지역 공동체협력 기반구축	5
	주거지정비 기반구축	5
2. 활성화계획(20)	쇠퇴진단 및 지역자산	5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견	5
	지역 현안문제 도출	3
	맞춤형 콘텐츠 발굴	3
	사업구상	4
3. 세부사업(50)	목표달성 가능성	10
	사업추진 가능성	40
4. 사업효과(10)	전체사업효과	8
	일자리 창출	2
가점(최대+10점)	생활SOC공급사업	+5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3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	+3
	지역 특화재생 모델	+2
	부처 협업	+2

*출처: 2019년도 도시재생 실현가능성 평가(주거지원형) 해설서 (국토교통부, 2018)

[표 21] 2019년 주거지원형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주거지 지원형)의 거버넌스 및 사업효과항목 평가내용

거버넌스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행정지원 역량 기반 구축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여부, 담당 부서 위계, 책임자, 구성 내용, 구성 일시, 운영 기간, 전담인력, 전담인력 직위, 전담인력 업무 배분, 겸직인력, 운영내용 및 계획, 전담인력 보강계획	
	도시재생 추진단	구성 여부, 담당 부서 위계, 책임자, 구성 내용, 구성 일시, 운영 기간, 운영 횟수, 전담인력, 전담인력 직위,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스마트시티운영내용 및 계획전담인력 보강계획	
	도시재생행정협의회	구성 여부, 담당 부서 위계, 책임자, 구성 내용, 구성 일시, 운영 기간, 운영 횟수, 전담인력, 전담인력 직위, 유관부서 참여, 운영내용 및 계획, 전담인력 보강계획	
지역 현장 지원기반 구축	사업 총괄 코디네이터 또는 현장지원센터장	위촉현황, 상근여부, 인력사항, 경력, 경력 기간, 코디네이터 섭외 여부 및 활동 내용, 향후 활동계획	
	현장지원센터 (중간지원 조직)	운영 예산 확보, 지원인력 확보, 분야별 지원인력 배치, 공간 확보, 현장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위치, 향후 현장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운영계획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	주민(예비) 협의체 및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등)	주민(예비)협의체 구성 여부, 주민(예비)협의체 내 구성원 해당사항, 주민(예비)협의체 회의 운영 횟수, 주민(예비)협의체 정관 및 운영 규정 수립 여부,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운영,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구성 여부, 도시재생추진협의회 운영 횟수, 주민(예비)협의체 향후 추진 계획,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운영 계획	
	공공, 민간조직 발굴 및 사업 참여 의향	공공 또는 민간조직 활동 내용 파악, 해당 조직의 기존 프로그램 운영 및 조직화 활동 내용	
	도시재생대학	운영 여부, 운영 주체, 운영 횟수, 운영 내용, 기타 지역역량강화 활동 내용	
주거지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거지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여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지자체 조례 제정 준비단계,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 관련 건축조례 제정 준비단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기초 또는 광역 기준),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지자체 사업검토서 발급을 위한 담당자 지정 여부, 이주용 순환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공기업의 참여를 계획한 경우 공기업과 협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주거지 정비를 위한 업무수행 능력	지자체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담당자 지정, 지자체 담당자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교육이수	
사업효과			
세부 평가항목	평가내용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주차장 보급, 빈점포 정비, 노후불량상가 정비, 불량도로 정비		
일자리 창출 및 도시 활력 회복	재생사업 일자리 창출, 건설단계에서 파생되는 고용, 시설 건설에 따른 고용, 총 창출 일자리, 해당 시군구 현재 고용인구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조사 실시, 조사 대상, 거주민, 상인, 방문객	
	주민만족도 조사 항목	생활환경 만족도	물리적 환경 만족도, 조사 대상, 조사 항목, 사회적 환경 만족도, 조사 대상, 조사 항목
		재생사업 만족도	재생사업 인식 여부, 조사 대상, 조사 항목, 재생사업 만족도, 조사 대상, 조사 항목
	주민만족도 조사 계획 여부	패널 구축 여부, 추가 조사 계획, 계획 내용	

*출처: 2019년도 도시재생 실현가능성 평가(주거지지원형) 해설서 (국토교통부, 2018)

○ 연차별 추진실적평가 지표는 거버넌스 구축·운영 사업항목으로 구분(김옥연 외, 2020)

- 2018년, 2019년, 2020년도 지표는 구성이 유사하나 2020년도에는 질적 평가가 추가.
- 2020년도의 지표는 예산 조기집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집행 배점을 당초 10점에서 50점으로 상향하고, 부처연계사업도 신규로 반영하여 평가 실시(국토교통부, 2020)
- 사업 홍보·부처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총점의 10%(최대 20점) 내 가점 부여
- 사업평가의 경우 2018년도에는 사업개요 및 목표달성 및 가능성, 사업수단 현황, 사업 시행 및 관리현황, 추진현황 및 주요내용 항목으로 평가함. 2019년은 진도평가, 예산집행, 정성평가로 평가하고, 2020년도에는 진도평가와 예산집행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
-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부 평가 기준은 아래 [표 22]와 같음

[표 22] 2020년 도시재생 추진실적평가 항목

분야	평가항목		평가대상
	대항목	세부항목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100점)	행정지원 역량기반(35)		'14년 선정 '16년 선정 '17년 선정 '18년 선정 '19년(上·下) 선정
	현장지원 기반구축(35)		
	공동체 협력기반(30)		
사업 (100점)	진도평가(50)		'14년 선정 '16년 선정 '17년 선정 '18년 선정 '19년(上) 선정
	예산집행 (50)	(30)	
		(20)	
	예산지침('19.7 기배포) 미준수시 해당 단위사업 점수 0점 마중물사업과 부처연계사업 모두 평가		

연차별 가중치 부여

- (1년차) 거버넌스 100점 / 사업 100점
- (2년차) 거버넌스 80점 / 사업 120점
- (3년차) 거버넌스 60점 / 사업 140점
- (4년차 이후) 거버넌스 40점 / 사업 160점

총점의 10% 범위(최대 20점) 내에서 가점 부여

- 사업의 홍보 실적(최대 7점)
- 부처연계사업 추가발굴 실적(최대 8점)
- 사업 추진 노력(최대 5점)

국토부의 사업실적 점검('19년 실적집행 및 착·준공 실적) 결과도 종합평가 시 반영

*출처: LH참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방안(김옥연 외, 2020)

; '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명회(국토교통부, 2020)

○ LH참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방안(김옥연 외, 2020)은 LH가

참여하고 있는 단위사업들의 사업절차를 고려하여 추진단계를 구분하고, 단위사업의 추진 단계별 사업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

-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에서 LH참여형 단위사업은 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행복주택복합개발 사업,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사업, 공공 리모델링임대주택사업, 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 대규모복합개발사업 등 8개 유형임.
- 사업추진별, 사업성/공공성 분야로 구분하여 지표체계를 구축함.
 - 사업단계는 사업기획단계, 사업시행단계, 사업운영관리단계임.
 - 사업성지표와 공공성지표별로 배점을 부여

[표 23] LH단위사업 3단계 추진단계별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도출 방향

사업단계	사업기획 (계획수립~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 (착공~준공)	운영관리 (준공 후 운영관리)
사업목표	후보지 확보	사업공정/집행률	토지·주택물량분양률·입주율
사업목표 측정지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표)	재생사업 고려 주민협의·지자체협의 등 거버넌스 관련 지표, 후보지 확보 지표	사업의 공정률, 집행률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사업으로 나타나는 성과지표 및 운영관리 측정지표

*출처: LH참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방안 (김옥연 외, 2020)

- 사업성 지표는 사업기획단계에서 진도평가 지표(80점)와 뉴딜사업선정 지표(20점)로 구분하고 운영관리계획수립(20점)을 가점으로 부여함. 시행단계에서는 진도평가 지표(90점)와 예산집행 지표(20점)로 구분하고 가점은 없음. 사업운영관리단계에서는 진도평가 지표(90점)와 예산집행 지표(10점)로 구분하고 가점은 없음.
- 공공성 지표는 사업기획단계에서 대항목으로 협력관계 구축(35점), 공공체보전 기여도(30점), 사회적가치 기여도(35점)로 구성됨. 사업시행단계에서는 협력관계 구축(30점), 공공체보전 기여도(20점), 사회적가치 기여도(50점)를 설정함. 사업운영관리단계에서는 협력관계 구축(20점), 공공체보전 기여도(40점), 사회적가치 기여도(40점)로 구성

[표 24] 단계별 사업성지표

1. 사업기획단계			
분야	평가항목		
	대항목	항목	세부항목
사업성 (100)	진도평가 (80)	후보지 (50)	후보지 선정(30)
			사업지구지정 제안(20)
		인허가 (30)	사업지구계획(안) 수립(5)
			사업지구계획 신청(10)
			사업계획(안) 수립(5)
			사업계획 승인신청(10)
	뉴딜사업 선정 여부(20)		
거점	운영관리계획수립(20)		
2. 사업시행단계			
사업성 (100)	진도평가 (70)	보상착수 (40)	사업승인 및 사업착수 결정(10)
			사업추진전략 수립(5)
			운영계획/예산반영(5)
			보상착수 및 완료(10)
	해당년도목표달성	공사시행 (30)	조성공사 착공(10)
			공사 착공(10)
			공사준공/사업준공(10)
	예산집행(30)		
3. 사업운영관리단계_사업성지표			
사업성 (100)	진도평가 (90) 해당년도목표달성	운영관리 (90)	운영관리계획 수립구체성(20)
			운영관리업체 선정(40)
			운영관리 착수(30)
	예산집행(10)		

*출처: LH참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방안 (김옥연 외, 2020)

[표 25] 단계별 공공성지표

1. 사업기획단계		
분야	평가항목	
	대항목	세부항목
공공성(100)	협력관계구축(35)	후보지 선정 시 협의 실적(10)
		사업계획수립 시 관련부서와의 협의실적(15)
		유관기관과의 협의실적(10)
	공동체보전 기여도(30)	원주민 재정착계획(10)
		주민의견 수렴(10)
		지역자산 및 용도 특화(10)
	사회적가치 기여도(35)	일자리 창출(15) (건설노동자+센터직원+사회적 기업 등)
		창업지원(10)
		제도개선 및 기타(10)
2. 사업시행단계		
공공성(100)	협력관계구축(35)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실적(30)
	공동체보전 기여도(30)	주민의견 수렴(20)
	사회적가치 기여도(35)	일자리 창출(30) (건설노동자+센터직원+사회적기업)
		창업지원(10)
		제도개선 및 기타(10)
3. 사업운영관리단계		
공공성(100)	협력관계구축(20)	도시재생센터 및 지역사회단체와의 협의 및 협약 체결(20)
	공동체보전 기여도(40)	순환용임대주택(15)
		공공임대상가(15)
		원주민 재정착률(10)
	사회적가치 기여도(40)	일자리 창출(15)
		창업지원(15)
		제도개선 및 기타(10)

*출처: LH참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방안 (김옥연 외, 2020)

다. 성과관리

-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평가·관리 체계는 4단계로 구분됨(김옥연 외, 2020).
 - － 각 단계는 사업지역 선정을 위한 ‘선정 평가’, 계획의 적정성과 사업 효과 등을 검증하는 ‘실행 가능성 평가’, 연차별 모니터링을 위한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사업지원 종료 시점의 효과 측정을 위한 ‘종합성과평가’임.
 - － 기존의 1,2차 관문심사를 실행가능성 평가로 통합하고, 사업지원 종료 후 종합성과평가를 신설해 체계적 모니터링 실시
-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절차는 (사전컨설팅이 완료된)활성화계획(안) → 사전검토(평가지원단) → 서면검토(평가단) → 현장실사(필요시)→ 종합평가(평가단) → 국가지원사항 결정(특위)로 진행(국토교통부, 2020)
- 평가 주체는 국토교통부, 평가단(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실무위원회 위원, 기타 민간 전문가 등 3인 이상), 평가지원단(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별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국토교통부 사업 담당 사무관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임.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와 관련된 총괄업무를 위탁하고 뉴딜사업 유형별로 평가함.
- 평가단은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자문, 지자체 평가요청서 및 평가지원단의 검토의견서 검토, 평가 실시(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조정 및 평가의견서 작성 등 평가 임무 담당
- 평가지원단은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지원, 지자체의 평가요청서 작성 지원, 평가요청서 검토 및 검토의견서 작성, 전반적인 평가과정 지원 등 평가 지원업무 담당

○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광역 사업선정 절차는 [표 26]과 같음.

[표 26] 도시재생 뉴딜 사업 평가 절차

'20년 중앙정부 사업선정		
구분		
사전컨설팅 및 접수(국토부, 지원기구)		
평가 대상 확정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서면검토(평가위원)	
	현장실사(필요시)	
	종합평가	
관계부처협의, 실무위 검토		
특위(사업선정, 국비지원확정)		

'20년 광역 사업선정		
주체	구분	
시·도	활성화계획(안) 접수	
	선정평가 (시·도)	
중앙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평가접수
		서면검토 (평가위원)
		종합평가
		관계부처협의, 실무위 검토
	특위(사업선정, 국비지원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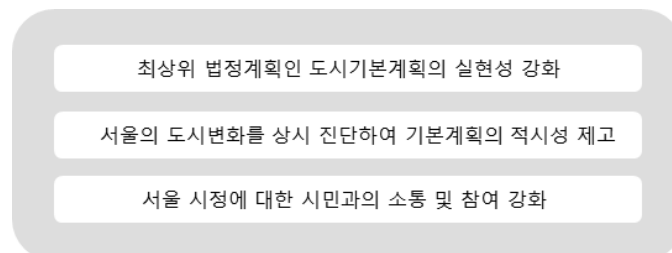
출처: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0)

(2)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체계

가.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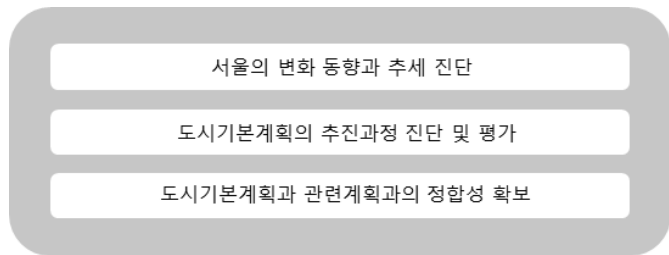
- 서울형 도시재생은 서울 전반에 관한 시책의 일부로서, 활력 있는 도시로 지속되는 데 초점을 맞춤.
-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추진과정 관찰, 도시재생 효과분석, 도시재생 종합평가를 위한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체계를 구축에 목적

<그림 2> 모니터링의 필요성



*출처: 2017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매뉴얼 재가공(서울특별시, 2017)

<그림 3> 모니터링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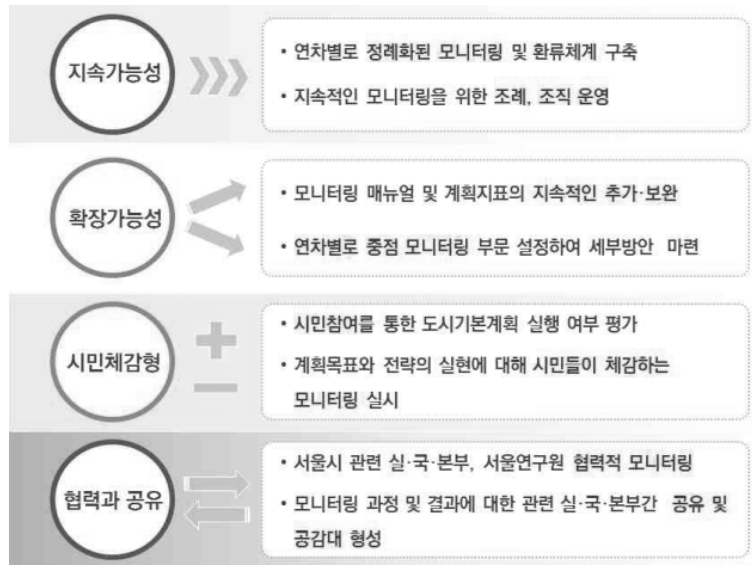


*출처: 2017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매뉴얼 재가공(서울특별시, 2017)

나. 평가지표

-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은 지속가능성, 확장가능성, 시민체감형, 협력과 공유 등 4가지 원칙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함(서울특별시, 2017).

<그림 4> 도시계획 모니터링의 기본방향



*출처: 2017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매뉴얼(서울특별시, 2017)

- 서울형 도시재생의 비전과 활성화지역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지표를 수집하고, 시민역량강화 4단계 프로세스(준비단계, 계획수립단계, 사업실행단계, 자력재생단계)의 각 단계별 역할과 목적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함(서울특별시, 2017).

<그림 5>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 구성체계



*출처: 2017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매뉴얼(서울특별시, 2017)

- 자가진단은 자치구 혹은 서울시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부서가 자가진단시트를 직접 작성함.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변경사항 보완 후 서울시에 제출
 - 자가진단시트는 재생기반 구축정도, 활성화사업 실시현황, 주민공모사업 실시현황, KPI 달성현황, 기타지표현황, 성과(변화)모니터링 공통지표로 여섯 항목으로 구성

[표 27] 자가진단 내용

항목	기록 내용
재생기반 구축정도	· 주민협의체 구축 및 운영현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현황,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수행현황을 운영횟수, 운영인력구성, 참가자수 등의 세부항목을 통해 재생기반 구축정도를 기록함.
활성화사업 실시현황	· 활성화사업이 활성화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의 진척도, 향후 계획에 대해 살펴 봄. 활성화사업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그 변동내용과 변동사유에 대해서도 기록함.
주민공모사업 실시현황	· 활성화지역별로 다양하게 수행되는 주민공모사업을 면밀히 관찰함. 사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수행현황과 더불어 사업계획 변동 시 그 내용 및 이유에 대해 기록함.
KPI 달성현황	· 활성화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지역 고유의 KPI가 있는 경우, 그간의 진행경과와 변화정도, 6개월 후 예상되는 변화정도와 달성전망에 대해 기록함.
기타지표 현황	· 기타지표는 기존에 계획된 활성화사업, 주민공모사업, KPI 외에 수행되어 온 도시재생을 위한 일련의 활동 중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 활동을 말하며, 그 변화의 내용을 기록하고 변화정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기록함.
성과(변화)모니터링 공통지표	· 성과(변화)모니터링을 위한 공통지표 중 현장조사에 의해 수행되는 5개 · 지표 값을 조사·기록함. 5개 지표로는 '앵커시설방문객수, 기초생활 인프라 수, 앵커시설수, 사회적경제조직수, 공공이용시설수'가 있음.

*출처: 2017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매뉴얼 재가공(서울특별시, 2017)

- 추진과정 모니터링은 '상시점검', '현장인터뷰', '통합워크숍'으로 구성되며 계획수립단계, 사업시행단계, 자력재생단계별 검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수행함. 각 모니터링의 주기는 상시점검은 상시수행, 현장인터뷰와 통합워크숍은 활성화지역의 자가진단 후 시행

- 성과(변화) 모니터링은 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로서 관찰되는 활성화정도(사업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함.
- 적용대상에 따라 공통지표와 지역 KPI로 구분, 성격에 따라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시기에 따라 단기지표와 중장기지표로 구분함.

[표 28] 성과(변화) 모니터링 공통지표

구분			지표
기본 적용지표	함께잘살고(6)	우선진단지표	상권활성화정도
			유동인구
			앵커시설방문객수
		중장기진단지표	인구·가구 구조
			순인구이동률
			주택거래
	함께행복하고(6)	우선진단지표	건축물변경(개량)사항
			기초생활인프라수
			지역거주(생활)만족도
		중장기진단지표	앵커시설조성수
			앵커시설이용도
			신출 허가건축물 수
유형별 적용지표	도시경제기반형(4)	우선진단지표	공동체활동참여도
			추진조직역량
		중장기진단지표	공동체활동만족도
			도시재생사업참여도
	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3)	우선진단지표	사회적경제조직수
			지역사회소속감
	근린재생일반형(4)	우선진단지표	신축건물연면적
			종사자 변화율
		중장기진단지표	지역 내 업종변화율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

*출처: 2017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매뉴얼 재가공(서울특별시, 2017)

다. 성과관리

-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는 전략계획에서 정한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반복 시행.
- 서울형 도시재생을 수행하는 활성화지역은 매 6개월마다 자가진단 시트를 작성, 모니터링 위탁기관은 지역별 자가진단 후 추진과정 모니터링을 진행

(3) 생생문화재사업/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가. 사업개요

-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활용이 최대의 보존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정립하고,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여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며,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로 문화재 가치 확산 및 지속가능한 향유권을 신장하는 등의 목적이 있음(문화재청, 2020).
 -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하여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³⁾
- 사업내용은 문화재(지정 및 등록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하여 교육, 공연, 체험, 관광자원 등으로 창출하는 문화재 향유프로그램임(문화재청, 2020).
 - 본 사업은 지자체 대상 공모로서 민간 신청이 불가

나. 평가지표

- 생생문화재 사업은 사업연수 및 프로그램 품질에 따라 사업유형을 3단계로 유형화(문화재청, 2020)
 - 시범 육성형은 1~2년차에 해당. 문화재 향유권이 제한되거나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은 문화재를 대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콘텐츠를 창의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활용발전 가능성이 높아 시범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사업임.
 - 집중 육성형은 3~5년차에 해당. 시범육성 사업결과 프로그램·콘텐츠가 우수하고 문화재에 대한 피해의식을 해소하는 등 문화재보호 사회적 자본형성 및 한계효용 증대가 예상되는 사업임.
 - 지속 발전형은 6년 이상의 사업이 해당. 집중육성 사업결과 프로그램·콘텐츠의 우수성 및 주관단체의 역량 등을 고루 갖춘 사업으로 관람객 만족도 극대 등 문화재보호 사회적 자본형성과 문화재관광 등 문화재산업화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임.

[표 29] 생생문화재 사업유형 및 국비지원규모

구분	변 경
사업유형	(시범) 1~2년차 (집중) 3~5년차 (지속) 6년차 이상
국비지원규모	(시범) 국비 4천만원 이내 (집중) 국비 7천만원 이내 (지속) 국비 1억원 이내

*출처: 2020년도 생생문화재 사업공모계획(안) (문화재청, 2020)

- 평가지표는 시범육성형과 집중육성형·지속발전형으로 구분
 - 시범육성형은 사업계획의 충실성(30점), 사업운영역량(40점), 지속가능성(30점), 가점/우대항목으로 구성
 - 집중육성형·지속발전형은 사업계획의 충실성(20점), 사업운영역량(35점), 지속가능성

3) “2020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386선 선정” 정부24. 2019.09.11.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1981093>

- (45점), 가점/우대항목으로 구성
- 사업 연차가 길수록 지속가능성의 배점이 높아지고,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사업운영역량의 배점이 낮아짐.

[표 30] 생생문화재 심사기준

사업유형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단기준
시범육성형 (1~2년차)	사업계획의 충실성(30)	계획의 적합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프로그램 시기, 수혜대상 적절성, 횟수, 예산 등) · 해당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이해 및 기획의도는 적절한가?
		콘텐츠 경쟁력	· 해당 문화재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 수혜대상에 부합하는 문화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적인가?
	사업운영 역량(40)	사업수행 역량	· 해당 지자체는 추진의지가 높은가? · 수행단체는 추진역량(전문성, 인력)을 갖추었는가? · 프로그램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사업관리	· 홍보의 타겟이나 추진노력은 적절한가? ·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방안은 갖추었는가? ·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은 적절한가?
	지속 가능성 (30)	기대효과	· 프로그램은 문화재 향유에 기여하는가? · 프로그램은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가져오는가?
	가점/우대 항목 (항목당 1점씩 최대 5점)		· 전년도 문화재청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 사회적 약자 연계 프로그램, 코레일 연계 등 여행상품 기획·운영 사업 · 지역주민/단체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사업 · 유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생력 강화 도모 사업 ·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전담조직 설치 지자체
집중육성형 지속발전형 (3년 이상)	사업계획의 충실성 (20)	계획의 적합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프로그램 시기, 수혜대상 적절성, 횟수, 예산 등) · 해당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이해 및 기획의도는 적절한가?
		콘텐츠 경쟁력	· 해당 문화재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 수혜대상에 부합하는 문화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가? · 유사 프로그램과 차별적인가?
	사업운영 역량 (35)	사업수행 역량	· 해당 지자체는 추진의지가 높은가? · 수행단체는 추진역량(전문성, 인력)을 갖추었는가? · 프로그램은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사업관리	· 홍보의 타겟이나 추진노력은 적절한가? ·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방안은 갖추었는가? ·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은 적절한가?
	지속 가능성 (45)	기대효과	· 프로그램은 문화재 향유에 기여하는가? · 프로그램은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계획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가져오는가?
		모니터링 평가점수	· 최근 2개년 모니터링 점수 평균 등급화
	가점/우대 항목 (항목당 1점씩 최대 5점)		· '18년도 우수사업 · 사회적 약자 연계 프로그램, 코레일 연계 등 여행상품 기획·운영 사업 · 지역주민/단체가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사업 · 유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자생력 강화 도모 사업 · 문화재 활용사업 추진 전담조직 설치 지자체

*출처: 2020년도 생생문화재 사업공모계획(안) (문화재청, 2020)

- 심사방법은 내·외부 전문가 5~10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제 1, 2차 심사를 진행

- 제 1차 심사는 심사기준에 따른 공모신청 서류 등 종합검토 과정
- 제 2차 심사는 필요 시 별도 통보 과정으로 면접 및 PT발표 과정
- 평가는 전문가 40%, 일반인 25%, 관람객 35%로 구성되며 5점 척도(매우 우수~매우 미흡)로 평가 후 해당 배점으로 환산

[표 31] 생생문화재 전문가 평가지표

시범		지속	
계획	사업 계획 적정성	실행계획	실행 계획 적정성
과정	프로그램 완성도	현장운영	프로그램 완성도
	교류·협력밀착성		교류·협력밀착성
	운영·관리 효율성		운영·관리 효율성
	참여의지·역량		홍보·마케팅 참여의지·역량
성과	지역 활성화 기여도	기대 성과	지역 활성화 기여도
사업 유형	사업 이해 및 성실도(시범)	사업 유형	사업 이해 및 성실도(시범)
	개선노력(집중)		개선노력(집중)
	자생성 확보(지속)		자생성 확보(지속)

다. 성과관리

- 문화재청은 사업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 선정된 지자체와 주관단체는 문화재청의 사업보완 요구가 있을 시 최대한 반영해야하며, 매월 추진실적 및 일정계획을 제출,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문화재청, 2020)
- 생생문화재 사업 추진일정은 사업 공고→사업계획서 신청/접수→심사→최종선정 결과 발표 및 보조금 사전통지→보조금 확정 통지→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사업추진→사업 평가 및 포상으로 구성

[표 32] 생생문화재 추진일정

추진일정	내용
사업 공고	· 공문 시행 및 보도자료 배포 ·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지자체 신청(광역 지자체 수합 제출) · 문화재청 공문 접수
심사 (1차, 2차)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1차 서류 심사(필수) · 2차 심사는 필요 시 별도 통보
최종 선정 결과 발표 및 보조금 사전통지	· '20년 사업 선정 결과 발표 ·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공지 · '20년 보조금 사전통지(문화재청→지자체)
보조금 확정 통지	· '20년 보조금 확정통지(문화재청→지자체)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지 자 체) 사업계획서 보완 및 보조금 교부신청 · (문화재청) 사업지침 및 교부결정 통지
사업 추진 (지자체)	· (지 자 체) 사업 추진 · (문화재청) 상·하반기 워크숍 및 사업 컨설팅 ·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사업 홍보 등 지원
사업 평가 및 포상	· 사업성과 우수사업 포상(10개 내외) · (문화재청장 표창)

*출처: 2020년도 생생문화재 사업공모계획(안) (문화재청, 2020)

3) 책임운영기관 제도

가. 사업개요

-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정부 운영과 관리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NPM) 행정개혁의 수단으로 도입, 한국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음(최진욱 외, 2016).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책임 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에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임(최진욱 외, 2016).
- 책임운영기관 평가의 목적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2020).
- 책임운영기관제도 설립 이후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주요변화는 [표 33]과 같음(최진욱 외, 2016).

[표 33]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주요 변화

연도	주요내용
1998.2.	정부운영시스템 혁신방안의 하나로 책임운영기관 제도 도입 건의(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
1999.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0.1.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등 10개 기관 지정
2001.1.	책임운영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 · 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를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 초과수입금을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범위 확대 및 절차를 간소화
2002.3.	조직 인사운영의 자율성 확대 ·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장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개방형 직위 임기와 동일), 최소한 2년 보장 · 책임운영기관 소속 직원의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 기관장의 인사교류 권한 강화: 기관장이 소속 직원의 인사교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의무화 ·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 정원 및 성과 인센티브제 운영의 자율성 부여(총액인건비제 도입)
2004.12.	예산운영의 자율성 강화(세출예산집행지침 개정) · 중앙행정기관장의 예산전용권을 책임운영기관장에게 부여 · 초과수입금을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 제한규정폐지 · 초과수입금의 보상적 경비 지출범위 확대(10%→20%) · 인건비(100목)와 물건비(200목) 상호 전용 가능
2005.1.	중앙책임운영기관 설치근거 마련 ·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으로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005.12.	책임운영기관의 유형 구분 · 자체수입의 비중이 낮은 기관의 특별회계 운영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행정형과 기업형으로 구분 적용 · 행정형기관은 일반회계, 기업형기관은 특별회계를 적용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26개 기관 추가 지정 ·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5개 기관 제외
2006.1.	특허청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2007.1.	국립문화재연구소, 통계개발원 등 2개 기관 추가 지정
2008.1.	한국농업대학 추가 지정, 품질관리단(전 중앙구매사업단)제외
2008.10.	농업공학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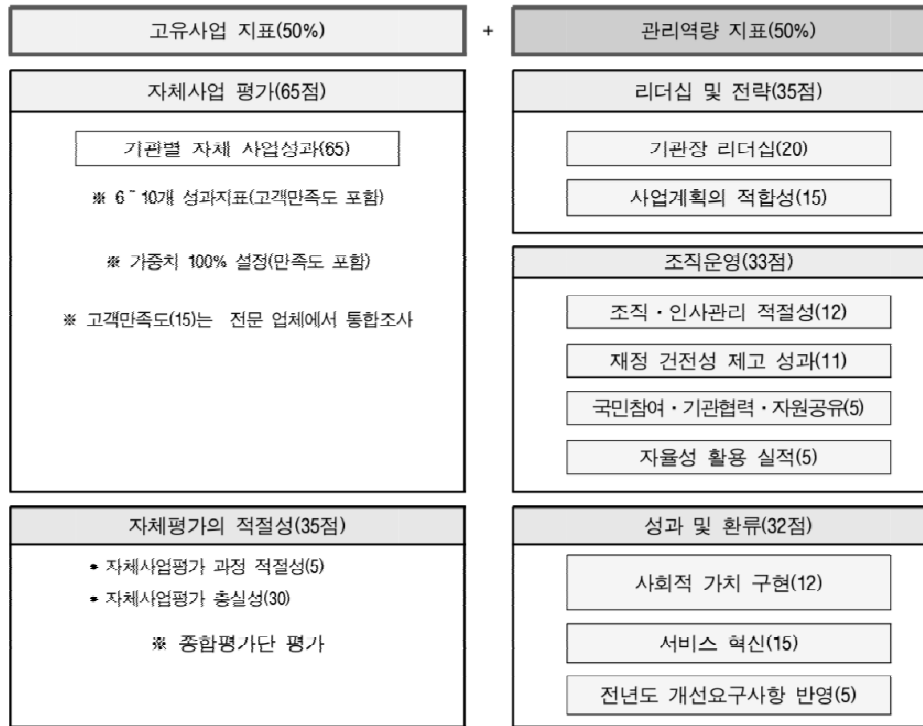
연도	주요내용
	· 농업공학연구소는 국립농업과학원에 흡수, 통합됨.
2009.1.	국립과천과학원 추가 지정
2009.2.	5개 지방통계청 개편(8개 지방청 및 4개 사무소 → 5개로 통폐합)
2009.4.	국립의료원 법인화 · 통계청(경인지방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 호남지방통계청, 동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지정
2011.3.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의 재분류 · 행정형 책임운영기관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구분을 폐지하고, 조사연구형, 교육훈련형, 문화형, 의료형, 시설관리형 책임운영기관 등 6개 유형으로 구분 · 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 사유.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 사유를 법률에 상향 규정 · 우수기관에 대한 평가유예의 특례
2012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실시(각 기관 개별 실시 → 행안부 통합 실시) 민간 출신 기관장 최초 임용기간 확대(2년 → 3년)
2014	기탁물품 접수기관 유형 확대(문화형→연구형·의료형·시설관리형) 임기제공무원 임용비율 확대(30%→50%) 총액인건비 내 인력증원 범위 확대(3%→5%) 복수직급 허용범위 확대(정원의 15%→1/3) 중앙선발위(인사처) 선발시험을 거쳐 기관장 후보자 추천 유공 공무원 대상 특별승급(자체 특별승급심사위 설치)가능
2015	기관장을 전문임기제로도 임용 가능 · 공무원 직급체계 및 조직규모 제한 없이 보수로 예우가능 성과 탁월 기관장 근무기간 연장(5년→8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행·재정상 지원 가능 기본운영규정 개정절차 간소화(사전심의→사후통보) 전문경력관 일반임기제 임용 확대

*출처: 책임운영기관 선진 해외사례 조사연구(최진욱 외, 2016)

나. 평가관리

- 평가지표는 고유사업 지표(50%), 관리역량 지표(50%)로 구성(행정안전부, 2020)
- 관리역량 평가지표
 - 리더십 및 전략은 기관장 리더십, 사업계획의 적합성
 - 조직운영 조직·인사관리 적절성, 재정건전성 제고 성과, 국민참여·기관협력·자원공유, 자율성 활용 실적
 - 성과 및 환류 사회적 가치 구현, 서비스 혁신, 전년도 개선요구사항 반영
- 고유사업 지표 중 자체평가의 적절성 평가지표
 - 자체사업평가 추진체계, 환류 등 평가 과정의 적정성, 자체사업의 집행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함.

[표 34] 책임운영기관 평가지표 체계도



*출처: 2020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2020))

- 평가결과는 기관장 성과연봉에 반영(행정안전부, 2020)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장 성과연봉 지급률을 결정, 운영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표 35] 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 범위(기관장 연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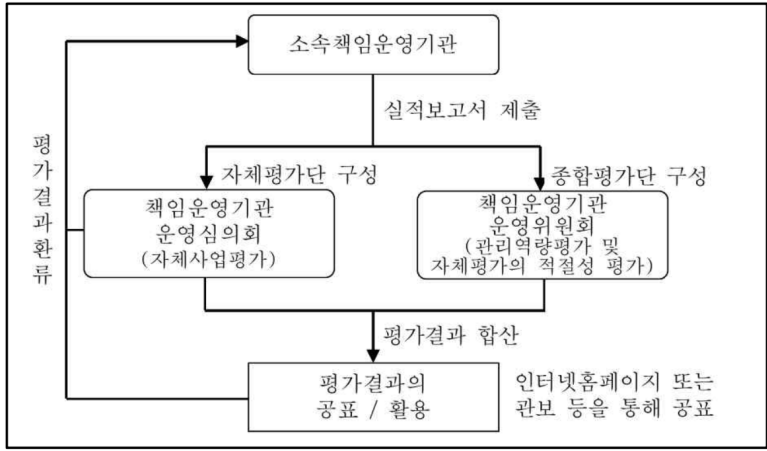
종합평점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80점 미만
평가등급	S	A	B	C
지급률범위	20 ~ 25%	14 ~ 19%	8 ~ 13%	0 ~ 7%

*출처: 2020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2020))

다. 성과관리

- 소속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는 고유사업평가와 관리역량평가로 구성(행정안전부, 2020)
 - 고유 사업평가는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자체사업(고객만족도 평가를 포함)평가, 자체 평가의 적절성 평가는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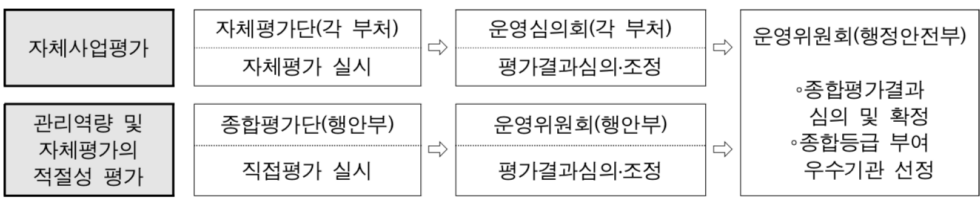
<그림 6> 소속책임운영기관 평가의 체계



*출처: 2020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2020))

- 소속책임운영기관 평가는 '자체사업평가'와 '관리역량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 평가'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하여 판단(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2020)
 - 자체사업평가는 각 부처에서 「자체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부처의 운영심의회에서 심의 및 조정을 통해 결과를 확정
 - 관리역량 및 자체평가의 적절성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종합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의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정을 통해 결과를 확정
-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종합평가결과를 심의 및 확정하고, 종합등급 부여 및 우수기관을 선정

<그림 7> 소속책임운영기관 평가의 절차



*출처: 2020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2020))

- 종합평가단 구성은 총괄팀, 유형평가팀, 지표평가팀, 국민평가팀으로 구성(행정안전부, 2020)
 - 총괄팀은 유형평가위원과 지표평가위원의 세부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점수를 부여하고 최종보고서 작성
 - 유형평가팀은 평가대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세부평가지표별 서면 및 실사평가 실시, 기관별·유형별 보고서 작성수행
 - 지표평가팀은 평가대상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지표평가 실시. 기관장 리더십 평가는 2명이 서면평가를 선행한 후 기관을 직접 방문·인터뷰 실시 후 교차 평가수행
 - 국민평가팀은 국민참여·기관협력·자원공유 지표 평가(50%) 반영

4) 사업 예산 차등지원 사례

- 예산 지원 방식의 변화 및 차등지원에 대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의 타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예산 차등지원 방식을 검토하였음.

[표 36] 타 부처 예산 차등지원 적용 사업 현황

부처	예산 차등지원 적용 사업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사업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ACE +사업
기획재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가.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사업(국토교통부)

- 사업의 목적은 스마트시티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으로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핵심 전문인력 양성에 있음.
- 공모절차를 거쳐,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에 가장 적합한 대학을 선정하여 석·박사 교육 과정을 지원함. 사업 기간은 5개년('19~'23)이며, 6개 대학을 지원하고, 예산 지원 규모는 '19 기준 17.4억원(대학별 평균 2.9억원)임.
 - 지원 규모: 매년 정부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학생 수,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로 차등지원 가능
 - 원칙적으로 5년 단위로 지원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른 수행실적을 평가위원회를 통해 매년 2차례 점검·평가하여 예산을 차등지원
 - 협약 시 제시한 연차별 성과지표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매우 불량한 대학은 선정 취소 가능
 - 사업 관리는 「스마트시티 인력양성사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수행대학의 협약이행여부, 사업추진상황 및 사업성과 등을 매년 2회 평가
 - 중간평가 : 매년 7월 ~ 8월, 연차평가 : 매년 사업 종료 1개월 전 평가
 - 최종평가 : 전체 사업 종료 후 평가
 - 사업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예산을 증감액하고, 사업성과가 매우 불량할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교육기관 재선정 추진
 - 스마트시티 인력양성사업 운영 · 관리지침(안)의 제29조에 예산 차등지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 제29조. ① 주관기관의 장은 시행기관의 장이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연차평가는 평가항목 중 비계량지표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배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고, 계량지표는 평가위원장의 주재 하에 평가위원들이 협의하여 기관별 최종점수를 도출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위원장은 위원별 연차평가서를 취합·정리하고 연차평가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확인·서명한 후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평가결과를 고려한 사업별 차년도 예산차등지급에 대한 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사업(국토교통부)

-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을 의미함. 2018년도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43개 대학을 대상으로 2년 지원 후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예산 지원: 평가에 따라 5개 대학 내외, 5억원 내외 차등지원 형식이나, 인력양성 사업의 운영규정이 미흡하고 관리방안 대책이 필요한 실정
- 각 부처 간 연계 사항
 - 교육부 : 창업인재 선발, 교육과정 운영, 교원·학생 인건비 지원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실험실 기술 고도화 R&D 지원 (특허 등 기존 기술의 사업성 확보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화 및 후속 지원 (창업 자금, 공간, 멘토링 등)

다. 대학혁신지원사업(교육부)

-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목적은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하는데 있음.
- 총 사업기간은 '19~'21년(3년)으로, 대학 기본역량진단 주기를 고려한 것임.
 - '19년 사업비: 5,687.55억원 (대학지원금 5,646억원 + 사업관리비 41.55억원)
- 성과평가 인센티브 배분 방식
 - 평가시기: 1,2차년도 사업 종료 시 연차평가를 시행하며, 3차년도(사업 종료년도)에 사업 기간 전체 주요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시행
 - 평가내용: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 (중장기 발전계획 포함)'에 따른 '대학혁신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사업비 집행 적정성 등 평가
 - 사업 추진실적, 지원금 집행실적, 성과관리, 차년도 운영계획, 과거 재정지원 사업
 - 사업 효과성 제고 및 조기 집행 유도를 위해 평가 시 사업비 집행률 반영 검토
- 성과평가(연차종합평가)는 1, 2차년도 사업 종료 시 연차평가를 시행하며, 3차년도(사업 종료년도)에 사업기간 전체 주요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시행함.
 - 결과활용: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사업비 차등 지원 등 가능
 - 자율협약형: 평가 결과에 따라 5개 권역 내 대학을 3등급(A,B,C)으로 구분하고 A, B 등급 대학에 자율협약형 총 사업비 중 일부(20%내외)를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
 - 단, 권역별 평가 패널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구분
 - 역량강화형: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을 3등급 (A,B,C)으로 구분하고 하위 대학(C등급)의 사업비 일부(10%내외)를 감액하여, 상위 대학(A등급)에 인센티브로 지급
 - 감액 규모 및 인센티브 규모는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 * 단, 권역 구분 없이 단일 패널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구분

라. ACE +사업(교육부)

- 교육부의 ACE+ 사업은 협약 기간 종료 시(~'21.2월 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되, 대학 혁신지원사업과 별도 관리·운영함(사업위탁기관은 한국연구재단임).
- '19년 기준 사업비/지원대상: 총 80억원/'17년 선정교 10개교
- 성과평가는 다음과 같이 진행
 - 중간평가: '17년 ACE + 선정교의 2년 간('17~'18년)의 사업 실적에 대해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19년 사업비 차등 지원* 및 지원 중단 가능
 - 성과 미흡대학의 사업비를 삭감하여 우수대학에 추가 지급
 - 종합평가: '15, '16년 ACE + 선정교(총 19개교) 및 '18년 대학혁신지원 시범(PILOT)운영 사업 선정교(총 11개교)를 대상으로 전체 사업 기간의 실적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기획재정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차등지원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평가 항목: 균특회계 운영 성과, 균형발전사업 추진 실적 등
- 평가 방법: 지자체에서 제출한 실적 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
- 실제 평가는 조세연구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수행
- 결과 활용: 차등지원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차등지원 규모를 산정, '20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추가 배분(8월초 통보 예정)
- 2020년 차등지원 평가항목
 - 법적 근거: 「균특법」 시행령 제42조
 - 평가 대상: '18년, '19년 시·도 및 시·군·구 자율편성사업
 - 평가 기준: 지자체별 균특회계 운영성과

2. 국외 사례 분석

1) 유럽 문화수도 European Capitals of Culture(ECoC)

- 유럽문화수도는 매년 특정 도시를 유럽문화수도로 지정하여 한 해 동안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1985년부터 현재까지 30개국 60개 도시가 참여 하였고, 유럽 각국 도시들의 참여열기가 올림픽 유치에 비견될 경쟁 상황이라는 점에서 문화도시 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라 할 만함(서우석·조광호, 2019; Richards, 2000; European Union, 2015).
- 유럽문화수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강조는 유럽문화수도 신청도시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음. 가이드라인의 목표는 일반목표, 특수목표, 조작적 목표로 위계화 되어있음(서우석·조광호, 2019).
 - 도시 공간에서 다양한 사회집단들을 대상으로 포괄성과 복합성을 갖고 추진되는 문화도시 사업은 사회적 가치와의 관련성이 큰 영역임. 한국의 문화도시 사업은 유럽 문화수도 사업의 변화과정을 참고하면서 성장해 왔음.
 - 유럽문화수도 사업이 예술 이벤트 중심에서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발전하면서 사회적 관점을 바탕으로 폭넓은 참여에 의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킨 것처럼, 한국의 문화도시 사업도 균형발전차원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지역의 폭넓은 참여와 사회적 발전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진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지향이 강화되었음.
 - 즉각적인 경제적 효과에 못지않게 사업에 참여하고 수혜를 받는 시민의 범위를 넓히고 개최연도 후에도 사업효과가 지속되도록 고민하는 가운데 유럽문화수도 사업의 전개과정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이 점증되어 왔음.
 - 유럽문화수도의 경우 다양한 사례의 성공과 실패 경험이 누적되면서 이에 바탕을 둔 진화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러한 진화에는 선정기준과 평가 체계의 지속적 개선 운영이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함.
 -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지표에 바탕을 두고 공공에 의해 주도되는 평가연구와 다양한 관점의 학술적 연구들이 모두 활성화되어야 함.

[표 37] 유럽문화수도 목표의 위계

일반목표 (General Objectives)								
유럽의 문화 다양성을 보호 및 촉진, 공유하는 공통점을 강조, 시민들의 공통문화공간의 소속감 함양,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에 문화의 기여를 촉진								
특수목표(Specific Objectives, SO)								
특수목표1(SO1): 국가 간 협력을 포괄하는 유럽차원의 도시 내 문화 제공, 다양성 개선.			특수목표2 (SO2): 문화에 대한 접근과 참여 확대		특수목표3 (SO3) : 문화부문의 역량 및 다른 부문과의 연계성 강화		특수목표4 (SO4) : 문화를 통한 도시의 국제적 위상 함양	
조작적 목표(Operational Objectives)								
우수한 예술 문화 프로그램의 장려	유럽 및 국가 간 협력문화 프로그램 구축	문화 프로그램 준비 및 구현에 다양한 시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다양한 시민이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창출	문화 인프라 개선	문화부문의 기술, 역량 및 거버넌스 개발	타 부문과의 파트너십 및 공동 운영 촉진	도시와 도시문화 프로그램 홍보	주민의 국제관 개선

* 출처: European Capitals of Culture(ECoC) 2020-2033, (European commission, 2018)

- “유럽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장려하며, 문화들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특징을 조명하고,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과정에서 문화의 기여도를 촉진한다”는 일반목표(General objective) 아래, 4가지 특수목표(Specific objective)와 그에 따른 결과지표들이 있음.

[표 38] 유럽문화수도의 특수목표 및 그에 따른 결과지표

특수목표	결과지표
특수목표1(SO1): 국가 간 협력을 포괄하는 유럽차원의 도시 내 문화 제공, 다양성 개선	프로젝트와 행사의 총 수 유럽문화수도 문화프로그램의 경제적 가치 유럽문화수도 프로그램 안에서 유럽국가간 협력사례 수 문화프로그램 참여하는 예술가의 본국 및 외국수와 비율
특수목표2 (SO2): 문화에 대한 접근과 참여 확대	유럽문화수도 행사 관람 혹은 참여 수 청년, 소외계층, 문화취약계층의 관람 혹은 참여 수 적극적인 자원봉사자 수
특수목표3 (SO3) : 문화부문의 역량 및 다른 부문과의 연계성 강화	문화인프라, 공간, 시설 투자 가치 문화거버넌스를 위해 지속되는 영역 간 파트너쉽 도시의 장기문화발전전략 문화추진 주체와 다른 영역간의 협력을 위한 투자 혹은 수
특수목표4 (SO4) : 문화를 통한 도시의 국제적 위상 함양	관광방문객과 숙박 증가 미디어 보도의 양과 성격(지역, 국가, 국제, 디지털) 유럽문화수도의 주민 인지도 및 외부관광객의 인정 수준

- 유럽문화수도는 개최연도 4년 전에 공식적으로 선정되고 문화도시 준비기간을 가지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전문가 패널에 의해 모니터링이 진행됨.

- 현재 매년 2개의 문화수도가 지정되는데, 4년의 준비기간 동안 3회 미팅(3년 전, 18개월 전, 2개월 전)을 수행하며, 미팅 수개월 전 유럽문화수도 개최도시는 준비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함.
- “비판적 친구(critical friend)”로 표현되는 패널은 개최신청서에 의거하여 주요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 주요 스태프 임명 상황, 재정 여건, 사업 프로그램의 주요 변화 등을 파악하여 개최 계획의 목적에 비한 준비상황을 점검함.
- 전문가 패널은 수년에 걸친 유럽문화수도의 방대한 사업들이 개최 계획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 변화를 수용하고 미팅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교류한 후 개최도시를 위한 제안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준비하여 유럽의회가 공포함.
- 이 과정에서 전문가 패널 중 한 두명의 구성원이 해당 유럽문화수도를 현지 방문하여 전체 전문가 패널을 위한 보고를 작성하기도 함.
- 전문가 패널과의 3번째 미팅에서 유럽문화수도 상금인 멜리나 머큐리 상 (Melina Mercouri Prize)의 수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상금 150만 유로 수준임.
- 최종 판단 기준은 개최신청서에 나타난 비전, 목적, 전략, 프로그램, 예산 등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예술 활동 주체의 독립성, 사업과 홍보 마케팅에서 유럽 정체성의 충분한 강조, 모니터링 수행여부와 최종 성과평가 준비 등을 고려함.
-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유럽의회가 수용하면, 유럽문화수도 개최 첫 수 개월 동안 상금이 수여됨.

○ 유럽문화수도에 대한 성과평가(evaluation)는 유럽문화수도 개최연도 다음해에 2개의 유럽 문화수도 개최도시에 대해서 전문가 패널에 의해 작성되어 유럽의회에 제출됨.

- 보고서는 2개의 도시 각각에 대하여 배경, 발전 과정, 문화 프로그램, 거버넌스와 자원 조성, 결과, 유산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되고, 결론과 제안사항을 제시함.
- 유럽문화수도의 효과성 혹은 성공 기준으로 장기 전략, 유럽 관련 차원, 문화 예술 콘텐츠, 공급 역량, 전달 능력, 경영관리 등 유럽문화수도의 다양한 차원을 평가함
- 유럽문화수도의 결과로서는 유럽문화수도의 특수목적인 문화적 영향, 접근성과 참여, 문화 역량, 국제 프로필의 특히 네 가지 부문에 대하여 다룸.
- 성과평가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양적 자료, 사업수행 주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사용하는데, 양적 자료의 경우 별도의 조사를 수행하기 보다는 이미 수집된 각종 자료를 활용하고 있음.

○ 유럽문화수도의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포상, 제제, 인센티브 등을 결정하는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유럽문화수도 사업의 의의를 확인하고 다른 도시들을 위한 참고로서 수행하는 성격이 강함.

- 사후평가의 구체 내용은 주로 해당 도시가 자율적으로 매년 수행해 왔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음.

- 유럽문화수도가 자체적으로 수행되는 모니터링 내용은 각 도시별로 자율적으로 구성됨.
 - EU는 외부 주체에 의한 모니터링 수행을 권장하나 2018년 유럽문화수도의 경우 두 도시 모두 외부 모니터링은 수행하지 않고 자체 모니터링만 수행함.
 - 2018년 유럽 문화수도 발레타(Valletta)의 경우, 문화행사 참여율, 참여 및 불참 이유, 발레타의 도시 이미지, 유럽문화수도 인지도 등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비교분석 됨.
 - 2018년 유럽문화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기대충족 및 요소별 평가, 유럽문화수도 사업의 영향에 대한 평가, 사업 참여 의향 등이 조사되었음.
 - 2018년 유럽 문화수도 리유봐덴-프리슬란트(Leewarden-Friesland)의 경우, 자체적으로 문화적 접근과 참여, 경제와 관광, 문화적 활력과 지속가능성, 이미지와 인식, 거버넌스와 전달구조의 5개 주제를 중심으로 32개의 KPI를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음.
 - 사후 평가에서는 리유봐덴-프리슬란트의 KPI 모니터링 결과가 가지는 유용성도 인정하였지만, KPI 중 유럽문화수도 사업과 무관한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뚜렷한 계량적 측정방식을 갖지 않는 지표들도 포함되어 있음이 지적됨.
 - 모니터링 내용을 보면 사회포용적 가치, 지역발전, 고용창출 등에 문화수도 사업이 기여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이미지 개선 차원을 강조하고 있음.

2) 유네스코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는 유네스코(UNESCO)가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도시들 간의 협력을 통한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부터 추진 중인 국제연대사업의 명칭임(정수희, 2018).
 -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그들의 목표를 ①지역자원의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장소, 생산, 배포, 향유의 강화, ②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집단 내 창의성 및 창의적 표현의 증진, ③문화상품의 향유와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 향상, ④지역발전계획에 문화와 창의산업의 통합으로 제시하고 있음. 즉, 사업의 목적은 도시가 가진 창의자산을 기반으로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을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Cultural Diversity) 및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있음.
 - 선정은 총 7개 분야(문학·음악·민속 공예·디자인·영화·미디어·음식)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의 경우 서울(디자인), 이천(공예/민속예술), 통영(음악), 대구(음악), 전주(음식), 광주(미디어아트), 부산(영화) 등의 도시가 가입되어 있으며, 제1차 문화도시 중에서는 부천(문학), 원주(문학)가 유네스코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임.
 -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가입을 위해서는 국내의 심사와 기가입 도시들의 추천을 받아야 함. 가입 희망도시는 1차적으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예비회원도시로 가입해야 하며, 이후 일정 기간의 활동을 통해 국내 신청 자격을 얻게 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예비도시들 중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도시에 대한 국내 심사를 거쳐 대표를 추천하고, 추천 받은 도시들은 다시 유네스코 본부에 영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후 최종심사에 의해 가입 도시가 선정되는 방식임.
- 창의도시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정보를 공유하고, 선정된 도시들의 국내, 국제적인 영향을 관찰하고 평가하며, 도시들의 꾸준한 실천을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여러 측면에서의 문화와 창의성(creativity)의 역할을 평가
 - 각 도시는 4년마다 UCCN의 강령과 지정 절차의 정신과 목표를 반영한 6개 항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표 39] 유네스코창의도시(UCCN;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평가지표

항목	내용
1. 요약	· 전체 내용의 요약
2. 기본 정보	· 도시 이름, 분야(디자인, 영화), UCCN 등록일 등
3. 국제적 네트워크에 대한 기여	· 4년간 UCCN의 연례회의 참여 횟수, 창조 도시와 관련된 특정 이슈와 관련된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 횟수, UCCN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UN 사무국에 대한 금융 등의 지원 (지원 형식, 추정 가치 등)
4. UCCN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행된 지역 차원(Local Level)에서의 주요 계획	· 시민사회의 공공, 사설 영역과 협력하여 창의성(creativity)을 도시 발전의 필수 요소로 만들었는가? · 창조와 혁신 허브를 발전시키고 문화 분야의 생산자와 전문가들의 기회를 넓혔는가? · 지속성 있는 도시 발전에서의 문화 및 창의성의 역할과 UCCN에 대한 인식을 향상 시켰는가? · 이 분야의 연구와 분석을 지원했는가?
5. UCCN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 간 협력을 통해 실행된 주요 계획	· UCCN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유네스코 창의 도시와 협력하여 실행한 주요 계획, 프로젝트, 교류 프로그램, 연구 등을 제시
6. 앞으로 4년간의 중기 활동 계획	· 지역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 3개의 계획, 프로그램 제시 · 국제적으로, 특히 네트워크 내의 다른 도시들과 함께 네트워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대 3개의 계획, 프로그램 제시 · 제안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간 추정 예산 · 더 많은 사람에게 네트워크의 목표를 퍼뜨리고 알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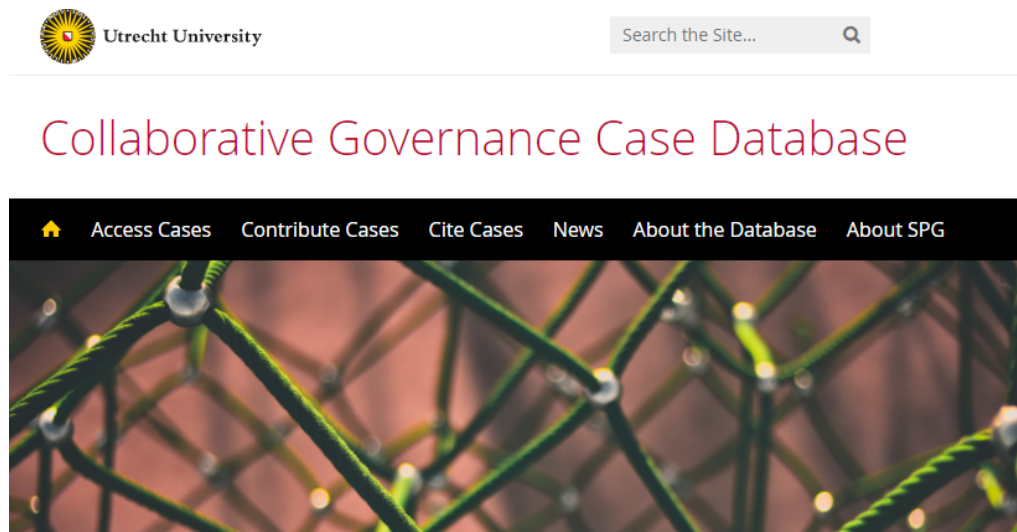
*출처: 유네스코창의도시 홈페이지⁴⁾ 내용 재구성

4) 유네스코창의도시 홈페이지 <http://en.unesco.org/creative-cities/home>

3)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데이터베이스 (Collaborative Governance Case Database)

- 위트레히트 대학(Utrecht University)이 유럽연합의 연구지원을 받아서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모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온라인으로 무료 개방
- 본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분야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환경 부문 사례가 19건으로 가장 많고, 안전(11건), 사회/노동(10건)으로 많았으며, 문화/여가 부문 사례는 6건이 등재

<그림 8> 위트레히트 대학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The Shared Resource for High Quality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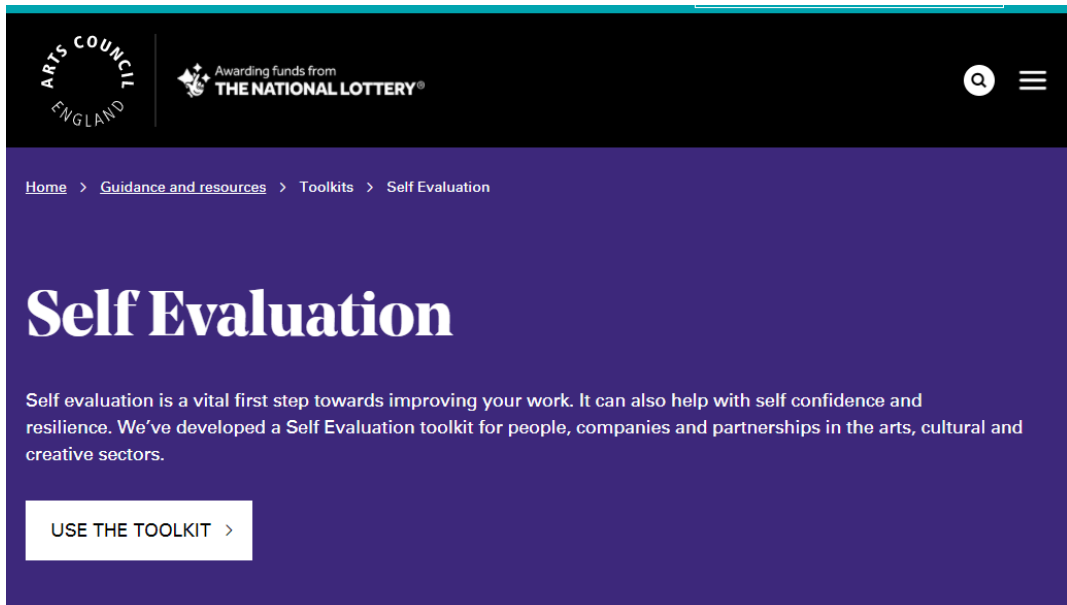
출처: <https://collaborativegovernancecasedatabase.sites.uu.nl/>

- 사례의 정보 수집을 위한 질문지는 1.사례의 일반 정보, 2.주요 사례 특성, 3.시작 상황, 4.제도적 설계, 5.리더쉽, 6.협력 과정, 7.책임성(accountability), 8.협력의 결과와 효과로 구성
-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데이터베이스는 문화도시 및 관련 사업의 DB 구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4) 영국 예술위원회의 자기진단 (Self-Evaluation) 프로그램

- 영국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에서는 자기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운영

<그림 9> 영국 예술위원회 자기진단 프로그램 홈페이지



출처: <https://www.artscouncil.org.uk/advice-and-guidance/self-evaluation>

- 자기 진단프로그램은 개인, 프로젝트 및 서비스, 전략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도구가 구별되어 제공
 - 이용자는 온라인으로 등록하여 개별 이용
- 프로젝트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자기진단 도구는 수준과 효과, 인력 개발, 과정 개발, 비즈니스 개발로 구분되어 있으며 핵심 질문과 생각해 봐야 할 점을 제시
- 추가로 자기진단에 도움을 주는 외부의 온라인 사이트 정보 제공
- 문화도시나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도시를 위해 자기진단 사이트를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5) 책임운영기관 제도 해외 현황

가. 영국

- 영국은 1980년대 정부조직의 비대화, 비효율성에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 개혁의 차원에서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최진욱 외, 2016)
 -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별도의 근거 법률은 제정되지 않음.
 - 책임운영기관의 개념은 정부의 집행기능 가운데 잘 정의된 사업실행 단위가 특정한 산출물을 생산하고, 이 사업실행 단위가 장관에 대한 책임성 틀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기관임.
 - 설치기준은 부처의 기능 중 집행적 기능이면서 부처와의 정책 및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이 강할 경우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 가능
 - 별도의 해제기준이 없으며,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의 Public Bodies Reform Team이 전체 공공기관 지위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해제를 결정함.
 - 2016년 8월을 기준으로 중앙부처 소속 36개 기관이 지정됨.
 - 크게 대민서비스형, 내부서비스형, 연구, 규제 4개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더 다양한 유형임.

[표 40] 영국 책임운영기관 제도

제도개요	영국
도입배경	1980년대 정부조직의 비대화, 비효율성에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개혁의 차원에서 도입
근거법률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제정되지 않음
지향가치	행정부조직 운영과 관리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제고
개념	정부의 집행기능 가운데 잘 정의된 사업실행 단위가 특정한 산출물을 생산하고, 이 사업실행 단위가 장관에 대한 책임성 틀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기관
설치기준	부처의 기능 중 집행적 기능이면서 부처와의 정책 및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이 강할 경우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 가능
해제기준	별도의 해제기준이 없고, 내각사무처(Cabinet Office)의 Public Bodies Reform Team이 전체 공공기관 지위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해제를 결정함
형태 및 지정현황	2016년 8월을 기준으로 중앙부처 소속 36개 기관이 지정됨 · 책임운영기관 구성원은 공무원 신분임
유형	크게 대민서비스형, 내부서비스형, 연구, 규제 4개 유형으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더 다양한 유형을 나타냄

출처: 책임운영기관 선진 해외사례 조사연구(최진욱 외, 2016)

나. 일본

- 일본은 업무의 질 향상, 업무의 활성화 및 효율성 향상, 자율적인 운영과 투명성의 향상을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도입(최진욱 외, 2016)
 - 근거법률은 독립행정법인(独立行政法人) 통칙법 및 기관별 개별법임.
 - 사무·사업의 수직적 감량을 추진하면서 효율성 향상, 품질 향상 및 투명성 확보를 지향
 - 책임운영기관제도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서 국가가 스스로

- 주체가 되어 직접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 중 민간주체에 맡길 경우 반드시 실시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법인
- 한 주체에 독점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공공의 사무이면서 국가기관이 직접 담당할 필요가 없는 업무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설치 기준은 "공공재(公共財)"를 제공하는 경우이며, 해체기준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음.
 - 2016년 기준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형태 및 지정현황은 88개 법인, 133,224명. 이 중 행정집행법인은 7개, 상근직원 7,160명임.
 - 유형은 중기목표관리법인, 국립연구개발법인, 행정집행법인으로 구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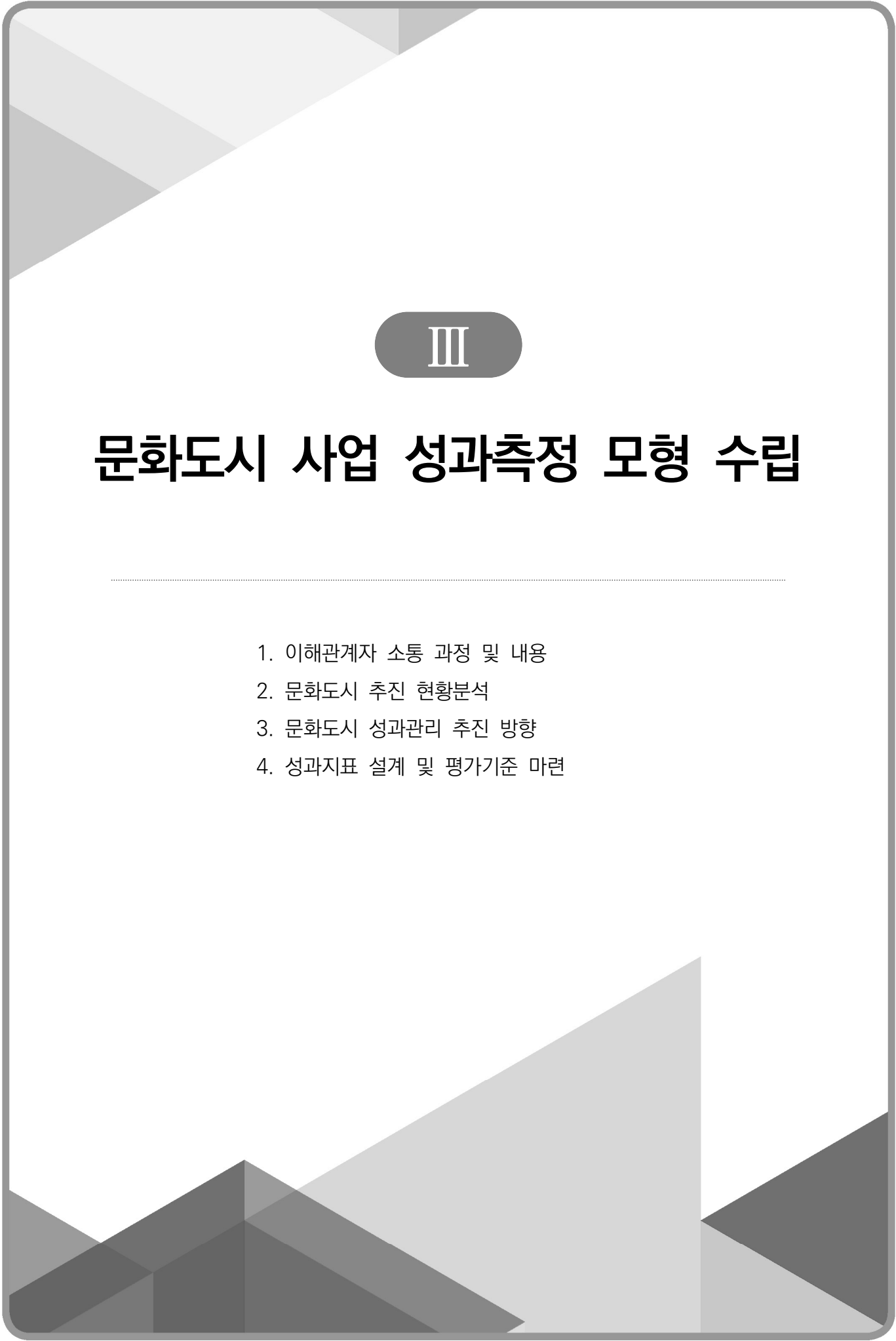
[표 41] 일본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원리	일본
도입배경	업무의 질 향상, 업무의 활성화 및 효율성 향상, 자율적인 운영과 투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
근거법률	독립행정법인통칙법 및 기관별 개별법
지향가치	사무·사업의 수직적 감량을 추진하면서 효율성 향상, 품질 향상 및 투명성 확보
개념	국민생활 및 사회경제의 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사무 또는 사업으로서 국가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직접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 중 민간주체에 맡길 경우 반드시 실시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 또는 한 주체에 독점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공공의 사무이면서 국가기관이 직접 담당할 필요가 없는 업무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설치기준	"공공재(公共財)"를 제공하는 경우 · "독점(独占)"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당할 경우 · 행정서비스의 가격이 낮아 공정하게 제공되는 경우 ·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체기준	특별한 규정이 없음
형태 및 지정현황	2016년 기준 88개 법인, 133,224명. 이 중 행정집행법인은 7개, 상근직원 7,160명임
유형	중기목표관리법인, 국립연구개발법인, 행정집행법인으로 구분함.

출처: 책임운영기관 선진 해외사례 조사연구(최진욱 외, 2016)

3. 시사점

- 문화 관련 사업과 도시/지역 관련 사업의 주요 사례들의 성과 평가 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동향과 지표체계 구성안을 참고하였음.
- 다양한 사업들을 포괄하는 도시재생사업이나 각 주체별 사업 내용이 다양하고 자율적으로 구성되는 무지개다리사업의 지표 체계 구성이나 연차별 적용 방식을 참고함.
 - 평가 사례별 다양성을 사업의 본원적 목표와 가치 아래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식의 중요성 제시
-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현재 문화도시 사업이 표방하고 있는 개별 문화도시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살리면서도 객관성을 지향하는 성과평가 모형 구축에 참고할 만한 사례로 판단됨.
- 유럽문화수도 사업은 우리나라 문화도시 사업의 설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업으로 성과관리 체계 구축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사례이나, 우리나라 문화도시 사업과의 차이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함.
 - 우리나라 문화도시도 각 도시의 개별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유럽문화수도의 개별도시의 자율적 모니터링 방식을 참고함.
 - 하지만, 유럽문화수도는 개최연도의 성공적 개최 자체에 관심이 집중된 구조이고, 유럽문화수도 사업의 재정구조를 보면 유럽문화수도 기금의 역할은 재정 부문에서 10% 이하의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임.
 - 국비가 전체 사업예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5년간 지원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문화도시 사업구조에서 사업비 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필요성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임.
-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데이터베이스나 영국 예술위원회의 자기진단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의 자료 및 정보 구축을 통한 효과 확산 방안에 참고할 만한 사례임.



III

문화도시 사업 성과측정 모형 수립

1. 이해관계자 소통 과정 및 내용
2. 문화도시 추진 현황분석
3. 문화도시 성과관리 추진 방향
4. 성과지표 설계 및 평가기준 마련

Ⅲ. 문화도시 사업 성과측정 모형 수립

1. 이해관계자 소통 과정 및 내용

1) 문화도시 사업의 이해관계자 도출 및 유형화

(1) 사업의 이해관계자 · 수혜자 도출

- 문화도시의 비전과 4대 목표에 따라 달성되는 유·무형의 구체적인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 도출한 사업의 이해관계자 및 수혜자는 다음과 같음.
 - 사업의 이해관계자: 문화도시 사업 추진주체(센터/재단/진흥원 등), 행정 관계자(시/군/구 기관 관계자),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가
 - 사업의 수혜자: 일반 시민

[표 42] 문화도시 정책 비전과 목표

비전	문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4대 목표	①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②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③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④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2) 의견수렴을 위한 이해관계자 · 수혜자 유형화

- 문화도시 성과운영 방안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수혜자에 대해 유형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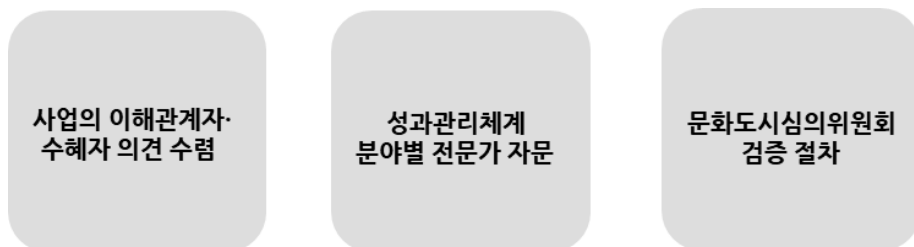
[표 43] 사업의 이해관계자·수혜자 유형화

제1차 문화도시	이해관계자			수혜자
	추진주체 소속	행정 관계자 소속	문화도시 활동가	일반 시민
경기 부천시	부천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부	부천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문화도시 사업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예술가, 워킹그룹 등	문화도시에 거주하는 시민 문화도시를 방문하는 시민
충북 청주시	청주문화도시센터	청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충남 천안시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도시사무국	천안시 문화관광과 문화산업팀		
강원 원주시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	원주시 문화예술과 창의도시팀		
경남 포항시	포항문화재단 정책기획팀	포항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부산 영도구	영도문화도시센터	영도구청 문화관광과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조성TF팀		

(2) 연구 진행과정에서의 객관성·적합성 검증

- 사업의 이해관계자·수혜자 의견 수렴 및 성과관리체계 분야별 전문가 자문,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 및 적합성을 검증하였음.

<그림 11> 연구 진행과정에서의 객관성·적합성 검증



2) 문화도시 사업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1) 문화도시 추진주체 의견 수렴

- 사업의 현장 상황 파악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문화도시별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회의 및 FGI를 진행함.
- 당초 계획은 문화도시별 현장 방문을 통해 대면 미팅 및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ZOOM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 회의를 다수 진행하였음. 구체적인 일정 및 방식은 아래의 [표 44]와 같음.

[표 44] 제1차 문화도시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일정	회의/FGI 명	참석	오프라인	온라인
20.6.5.	부천 추진주체 1차 FGI	연구진, 부천 추진주체	-	ZOOM
20.6.12.	포항 추진주체 1차 FGI	연구진, 포항 추진주체	-	ZOOM
20.6.15.	서귀포 지자체/추진주체 1차 FGI	연구진, 서귀포 지자체/추진주체	-	ZOOM
20.6.16.	영도 지자체/추진주체 1차 FGI	연구진, 영도 지자체/추진주체	-	ZOOM
20.6.16.	원주 지자체/추진주체 1차 FGI	연구진, 원주 지자체/추진주체	-	ZOOM
20.6.16.	청주 지자체/추진주체 1차 FGI	연구진, 청주 지자체/추진주체	-	ZOOM
20.6.17.	천안 지자체/추진주체 1차 FGI	연구진, 천안 지자체/추진주체	-	ZOOM
20.6.19	문화도시 성과관리 논의	연구진, 문화도시 상생협의체	원주 캠프롱	-
20.7.3.~ 7.9.	추진주체 대상 예비조사	문화도시별 추진주체 대표자 응답	-	구글 설문응답
20.7.14.	문화도시별 추진주체 2차 FGI	문체부, 지문원, 연구진, 문화도시별 추진주체	서울역 인근	-
20.7.28.	문화도시별 지자체 2차 FGI	문체부, 지문원, 연구진, 문화도시별 지자체	서울역 인근	-
20.9.15.	부천 추진주체 3차 FGI	연구진, 문화도시별 추진주체	재단 방문	-
20.9.21.	원주 추진주체 3차 FGI	연구진, 원주 추진주체	-	ZOOM
20.9.21.	청주 추진주체 3차 FGI	연구진, 청주 추진주체	-	ZOOM
20.9.24.	영도 추진주체 3차 FGI	연구진, 영도 추진주체	-	유선연락
20.9.25.	천안 추진주체 3차 FGI	연구진, 천안 추진주체	-	ZOOM
20.9.28.	서귀포 추진주체 3차 FGI	연구진, 서귀포 추진주체	-	ZOOM
20.9.28.	포항 추진주체 3차 FGI	연구진, 포항 추진주체	-	ZOOM

(2) 문화도시 추진주체 의견 수렴 주요 사항

가. 지자체/수행기관 대상 1차 FGI ('20년.6월 시행)

○ 주요 안건

- 기존 문화도시 조성 계획 대비 2020년 실행계획의 변경사항
- 코로나 발생 후의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 지역발전 기여 효과 구체화 방안
- 문화도시사업이 5년 경과한 이후 예상 변화
- 성과관리에 대한 의견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 참석

- 20.6.05. 부천: 연구진, 부천문화재단 대표, 부천문화재단 사업부 부장
- 20.6.12. 포항: 연구진, 포항문화재단 단장, 사업팀 팀장(2인)
- 20.6.15. 서귀포: 연구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주무관,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사무국장
- 20.6.16. 영도: 연구진, 영도구청 문화관광과 문화기획팀장, 주무관
- 20.6.16. 원주: 연구진, 원주시청 문화예술과 팀장, 주무관,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 팀장
- 20.6.16. 청주: 연구진, 청주시청 문화예술과 주무관, 청주시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팀장
- 20.6.17. 천안: 연구진, 천안시청 문화관광과 주무관, 문화도시사무국 사무국장, 책임, 선임

※ 안건별 주요 논의 사항

○ 기존 문화도시 조성 계획 대비 2020년 실행계획의 변경사항

- 문체부와 기재부 협의에 따라 '문화적 도시 재생', '글로벌 콘텐츠', '사회적 경제' 주제를 바탕으로 조성계획 재편성
- 기존 사업계획을 내용적 변화 없이 달리 편성한 경우도 있고, 새로운 사업내용을 부가한 경우도 발생

○ 코로나 발생 후의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 코로나 발생으로 예정했던 대규모 행사 취소하고 교육사업, 찾아가는 프로그램 축소 운영 하는 등 사업수행 지장 초래
- 문화도시 사업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하거나 소통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고 문화도시의 문화안전망이 부각되는 계기로도 작용(포항)

○ 지역발전 기여 효과 구체화 방안

- 부천: 예술인 공업지대 레지던시를 통한 지역변화, 신규 예술인 전입, 자원봉사 기반 일자리 창출 등
- 포항: 포스코와의 기업협력 모델 기반 지역 예술 활성화 발전 등
- 서귀포: 문화적도시재생, 창조인력양성(문화도시 사회경제적 조직 육성), 글로벌 문화브랜드 구축, 청년유입 및 미래세대의 창조인력 양성과 정주환경개선 등
- 원주: 시민 지향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로 지속가능성 확보 등
- 청주: 하드웨어 사업 위주 벗어나 사업 및 공간 연계 추진
- 천안: 문화 생산과 소비 경계 허물고 유통과 홍보 강화 등

○ 문화도시사업이 5년 경과한 이후 예상 변화

- 도시 의사결정 구조 변화, 지역 시민조직화 변화,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시민 파트너십 형성 등

○ 성과관리에 대한 도시별 다양한 의견 수렴

- 5년 사업 기간 중 연차별 사업 지표 및 배점 차별화 평가 필요
- 문화뉴딜 지표, 사회적 가치 등 질적 성과 포함 필요 지역 문화예술인 활동 및 사업 참여 정량 지표, 콘텐츠 발굴 및 개발에 따른 디지털화 정량 지표, 문화도시와 타 부처 사업간 협력·협업 및 기관 연계 실행 지표 등 필요
- 사회적 가치 포함 질적 성과 정리 지표 필요
- 문화도시 사업수행 전문 인력과 추진조직 관련 지표 및 조직의 지속가능성 지표 필요
- 구체적인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예산 집행에 대한 문체부 가이드라인 필요
- 문화도시로서 도시 변화 차원에서 평가기준 필요
-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과정 성과지표로 간접고용효과 진작 필요 .
- 문화도시로서 지역 정주여건 개성, 고용창출 효과 지표 필요
- 획일적 지표 적용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도시별 특성 인정하는 지표체계 필요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 시민대상 지원사업의 e나라도움 사용 시 겪는 불편 해소 방안
- 사업비 지급시기에 따라 실제 사업수행기간 단축되는 문제 해결 필요
- 5년 사업기간과 매년 사업평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 필요하며 특히 고용문제 연관성 고려 필요

나. 문화도시 추진추제 대상 예비조사 ('20년.7월 시행)

○ 예비조사 시행

- 조사 기간: 2020.7.3.~7.9.

- 조사 방식: 구글 설문 응답(구글 설문 링크 접속 후 응답)
- 응답 대상: 문화도시별 추진주체
- 응답 인원: 총 7인 (제1차 문화도시별 추진주체 대표응답자 각1인)

○ 예비조사 설문지 구성

- 추진체계 분야와 사업성과 분야로 구분하여 설문지 구성
- 추진체계 분야에서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과 문화도시지원센터 현황을 파악
- 사업성과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문화관광, 지역경제, 도시공간, 지역사회, 삶의 질 등 6개 성과영역별로 구분한 후 세부영역별로 문화도시 사업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
- 6개 성과영역별로 총 32항목에 대해서 성과기대를 하는지 조사하였으며, 응답은 ‘매우 기대됨’, ‘기대되지 않음’과 중간 범주의 세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응답하도록 함.
 - 문화예술 분야 7항목: 문화향수 증대, 문화참여활동 증대 및 생활문화진흥, 문화예술교육 규모 확대, 문화예술교육 다양성 증대, 예술인 증가, 전문 예술인 활동 강화, 문화예술 생태계 기반 강화
 - 문화관광 분야 5항목: 관광객 증대, 관광지출 증대, 축제, 이벤트 활성화, 문화관광 및 창조관광 확대, 지속가능한 관광 기반 구축(오버투어리즘,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환경 오염 완화 등)
 - 지역경제 분야 6항목: 우수인력확보(청년인력 유출 방지 및 전문인력 유입여건 개선 등), 직접 고용 증대(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직접 고용 창출), 간접 고용 증대(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전반적인 고용여건 향상), 창업 증대, 투자 유치, 지역내총생산(GRDP) 증대
 - 도시공간 분야 4항목: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효과 증진, 도시쇠퇴 완화(빈집 감소, 노후지역 이미지 개선, 공간유지보수 투자 촉진 등), 도시 내 균형 발전, 젠트리피케이션 등 개발, 재개발, 재생 사업 등에 따른 부작용 완화
 - 지역사회 분야 7항목: 참여민주주의 강화, 지역거버넌스 기반 구축, 지역정체성 강화, 지역소속감 강화, 도시 내 소지역교류 및 통합, 사회혁신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삶의 질 분야 3항목: 행복감 증진, 정주여건 개선, 사회적 네트워크 확대

○ 추진체계 분야 주요 조사 결과

- 문화도시추진위원회는 7개 도시 중 4개 도시에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임기는 2년에 15명에서 20명 규모로 구성되어 있고, 연간 2회~10회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
- 문화도시지원센터는 7개 도시 중 문화재단이나 진흥원 소속인 경우가 4개 도시인 반면, 독자형인 경우도 3개 도시였으며, 센터장의 임기는 2년 계약인 경우도 있고, 정규직원인 경우도 있음.
- 센터 직원이 정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4개 도시였으며, 정원 규모는 8명~14명 수준이었고, 센터 직원은 모두 직급제로 구성되어 있고, 직급은 3급에서 8급까지 있음.
- 센터 직원의 계약 유형을 보면 정규직과 센터 채용 비정규직이 혼재되어 있음.

○ 성과영역 분야 주요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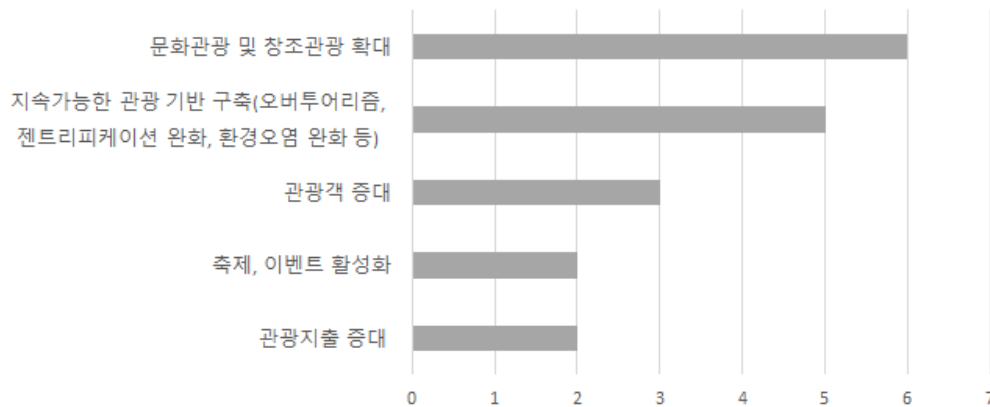
- 문화예술 분야에서 성과 기대가 많은 영역은 문화예술생태계 기반 강화, 문화예술교육 다양성 증대, 문화 참여 활동 증대 및 생활문화진흥으로 7개 문화도시 중 6개 문화도시가 성과를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2> 문화예술 분야 영역별 성과 기대 문화도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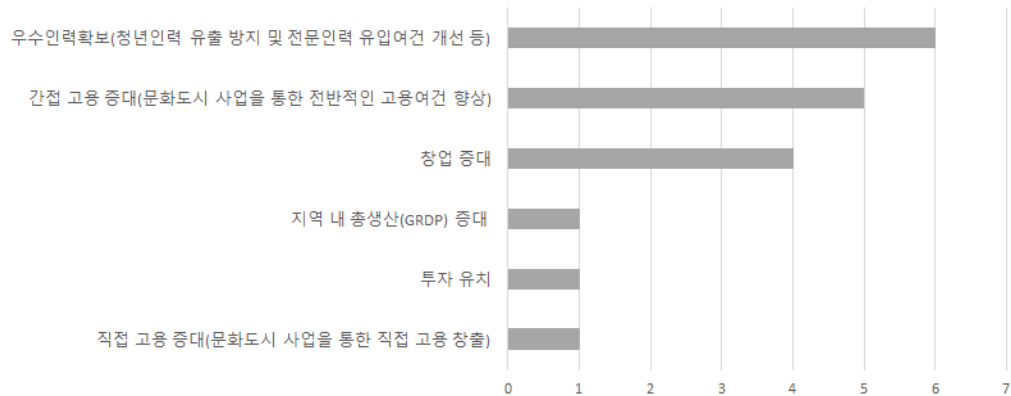
- 문화관광 분야에서 성과 기대가 많은 영역은 문화관광 및 창조관광 확대로 7개 문화도시 중 6개 문화도시가 성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지속가능한 관광기반 구축이 7개 문화도시 중 5개 문화도시가 성과를 기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3> 문화관광 분야 영역별 성과 기대 문화도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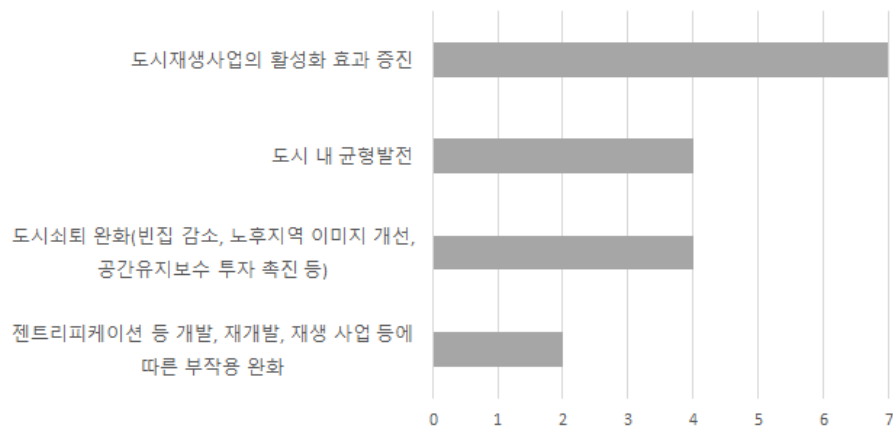
- 지역경제 분야에서 성과 기대가 많은 영역은 우수인력 확보로 7개 문화도시 중 6개 문화도시가 성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간접고용증대를 7개 문화도시 중 5개 문화도시가 성과를 기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4> 지역경제 분야 영역별 성과 기대 문화도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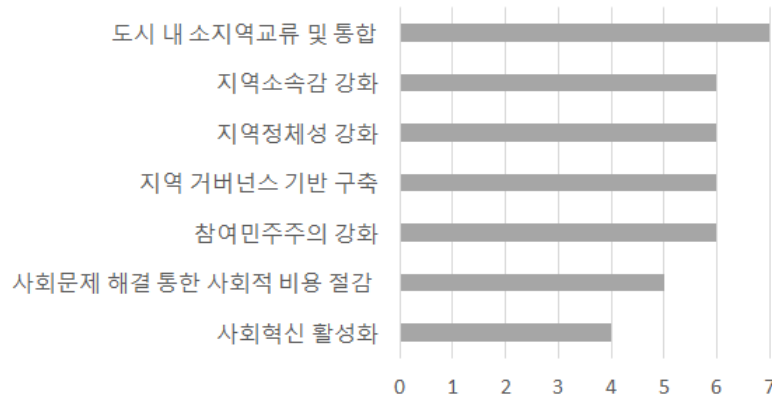
– 도시공간 분야에서 성과 기대가 많은 영역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효과 증진으로 7개 문화도시 모두 성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5> 도시공간 분야 영역별 성과 기대 문화도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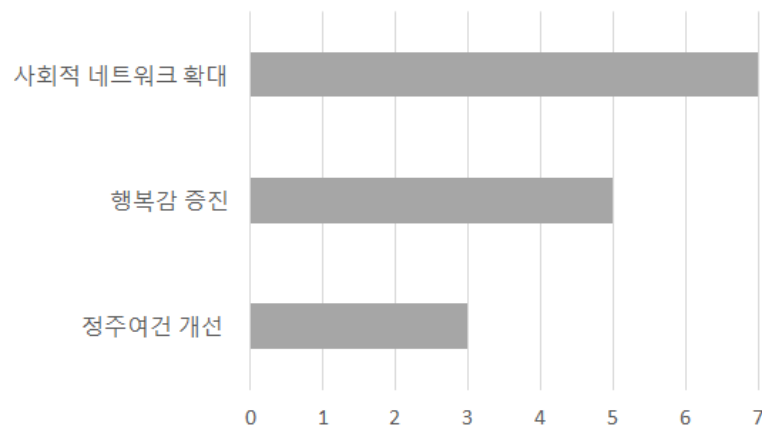
– 지역사회 분야에서 성과 기대가 많은 영역은 도시 내 소지역 교류 및 통합으로 7개 문화도시 모두 성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개 문화도시 중 6개 문화도시에서 지역 소속감 강화, 지역정체성 강화, 지역 거버넌스 기반 구축, 참여 민주주의 강화 등을 성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6> 지역사회 분야 영역별 성과 기대 문화도시 수



- 삶의 질 분야에서 성과 기대가 많은 영역은 사회적 네트워크 확대로 7개 문화도시 모두 성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개 문화도시 중 5개 문화도시에서 행복감 증진을 성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7> 삶의 질 분야 영역별 성과 기대 문화도시 수



다. 문화도시별 추진주체 대상 2차 FGI ('20년.7월 시행)

○ 주요 안건

- 성과 지표 체계, 성과 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
- 추진주체 대상 예비 설문조사 결과 공유

○ 참석

- 제1차 문화도시별 추진주체: 총 7개 도시별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등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사무관, 주무관
- 지역문화진흥원 경영기획부 부장,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팀장, 대리
- 연구진

※ 안건별 주요 논의 사항

○ 세부성과관리 구현 방식 관련

- 각 도시가 구체적으로 관리할 세부 성과내용을 확정 한 후, 각 세부성과의 측정 방법, 세부성과 증대 방법 등에 대한 협의 과정 필요

○ 추진체계 및 추진 구조 관련

-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름. 문화도시추진위원회보단 포괄적인 의미에서 추진체계와 구조를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음.
- 다른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인정. 다만, 증빙서류를 요청 드려야 할 것 같음.

○ 시민참여의 적용 범위

- 지속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탁, 온라인 포럼 등 시민참여의 제도화 방안 검토 필요함. 일례로 유럽 문화수도는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사업이 문화수도 사업 안으로 들어왔음. 생활 문화사업도 ‘과거 들어오지 않았던 인구집단이 이 사업에 포함되었는가, 그 집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였는가’하는 부분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봄.
- 개별 도시에서 고민하는 고민과 철학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현되었는가를 잘 드러내는 것이 연구의 목표임. 시민참여는 지역의 특성(인구구성, 기존 활동)등을 고려한 시민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며, 획일화된 원탁회의 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님.
- 소수집단과의 연계가 잘 되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음. 문화다양성평가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임. 소수집단이 사업에서 같이 연계되었는지가 초점이 되어야 함.

○ 행정지원 사항 관련 이슈

- 행정지원과 관련, 지자체의 전문성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 센터를 거치지 않고 문체부에서 직접 지자체에게 받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원칙이나 방향, 전문성 등은 필요할 것임. 현재는 지자체와 묶여서 할 때 준비는 센터가 하고,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도 져야하는 부분이 있음. 행정 관련 부분은 지자체에서 직접 작성해서 문체부에 제출토록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표설정 관련

- 지표를 정량과 정성으로 나누어서, 정량지표로 심의위원회를 설득하고, 이외의 부분에서 다양하게 정성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었으면 함.
- 심의위원의 다양한 구성은 문화도시를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함. 현장에 대한 이해를

- 깊게 해주실 것을 기대함. 그 안에서도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임.
- 심의위원분들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얘기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함. 그럼에도 분명히 정량적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봄.
 - 공통가능지표로는 예산집행률이 있겠음.
 - 성과관리 차원에서 각 도시별로 도시의 전략과 모델들을 제시했다는 전제 아래, 공통지표는 없더라도 도시별로 엄격한 지표는 필요함. 그렇게 되면 흑여 지정취소가 되더라도 도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임.
 - 국토부 등 다른 사업은 ‘휴먼웨어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자체에서는 이를 ‘시민향유확대사업’으로 이해했음. 생활문화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나눠주는 방향으로 농후해질 수 있는 것임. 휴먼웨어의 부분은 어느 정도 공통가이드라인이 필요함. 자체적인 성과관리도 필요할 것임.
 - 직접·간접고용이 나눠진 부분에서, 직접고용으로는 데이터가 안 나올 것 같음. 간접고용과 파급효과를 어떻게 만드는 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임.
 - 성과지표의 결과는 모두 센터나 사업단에서 안고가게 됨. 행정이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미약할 것임. 추진주체 입장에서는 사업변경의 차원이 아니고 지속성의 차원에서 행정의 힘을 원함.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는 성과지표를 고려해주셨으면 함.
 - 현재 설정 방안은 이상적이고 좋음. 그러나 현장에서 적용이 되려면, 지역마다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야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함.
 - 창업, 고용유지, 콘텐츠 개발 건수 등은 의회에서 보기엔 비슷하다고 느낄 것임. 사업재원이 어디에서 왔느냐가 차별점을 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하기 어려운 성격이 있음. 특화지표를 추가하게 된다면, 지표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문화사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 큰 틀 안에서 공통지표가 있어야만 업무보고를 통해 문화도시에 대해 생각할 것임. 예산에 대한 것도 지금부터라도 주입식으로라도 해주어야할 필요가 있음. 사업 종료 시점인 5년 뒤에, 그 동안 참여하고 진행했던 활동가, 예술가들이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센터만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걱정이 됨. 재정적으로도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함. 지자체 단체장의 임기의 변환점을 넘긴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통지표로 지자체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을 점수로 반영이 되고, 배점에서 비중이 있어야할 것임. 실무자들이 얼마나 사업을 이해하고 노력하느냐의 부분은 작은 사항임.
- 문화도시조성사업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음. 문화특화조성사업은 문화도시사업의 예비사업 성격임. 본 지정 이후 5년경과 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한다면, 지역에서는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하게 될 것임. 성과지표에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함.
- 문체부 차원에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처럼, 5년 이후 지자체 장들의 의지가 소멸되었을 때 문화도시사업의 동력을 수립해야할 것임.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비 종료 이후 인프라가 남음. 그러나 문화도시는 소프트웨어 측면이라 사업종료 후 실체가 남지 않을 수 있음. 행정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실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프라가 있으면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비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지자체에서도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라 사업비를 만듦. 문화도시 사업 4-5년차에 인프라를 조성한다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매달릴 수 있는 계기가 됨.
- 기금 조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소관중앙행정기관장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협의해야 함. 문화부가 승인하고, 각 지역에서 기금관리 기본법, 자치법, 재정법이 가능한지 검토한다면 기금운영이 가능할 것임. 기금운영은 5년 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문화도시 사업기간 동안 운영이 가능함.
- 기금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자체에서는 실현가능하다고 봄.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문제임. 관광기금, 문예기금도 관광객 및 복권기금 수익이 줄어들면 기금이 중단됨. 설치보다 중요한 것은 재원마련임.

○ 문화도시 사업 추진인력 관련

- 평가지표가 추진주체들에게도 만족감을 높여주고, 즐거운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음.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라. 문화도시별 지자체 대상 2차 FGI ('20년.7월 시행)

○ 주요 안건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지표 체계, 성과 관리 방식에 대한 논의 - 추진주체 대상 예비 설문조사 결과 공유 |
|--|

○ 참석

- 제1차 문화도시별 지자체: 총 7개 도시별 지자체 관계자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사무관, 주무관
- 지역문화진흥원 경영기획부 부장, 경영기획부 전략기획팀 팀장
- 연구진

※ 안건별 주요 논의 사항

○ 지표 설정 관련

- 일괄적인 목표 및 지표가 주어진다면 자율성, 다양성의 훼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각 도시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평가지표를 갖는다면 적합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가 있을 것임.

- 연구진이 제시하는 이 지표는 원칙에 가까움. 어떻게 이해해서 소화하고 사업을 추진하였는지는 각 도시가 다양하게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그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평가임.
- 사업 계획은 이미 5년에 대한 아웃라인이 있는데, 이 방향에 맞지 않으면 사업 변경이 되어야함. 성과지표에서 자율성이 주어지면 좋겠음.
- 성과관리 때문에 각 도시가 갖는 사업의 다양성이 훼손되어선 안 됨. 최대한 각 도시의 사업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버넌스 등 기본원칙을 지켜야 할 것임.
- 문화산업형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활동참여율이 불리한 지표가 될 수 있음.
- 예술참여율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음. 단순 정량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함.
- 관람율, 참여율은 기존의 사업들이 정책적 방향으로 끌어안는 부분임. 문화산업형이라고 해서 전혀 불리하지 않음.
- 우리 도시는 외지인구가 70%를 넘음. 도시를 고향으로 여긴다는 지표는 불리한 지표중 하나로 보임. 각 도시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임. 각 도시의 기반이 되는 대표적인 고유성을 지표에 넣어주시는 것을 제안함.

○ 사업의 재정 지원 관련

- 올해 예산이 10% 삭감되면서 사업계획이 변동되고, 당초목표에도 변화가 있었음. 재정적 지원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취약하다고 생각함.

○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 현황 관련

- 앞으로 평가를 받아서 법정 문화도시가 해지될 수 있음. 7개 도시마다 특색 있게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서 선정되었는데, 해마다 지표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정해야할 것 같음. 7개 도시의 개별 사업들이 지표를 따라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함. 지표를 만족하기 위해서 도시의 특성이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됨.
- 정량지표도 중요하지만 사업 과정 및 특성화 사업을 봐주었으면 좋겠음.
- 우리도시는 센터가 독립적으로 생기면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행정-사업단간 문제를 해소했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정기적 모임이 없어서 어려운 상황임. 다른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행정단위와 사업단위의 고민을 공유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함께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함.
- 현재 행정절차 때문에 고생 중임. 올해부터 평가가 시작된다면, 행정절차가 6월말에 통과되어서 사업설명회를 준비 중인 상황임.
- 문화도시가 될 때까지는 전속력으로 달렸는데, 본 도시 지정 이후 코로나가 와서 흐지부지된 느낌이 있음. 시민들과 시의원에게 있어 문화도시에 대한 개념과 느낌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함. 단체장이 바뀌고 담당 과장이 바뀌면, 5년 동안 지속적인 힘을 낼 수 없을 것임. 그 이전에 확고하게 브랜드화 되고, 조직화되어야 함.

마. 문화도시 수행기관 대상 3차 FGI ('20년.9월 시행)

○ 주요 안건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현황 공유- 성과지표체계 변경사항 공유 및 의견 검토- 문화도시별 현장 상황 확인 |
|--|

○ 참석

- 20.09.15. 부천: 연구진,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사업 부장
- 20.09.21. 원주: 연구진, 원주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도시혁신팀 팀장
- 20.09.21. 청주: 연구진, 청주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 20.09.24. 영도: 연구진, 영도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 20.09.25. 천안: 연구진, 천안 사무국 사무국장, 책임
- 20.09.28. 서귀포: 연구진, 서귀포 문화도시센터 센터장
- 20.09.28. 포항: 연구진, 포항 문화재단 팀장(단장 대리)

※ 주요 논의 사항

○ 문화도시 방향성 및 연속성

- 문화도시의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고민이 되는 지점임.
-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수행되어 왔던 문화예술 사업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시민 개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어려움.
- 예비 문화도시 선정까지와 다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문화도시 조성계획 재구성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함.
- 문화도시 선정까지 준비해왔던 인력이 교체되어 문화도시 계획이나 거버넌스 구축의 연속 진행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함.
- 해당 문화도시가 유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지속가능성과 같이 여타 유사 관련 사업에서 지향점으로 삼았던 목표를 추구하면서 문화도시 사업과의 공분모를 찾는 노력이 필요함.

○ 거버넌스 구조

- 거버넌스 구조의 다양한 층위별로 활동이 지속되었음.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의원이 참여하는 시민회의, 문화기획자·활동가, 워킹그룹이 있으며, 시민의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활동 관련 시민 네트워킹도 활발함.
-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단위 모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나, 다수가 모이는 오프라인 모임은 제약이 있어, 거버넌스 구축 로드맵에 따른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예술교육 및 지역의 다양한 사업이 협의회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시민위원들 기반으로 시민총회가 구성되어 시민위원장 선출 후 분과 구성을 기대했으나,

현재 오프라인 만남 제약으로 느슨한 상황임. 올해는 거버넌스 구축 로드맵을 설정하여 시민총회 이후 시민활동력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목표임.

○ 거버넌스 주체

- 참여 확대를 위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음. 질적, 양적으로 새로운 참여 확대, 창조인력과 청년층이 부족한 지역의 새로운 창조인력 및 청년 주체 유입이 필요함.
- 참여의 질적 수준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절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지역의 행정복지시설 및 도시재생사업과의 결합이 필요함.
- 기존의 시민 협의기구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확장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 문화거버넌스 제도화를 위해 조례 제정 혹은 개정이 필요함.
- 문화도시 자율예산제를 도시 문제 해결 주체로서 시민들이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고 실제적인 행정 간소화를 할 필요가 있음.

○ 행정 및 협력 체계

- 사업비 지급 시기 및 사업기간에 대한 희망 제기
- 지역 내에서 문화도시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 절차에서 가지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음.
- 보조금 사업이 가지는 자부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
- 시 안에서 다양한 부서, 기능들과의 유기적 연결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단체장의 지원 속에서 전향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임.
- 지자체 행정과 센터 사이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 필요

○ 공간 활용 관련 논의

- 도시재생 사업과 예술가의 연계를 통해 작업공간이 확보되는 성과가 있으나 결국 일부 재생사업 지역에 사업이 편중될 가능성도 있음. 도시 안에 있는 공간의 비균질적 성격을 반영하여 공간들에 대한 다양한 처방과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
- 초기에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점차 성과를 가시화하는 결과들이 도출됨.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유기적 연계 가능성이 높아짐.
- 문화자원, 문화 관심 집단의 규모, 그리고 거버넌스 방식에 따라, 부합하는 사업 방식을 고민하고 있음.

○ 사업논의

- 특화사업의 확장 가능성과 장기적 전망을 바탕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수행하고 있음. 개별 사업을 넘어서 다른 사업과 연관되며 그 영향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음.
- 특화사업의 성격이나 추진 시점, 방법 등도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달라짐. 전문가 의견과 지역의 의견을 반영함. 문화예술생태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특성화 사업 추진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고용창출

- 센터의 주5일제와 4대 보험 가입을 전제하는 직접고용과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간접고용의 인원들이 다수 있음. 기존에 수행해 왔던 문화특화지역조성 사업 예산으로 고용된 인원들이 있음. 용역계약을 통해 고용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함. 인건비로 지출되지는 않지만, 용역이나 공모계약을 통한 인건비 지출들이 포함됨. 이 경우 대부분 4대 보험 가입자는 아님.

○ 성과관리 방향

- 성과관리 수행 부담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사업관리카드 개발로 연결되기를 희망함.
- 연차별로 고려 필요. 문화도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화, 특성화 사업, 정체성 정립 등은 1년차에 평가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임.
- 지표설계를 지역에서 해야 하는지, 연구진이 하는지 파악이 어려움. 성과관리는 4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고 각 항목별 성과지표가 만들어질 것인데, 이는 예비지표인지, 이를 바탕으로 7개 도시가 각자가 성과지표체계를 만드는 형태가 되는 것인지 궁금함. 자유지표 작성은 막막함. 대개 이런 사업들을 하면 공통·개별지표에 익숙함.
- 성과지표도 유기적 연결의 방향으로 가야함. 지속성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2030 도시계획을 확정하는 시기라 조정이 필요함. 행정기관 이외에 여러 파트너들과 연계를 하는 과정까지 성과관리 지표에 담는다면 센터는 어려울 수 있음.

○ 문화지표 개발

- 문화도시별로 문화지표를 개발하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다년간 사업으로 진행 예정임. 이 지표가 지속가능성지표와도 연결이 될 수 있음.
- 공통지표 외에 지역별 특화지표가 필요함. 항목을 묶어서 개수를 조절해줬으면 함.
- 정량화 지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업 축소나 참여인원 감소로 제대로 된 지표 산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 실태조사

- 사업의 초기 수행시기에는 뚜렷한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점차적으로 조사 역량을 지역 수준에서 강화시켜야 함. 금년에는 참여자 중심의 조사를 수행하고 내년부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수행하면 좋겠음.
- 우리도시는 시민문화활동, 예술인실태조사 등의 개별 조사를 수행 중에 있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라운드테이블 활성화가 불가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 및 정책 의제 발굴을 수행하고 있음.

(3) 수혜자 의견 수렴

- 사업의 수혜자 관점에서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제1차 문화도시별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총 7회의 FGI를 진행함.

[표 45] 제1차 문화도시별 수혜자 의견 수렴

일정	FGI	대상	방식
20.9.15.	부천시 시민 대상 FGI	이00 부천도에활동가(40대, 여) 김00 부천지역 예술강사, 거문고 연주자(40대, 여)	ZOOM
20.9.21.	원주시 시민 대상 FGI	조00 문화도시 아카이브 사업 참여 중(40대, 여) 노00 원주시 기반의 다양한 지역문화사업 참여 중(20대, 여)	ZOOM
20.9.21.	청주시 시민 대상 FGI	한00 문화공간 대표 (40대, 남) 이00 작가, 기획자(30대, 남)	ZOOM
20.9.24.	영도구 구민 대상 FGI	이00 지역문화자원 조사, 연구자(50대, 여) 김00 아트디렉터(40대, 여)	ZOOM
20.9.25.	천안시 시민 대상 FGI	하00 공연기획사 대표(40대, 남) 서00 외식관련업체 대표(30대, 여)	ZOOM
20.9.28.	서귀포시 시민 대상 FGI	조00 예술인 활동단체 대표(30대, 남) 조00 문화공간 운영 대표(40대, 남)	ZOOM
20.9.28.	포항시 시민 대상 FGI	김00 시민 연극동아리 활동(50대, 여) 송00 문화관광 모임 활동, 비즈니스 호텔 운영(30대, 남)	ZOOM

■ 시민 대상 FGI 주요 논의 사항

○ 시민의 문화도시 경험과 인식

- 시민 참여 경험 축적과 학습 효과 발생으로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 제고되고 있으며, 문화도시 참여의 저변 확대 경험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다양한 만남과 소통 체험하면서 도시환경에 대한 문제의식 발전 하여 문화도시를 통한 문제 해결 욕구 발생
- 시와 정부에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투자해서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
- 기존 정부 사업과 다른 문화도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기대감 발생
- 문화도시 사업으로 지역에 정착하거나 활동하는 주민 확대 계기 마련 기대
- 욕구는 강하지만 자기희생 노력 부족한 시민 참여의 한계 느낌.
- 관심 있는 시민도 있지만, 문화도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많음.
- 문화도시 활동을 통해 지역에 문화수요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달음.
- 문화도시 브랜드가 자연스럽게 지역정체성이 되어 가는 과정 발생하였으나 무관심 시민 다수 존재

○ 문화도시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경험 있는 인력 확충을 위한 일자리 창출
- 인력의 잦은 변동 방지 필요

-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성 있는 지원
- 지자체가 간섭 자제하고 더 적극적인 후원과 지지를 하는 팔길이 원칙
- 다양한 영역의 연구, 문제점 도출 연구 필요, 공적 데이터 생산 등
- 행정, 전문가의 마을 문제와 현실 인식
- 조용히 움츠러들어 있는 청년들 불러내기
- 사전 계획 참여 기회 제공과 소통, 지속적 지원
- 거점공간 활성화로 문화활동 접근성 제고
- 문화도시 정보가 부족하며 활동가 사이에 정보 공유 장소 필요 및 생태계 조성
- 예술인 보수와 같이 예술인의 합리적 활동 여건 조성
- 지역민과 예술인 사이의 지속적 관계 유지
- 5년 후 문화도시 지속하기 위해서는 문화도시 시민으로서 정체성 확보 필요

○ 코로나 발생 상황에 대한 의견

- 대면접촉을 대신할 비대면 콘텐츠 개발을 통한 문화생활 여건 조성 필요
- 코로나 상황으로 사업 장애 발생에 아쉬움 느끼지만, 다양한 언택트(Untact) 방식으로 문화도시 발돋움시키고 홍보하면 많은 시민들 혜택 가능
-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문화도시에 대한 예술인의 기대 증가
- 코로나 상황 속 소규모 여행에 부합하는 문화관광 개발 필요

○ 성과관리에 대한 의견

- 성과관리에서 단기간 성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장기적 관점을 갖고 평가할 것
- 문화도시 사업이 상황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운영 요청

3) 문화도시 전문가 자문

(1) 연구 자문 회의 개괄

- 연구의 진행 과정 전반에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지표 및 성과관리체계의 객관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였음.
- 자문 회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연구의 내용 전반에 반영되었음.

[표 46] 일자별 연구 자문 회의

일자	자문 사항	자문	소속
20.06.11.	- 성과관리체계 연구의 방향성 검토 - 지표 설정 및 가이드라인 관련 자문	이00	건국대학교 교수
		윤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20.06.12.	- 문화도시 사업 현장 상황에 적합한 성과관리 자문	조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김00	지역문화진흥원 원장
20.06.26.	- KPI 측정 방식 자문 - 정량적 지표 설정 방식 자문	김00	서울대 환경정책대학원 교수
		최00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07.04.	- 문화도시 사업 현장 상황에 적합한 지표설정 자문	조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20.07.08.	- 문화도시 컨설턴트 관점의 성과관리 자문 - 각 지역 간 비교를 통한 문화도시별 차별성 확인	권00	문화컨설팅바라 대표
		안00	안녕소사이어티 대표
		지00	강릉문화도시센터 센터장
		추00	문화다움 대표
20.07.16.	- 자문 시점의 지표설정 방식 검토	조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20.09.19.	- 자문 시점의 성과관리체계 전반의 방향성 검토	조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20.10.08.	- 성과지표 중 문화예술 관련 지표 검토 - 자문 시점의 성과관리체계 기본방향 검토	최00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00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20.11.05.	- 문화예술 분야 성과관리지표 방향 검토	김00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20.11.11.	- 성과관리지표의 형식 및 내용, 성격 검토	한00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20.11.16.	- 성과관리지표의 형식 및 내용, 성격 검토	채00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팀장

(2) 주요 자문 사항

가. 20.06.11. 자문회의

- 주요 안건
 - 성과관리체계 연구의 방향성 검토
 - 지표 설정 및 가이드라인 관련 자문
- 주요 자문 사항
 - 관련 법령에 의거 성과관리 주체 및 역할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관련 주체들 사이의 역할 정립 필요
 - 지속가능성 지표 강화 필요
 - 지역문화진흥계획과 문화도시 조성 관계 정립 필요

- 지표체계 바탕으로 지역 자율 성과관리 지표 작성 필요
- 매뉴얼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제시하고 자체적으로 성과지표를 개발 후 중앙 정부와 협의하여 이행하도록 권장 고려
- 국비지원에 대한 성과 확대로 국비지원 타당성 제시 필요
- 5년 단위 장기계획에 맞추는 지표 설정 필요
-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균형지수조사, 문화취약계층 연구 선별·조합하는 방향 고려 필요

나. 20.06.12. 자문회의

- 주요 안건
 - 문화도시 사업 현장 상황에 적합한 성과관리 자문
- 주요 자문 사항
 - 상생 차원의 지표 설정 중요
 - 도시 간 연대, 효과 다양성, 안정화 필요
 - 공통 지표와 개별 지표 구분, 효과 지표와 지속 지표 구분 인식 필요
 - 지표 관리에서 중앙정부는 정책성과에, 문화도시는 특성과 지역사회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

다. 20.06.26. 자문회의

- 주요 안건
 - KPI 측정 방식 자문
 - 정량적 지표 설정 방식 자문
- 주요 자문 사항
 - 상향식 사업 설계 하는 문화도시의 특성상 대조군 설정이 안되어 엄밀한 계량적 파급 효과 산출 어려움
 - 산출(output)차원의 공통 KPI 설정 고려
 - 시민참여 문화도시 사업 성격상 주민참여예산제 비중 고려 바람직
 - 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의 의의 한계
 - 예산 계획 대비 실행 정도 파악 여부 확인 필요
 - 지속가능성 관련 사항 확인 중요

라. 20.07.08. 자문회의

- 주요 안건
 - 문화도시 컨설턴트 관점의 성과관리 자문
 - 각 지역 간 비교를 통한 문화도시별 차별성 확인
- 주요 자문 사항
 - 지역에서 문화도시 추진 현황 공유
 - 시민 의견 기반의 문화도시 사업 중요

- 예비도시 다수 지정, 엄격한 본 도시 선정, 선정 이후 정확한 관리, 지정 이후 추진 미흡 하면 지정 취소 필요
- 차등 예산·지정 취소에 필요한 객관적 기준으로서 중간평가 필요
- 지역문화진흥원 역할 강화 및 원내 담당 센터 설립 필요
- 조성계획 승인 후 평가체계 수립 문제점
- 조성계획 변경 허용 내지는 평가 적용시점 조정 필요
- 시민참여 특성 유지와 도시차원 기여의 균형 필요
- 문화도시센터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센터 안정성 취약점 고려 필요
- 연구진의 성과평가 체계가 문화도시 준비와 지역 풍토에 큰 영향 미침

마. 20.10.08. 자문회의

○ 주요 안건

- 성과지표 중 문화예술 관련 지표 검토
- 자문 시점의 성과관리체계 기본방향 검토

○ 주요 자문 사항

- 문화도시 선정 단계까지 열정 많은 청년창업가, 기획자 등이 투입되고, 선정 이후에는 다른 이들이 전리품 가져오는 형태 발생하는 상황 방지 노력 필요
- 성과지표 마련에 심의위원 의견 반영 필요
- 성과지표가 문화도시 사업 방어에 긍정적 영향 미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
- 지역 내 예술시장 확산 및 예술가 활동 시장 형성, 예술가 활동과 생활예술 연결 고리 , 예술가 활동 활성화 관련 지표 필요
- 문화공간 활용하는 생활예술 활성화 반영 지표 필요
- 관광, 콘텐츠 강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고려 필요

바. 20.11.05. 자문회의

○ 주요 안건

- 문화도시 사업체계 전반의 방향성 자문
- 문화도시의 정체성 및 지역문화정책에서의 역할 검토

○ 주요 자문 사항

- 장기 관점에서 5년 지원기간 이후 문화도시 미래상 제시 필요
- 문화도시 공통지표 설정 중요
- 유럽문화수도 대비 문화도시 사업의 목적성 제시가 불명확한 상황 고려하여 다양성, 생활 문화, 지역문화의 개념으로 방향설정 필요
- 사업성과의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5년 지원기간 동안 지역 내 공동체적 관계 형성 중요
- 지역문화정책의 큰 틀에서 문화도시 사업의 의미에 대한 현실적 이해 필요하고 지역 문화 조성 관점에서 접근 필요

사. 20.11.11. 자문회의

- 주요 안건
 - 성과지표 체계 및 지표명 검토
 - 행정적 지표 측정 자문
- 주요 자문 사항
 - 문화도시 성과지표와 문화영향평가 비교
 - 자율지표 적용 시, '편한' 지표 선택에 따른 공정 평가 어려움
 - 지표 범주 명칭을 통해 문화도시 정체성 제시 필요
 - 정량·정성 지표 구분 설명 필요
 - 전문가 AHP 등 지표산출 절차 필요
 - 성과평가 기준과 문화도시 선정 기준 사이 연동 필요
 - 지자체 포괄예산 추세에서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방안 고려 필요
 - 지역주민의 문화도시 사업 선호도 제고되어 참여예산으로 지속적 사업 요구 바람직

아. 20.11.16. 자문회의

- 주요 안건
 - 지표별 실현가능성 및 적절성 검토
 - 성과관리체계 검토
- 주요 자문 사항
 - 지표는 3~5년 후에 가져가야 할 평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성과관리' 외 '성과평가' 성격 포함.
 - BSC(Balance Score Card)의 재무적 관점, 고객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을 참고하거나, 프로그램모형, 투입-집행-활동-산출(output)-성과(outcome)-영향(impact)을 쪼개어서 지표를 나열하는 등 논리 체계 삽입 바람직
 - 개별 지표별 수정 사항 논의
 - 도시 전체 대상의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기반시설조사 결과와 지역 인력이나 재단, 지역문화 지수를 파악 연계 방안 논의

4) 문화도시 성과관리 운영방안 및 성과지표 의견조사

-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지표에 대해 ‘지자체, 추진주체,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를 수행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안정성을 교차적으로 확보하였음.
 - 조사 기간: 2020년 11월 30일 ~ 12월 4일
 - 조사 대상: 외부전문가(5인), 지자체(7곳), 추진주체(7곳)
 - 조사 응답: 총 16인(외부 전문가 5인, 문화도시 지자체 4곳, 문화도시 추진주체 7곳)
- 의견조사 설문지 구성
 - 성과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수정, 보완사항, 추가 및 제외사항 의견 기재
 - 성과지표 구성에 대한 수정, 보완사항, 추가 및 제외사항 의견 기재
 - 분야별 세부지표에 대한 수정, 보완사항, 추가 및 제외사항 의견 기재
 - 2개 영역(거버넌스, 성과), 6개 대분류(비전확산, 추진기반, 자율관리, 문화진흥, 지역발전, 공간문화), 15개 중분류(비전공유 분야, 실천전략 구현 분야, 추진체계 구축 분야, 협력체계 구축, 행정기반 확보, 사업수행, 모니터링 및 환류, 문화예술생태계 강화, 문화활동 참여증대, 지역문화 발전,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지역사회, 도시브랜딩 강화, 문화공간 강화, 도시공간관리 기여)
 - 공통핵심지표
 - 공통핵심지표의 필요성 여부 확인
 - 제시된 세부지표의 공통핵심지표로서의 적정여부 평가 (비전 호응도, 실천전략 현실화, 일반회계 반영 사업 수, 시민참여 경험, 문화도시 추진주체 사업 수행 만족도, 추진체계, 행정기반, 자체진단 및 환류, 예산집행률, 문화도시 이미지 개선도, 문화도시의 지역사회 기여도)
 - 공통핵심지표에 추가적으로 포함할 내용 혹은 지표 의견
 - 문화도시 성과관리 관련 추가 제안 사항 및 의견 기재
- 성과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주요 의견
 - 지역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문화도시 취지를 반영하여, 성과관리의 목표와 방향 설정 시 고려 필요
 - 기간별로 단계적인 모니터링과 심의의 차별화해야 함.
 - 평가 항목이 적용되는 기간별 단계에 대한 구체화 필요
 - 자율적 성과관리에서 지자체별로 구성하는 내용과 가중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 지속여부 결정에 대한 사항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문화도시 성과관리의 측면과 함께 성과관리 지원에 대한 방안 제시가 되어야 함.
- 성과지표 구성에 대한 주요 의견
 - 성과 부분에 시민의 ‘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가 반드시 필요함.

- 문화진흥이 문화예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지, 지역발전의 지속가능한 성장 세부지표가 문화도시 사업의 지표로 적절할지, 공간문화에서 문화 공간 부분은 자칫 사업이 문화공간에 좁혀져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은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모니터링 수행 및 활용은 환류와 연계되어 있고 지자체 자체평가가 중요하므로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로 수정 의견
- 문화참여활동은 문화향유, 생활문화 등과 중복요소가 있어 삭제 의견
- 세분화되어 내용의 결과물이 중복성이 있을 것 같아 일부 세부내용(중분류 내용) 사항을 통합할 필요
- 지역이미지 대내외 개선, 지역민 삶의 질 개선, 지역사회통합 기여 등은 지역에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과 사례 제안 등이 필요해 보임.
- 사업이 진행되는 최소 5년만이라도 인력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이드·지표가 필요
- 공통지표를 제외한 자율지표 설정 범위가 있었으면 함.

○ 비전공유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비전 이해 및 재해석’이라는 용어가 어렵고, 지표내용에 비전 이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소통과 해석이 중심임.
- 정성평가분야는 너무 주관성이 높으므로 항목을 일부 줄이거나, 정량적으로 평가 가능하게 지표설정을 할 필요가 있음.
- 비전은 단순히 인지도 및 호응도로 평가할 사항이 아님. 법정문화도시 지정이전 시민의견 수렴 및 도시현황조사분석·진단에 따라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사항임. 이에 현재 수립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비전과 현실을 반영한 다양한 브랜드 구축 전략 및 실행에 대한 내용으로 조정되었으면 함.
- 비전공유에 따른 세부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음.

○ 실천전략 구현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자율적’ 혹은 ‘자발적’ 움직임이 태동된 경우에 대한 조사가 필요
- 사업 지속성 확보 지표는 다소 추상적이어서 측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 실천전략의 현실성은 서베이로 파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로 이를 파악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 배제 역시 괄호 예시를 들어줘야 이해가 될 듯하며, 내용상 미래 가치 구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중복되는 느낌임.
- 일반회계 반영 사업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것은 도시별 예산 편성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젠트리피케이션의 경우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분류 내용의 젠트리피케이션 완화 항목에 대한 검토를 요청
- 문화도시 실천전략의 현실성 평가를 서베이 방식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함.
- 비전확산에 따른 세부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음.

○ 추진체계 구축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문화도시 추진위 관련 지표를 줄일 필요성(너무 많음)
- 운영계획이라는 차원에서 추진위와 센터 운영계획을 통합하는 것 검토
- 추진 체계 차원에서 시민관련 지표가 포함되어 다소 어색한 느낌이 있음.
- ‘추진위 구성 및 운영’의 하나의 지표로 통일하고 내용을 합치는 것이 나을 듯함.
- 평가 항목이 너무 많아 실질적 사업추진에 방향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본질적 업무보다 평가에 치중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염려됨.
- 지표항목을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문화도시위원회 →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이에 준하는 위원회나 협의회)라는 용어를 모두 공히 사용 요청
- 주민 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각 동에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지표 설명에서 제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그 주민 참여 예산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 참여형 예산이라는 시민숙의형 방식을 문화도시에 서 적용하고 있을 것을 말하는지 용어의 구분이 필요해 보임.
-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중장기 운영계획이라는 말이 모호함.
-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 임기가 2년이므로, 2년 마다 구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므로 중장기 운영계획을 한 번에 수립하기는 어려움.
- 시민 참여 경험 및 의향에 따른 조사 목적이 현황 파악인지 연간 증감률 조사인지 궁금함.

○ 협력체계 구축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다소 문항이 많은 듯함. 도시정책 연계, 지속성 등은 단기에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 도시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이 포함되었으면 좋겠음.
- 문화도시조성 각 단계에 따라 세부지표 축소가 필요함.

○ 행정기반 확보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지자체의 홍보, 지자체의 언론홍보 노력, 지자체의 SNS 홍보노력은 서로 중복성이 있으며, 실질적 사업 주체와 행정이 다른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통합 또는 사업주체의 지표로 전환 필요
- 단체장의 문화도시 관련 미디어 노출은 많아야 1년에 한 두 번 일 듯함. 그것도 축제, 공간 개소식 등 행사 중심일 가능성이 높음. 단체장으로 한정 지을 필요가 있을까 싶음.
-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도시 추진 및 지원과 관련한 원칙 및 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세부지표가 보완되었으면 함.
- 언론 노출에 따른 피드백도 중요한 정성적 지표가 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모니터링 및 환류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자율관리라는 대분류의 의미가 모호하며, 이에 따른 사업 수행부분이라는 중분류도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음.

- 사업의 윤리성이 사업수행에 큰 이슈가 될 만큼(지표화 될 만큼)의 비중이 있는지 모르겠음.

○ 문화예술생태계 강화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관내 교육기관 및 교육시설과 연계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성과의 문화진흥 부분에서 문화예술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생활문화는 전문성보다는 문화향유나 여가로 접근해야 함(지금은 전문성제고에 초점)

- 전문예술인과 생활문화 참여자 간의 소통이 중요할 수 있지만 정량 평가 방식은 좀 애매해 보임.

- 지역 거주 예술인 수를 어떤 식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음.

- 문화예술생태계 강화에 따른 세부지표가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음.

○ 문화활동 참여 증대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문화 활동 참여증대’ 중분류항목은 중분류를 좀 더 세분화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다소 과도할 정도로 충분함. 단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사설 문화 활동 및 학원/교육, 동아리도 함께 측정될 필요가 있음.

- 문화 예술 활동, 생활 문화 활동, 문화 예술교육활동 등에 대한 참여를 지표화 하였는데, 이것은 문화 활동 참여 지표로 두고 세분화해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문화’활동의 범위에서 문화를 매개로 한 공동체 활동이라는 부분을 지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중분류인 문화 활동 참여 증대의 실제 내용은 문화적 다양성에만 너무 초점을 두고 있음.

- 문화예술교육과 기존 지역 문화시설 이용도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 이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지 의문임.

- 문화도시조성 각 단계에 따라 세부지표 축소가 필요함.

○ 지역문화 발전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지역문화발전이 전통문화와 동일시되는 듯 하는 느낌임. 지역문화를 지역의 ‘문화적’ 특색 /특성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떨까 함.

- 전통문화의 재해석, 전문화 자원화 활동은 통합할 필요가 있음(중복성).

- 전통문화는 ‘전통문화/ 지역문화’ 로 병기하면 좋겠음.

- 전통문화가 강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 있음.

○ 지속가능한 성장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관광까지 포함하는 것은 현재 문화도시의 단계에서는 다소 과하다는 생각. 오히려 지역의 민간사업체, 사설기관, 상업 활동 등에서 문화가 제작, 유통되는 지를 보는 것이 중요할 듯함.

- 문화도시의 성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지는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지표가 특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문화도시 성과를 일거리, 창업, 콘텐츠 관련 창업, 콘텐츠 개발, 인력, 일거리 등의 차원에서 다루게 될 경우, 사업의 초점이 이러한 부분에 맞추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문화도시 사업이 지향하는 성과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함.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창업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 관광에 강점이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을 것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관광객 수가 늘어났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지 의문임.
- 관광지 방문자 수, 숙박 관광객 수는 문화도시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 성과지표로는 부적합 하다고 판단됨.

○ 포용적 지역사회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포용적 지역사회는 문화도시 성과로 측정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지역 소속감, 지역 자부심 지표는 중요하게 생각됨. 다만 도시 생활 전반적으로 물을 때는 유의미하나 특정 사업을 통해 이 지표를 가늠하는 것은 애매할 것 같음.

○ 도시 브랜딩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도시브랜딩보다는 다른 표현을 찾는 것이 좋을 듯함.
- 도시브랜딩 창출에 따른 지역 내(마을) 콘텐츠 및 인지도 강화, 도시브랜딩에 따른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지표가 추가되었으면 좋겠음.

○ 문화공간 강화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문화공간을 다루려고 한다면, 유형의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한다면보다는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실내외)을 살피는 것이 좋을 듯함.
-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국공립 문화공간은 프로그램중단이나 운영중단 조치가 있음. 내년에도 계속 된다면 이에 따라 정성평가가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임.
- 문화 공간 운영을 위한 운영주체 발굴 및 커뮤니티, 단체 등(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구축 지표가 추가되었으면 함.

○ 도시공간관리 기여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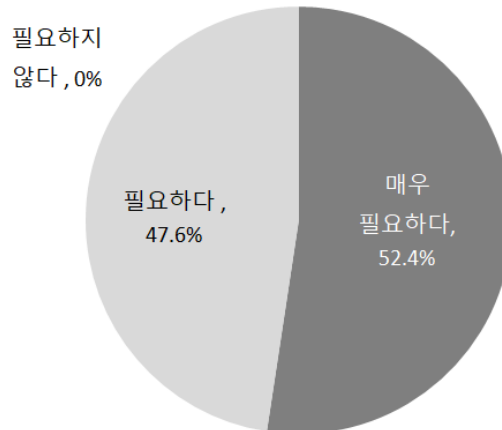
- 젠트리피케이션은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볼 때, 다양한 문화도시 유형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 문화도시의 성과로 도시 공간 관리 기여라는 분야를 설정할 때 그것을 어떤 부분으로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것과 관련하여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법적, 제도 부분과 관련이 크고 관련 당사자도 일반 시민보다는 입주해 있는 분들과 관련된 부분이라 일반 시민 공감 보다는 해당 되는 대상층이 중요해 보임.

○ 공통 핵심지표의 필요성 관련 의견

- 공통 핵심지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조사 전체 응답자 21인(심의위원 11인, 심의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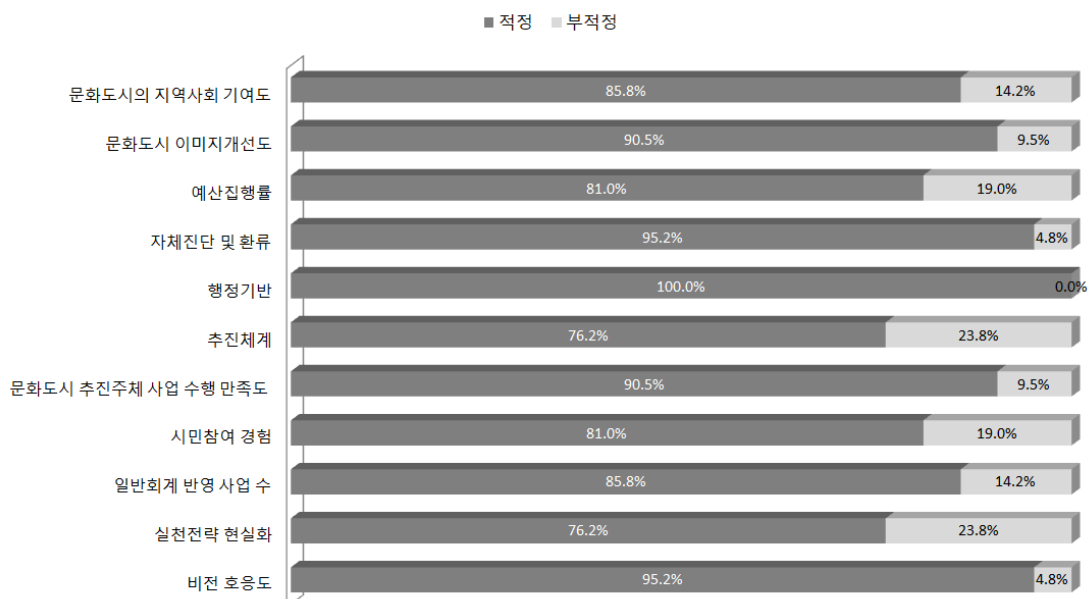
을 제외한 외부전문가+지자체+추진주체 10인) 중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2.4%로 나타났으며, ‘필요하다’는 응답은 47.6%로 나타났음. ‘필요하지 않다’는 0%로 모든 응답자가 공통 핵심지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음.

<그림 18> 공통 핵심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 조사에서 제시된 공통 핵심지표 중 ‘행정기반’ 지표는 전체 응답인원 모두 ‘적절’하다고 답하였으며, 나머지 각각의 공통 핵심지표에 대한 적정 응답 비율은 다음과 같음.
- 비전 호응도 95.2%, 실천전략 현실화 76.2%, 일반회계 반영 사업 수 85.8%, 시민참여 경험 81.0%, 문화도시 추진주체 사업 수행 만족도 90.5%, 추진체계 76.2%, 행정기반 100%, 자체진단 및 환류 95.2%, 예산집행률 81.0%, 문화도시 이미지개선도 90.5%, 문화도시의 지역사회 기여도 85.8%

<그림 19> 제시된 공통 핵심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 공통 핵심지표 중 외부전문가, 지자체, 추진주체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각각의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비전호응도: 지역마다 여러 이유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 실천전략 현실화: 연차별 목표 설정 사업수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 사업개수가 성과로 꼭 중요할지 의문임. 사업 수가 의미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임. 사업 수처럼 정량적으로 접근할 시 개수 늘리기로 맞출 가능성이 있음. 사업 수 대신 필수사업 분야를 명시하고 따르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
- 일반회계 반영 사업 수: 사업 수 의미에 회의적임. 도시별 예산 편성 방식이 상이함.
- 시민참여 경험: 범주가 애매할 수 있음. 참여자 수를 늘리는 데만 활용할 수 있음. 정량화된 실적이 초래할 부작용이 있음.
- 문화도시 추진주체 사업 수행 만족도: 주민 만족도가 더 중요해 보임.
- 추진체계: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아직 제도적으로 확립 되지 않아 문화도시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봄. 주민참여예산은 변수가 많음.
- 자체진단 및 환류: 부담이 될 수 있음.
- 예산집행률: 예산집행은 평가지표가 아니라도 당연히 적정하게 관리하고 사용함. 집행률 자체를 관리하면 집행률 높이는 사업을 하게 될 우려가 있음. 예산집행에만 초점을 맞출 우려가 있음.
- 문화도시 이미지개선도: 문화도시의 지역사회 기여도 지표에 의미가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음.
- 문화도시의 지역사회 기여도: 지역사회발전이라는 매우 다양한 개념을 시민 서베어로 알기 쉽지 않을 것 같음.

○ 공통 핵심지표 추가 관련 의견

- 시민의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추가되었으면 함.
- 지역인력양성사업 등을 통해 청년, 문화기획자, 예술가 등에 대한 인력양성은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문화정책을 다루고, 거버넌스의 핵심 매개자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의 역량과 수준, 인력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함. 도시문화경영전문조직으로서 전문인력 역량개발의 중요성 인지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 항목이 공통핵심지표에 포함되었으면 함.
- 사업수행 기간 동안,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들에 대한 안정·보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표가 추가되길 희망함.
- 공통핵심지표에서 사업추진주체(센터, 사무국 등)의 만족도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사업 수 대비 차년도 일반회계 반영 사업수를 측정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 싶음. 재단의 경우에는 출연금으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재단 운영 형태가 아닐 경우 일반회계 반영 건수 측정이 모호함.

5) 추진주체 대상 문화도시 성과관리 보완 의견 수렴

- 추진주체(문화도시별 센터, 사무국, 위원회 등)를 대상으로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과 성과평가 보고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함.

[표 47]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및 성과평가 보고서 작성 관련 의견 수렴

일정	회의 명	참석	오프라인	온라인
21.01.25.	청주 온라인 미팅	연구진, 청주 추진주체	-	ZOOM
21.01.27.	영도 온라인 미팅	연구진, 영도 추진주체	-	ZOOM
21.01.28.	부천 온라인 미팅	연구진, 부천 추진주체	-	ZOOM
21.01.28.	원주 온라인 미팅	연구진, 원주 추진주체	-	ZOOM
21.01.28.	천안 온라인 미팅	연구진, 천안 추진주체	-	ZOOM
21.01.28.	서귀포 온라인 미팅	연구진, 서귀포 추진주체	-	ZOOM
21.01.29.	포항 온라인 미팅	연구진, 포항 추진주체	-	ZOOM

■ 성과 관리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한 질의 및 논의 사항

- 목표치 설정 요청
 - 개별 문화도시별로 목표치 설정
- 성과관리 지표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지표 분량과 지표 작성 수준에 대한 의견 개진
 - 지표 분량에 대한 부담 의견을 수렴하여 지표 분량 축소하기로 함.
 - 지표별로 작성하지 않고, 대분류 혹은 중분류 단위에서 작성하기로 함.
 - 시민참여 관련 부분 및 만족도 조사, 시민조사 등의 구체 수행 방법 마련되어야 함.
 - 객관성 있는 시민조사가 차년도부터 수행된다는 점을 전제로, 2020년에는 적절한 목표치 설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함.
- 세부지표 관련 사항으로는 다음 사항들 논의됨.
 - 문화자원봉사자 수의 정의와 계량화 방법
 - 일자리, 일거리, 용역 등 구분 방법
 - 예술가 정주여건의 의미와 지표화 방법
 - 사업 추진역량 강화 관련 지표 보완
 - 인건비 규정의 개정 필요성 논의
 - 도시브랜딩 의미와 적용 방법
 - 지속가능한 성장에 문화창업의 증명 방법과 고유성 제시 방법

- 주민참여예산 해석 및 적용 방법
- 민간소유 공간의 공적 활용 제시 방법
- 워킹그룹,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획자 등 폭넓은 참여 파트너십의 실행주체로서 제시 방법
- 문화도시의 개방성과 환대를 권장할 수 있는 지표 요청

○ 모니터링 운영에 대한 의견 및 현황 파악

- 모니터링 수행 주체를 단으로 볼지 개별 평가자로 볼지 논의
- 시민참여의 한 형태로서 시민 모니터링단이 가지는 의의 공유

○ 성과관리 이후 포상 및 컨설팅에 대한 의견 수렴

- 잘한 도시는 개인 포상, 단체 포상, 정책 연수 등 여러 인센티브를 주고, 미흡을 받은 도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는 장치 마련 필요
- 성과공유회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 지역별 내실 있는 컨설팅 수행 필요

○ 매년 성과평가의 필요성 논의

- 5개년 계획 수립 운영과 매년 성과평가 운영의 괴리 가능성 논의
- 시민참여 확대의 현실적 어려움 해소 방안 논의

6)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

(1) 문화도시심의위원(성과평가위원) 대상 성과관리체계 의견 수렴 서면 조사

○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지표에 대한 서면조사 시 심의위원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 조사 기간: 2020년 11월 30일 ~ 12월 4일

－ 조사 대상: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응답 인원: 심의위원 11인

○ 의견조사 설문지 구성

－ 성과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수정, 보완사항, 추가 및 제외사항 의견 기재

－ 성과지표 구성에 대한 수정, 보완사항, 추가 및 제외사항 의견 기재

－ 분야별 세부지표에 대한 수정, 보완사항, 추가 및 제외사항 의견 기재

- 2개 영역(거버넌스, 성과), 6개 대분류(비전확산, 추진기반, 자율관리, 문화진흥, 지역발전, 공간문화), 15개 중분류(비전공유 분야, 실천전략 구현 분야, 추진체계 구축 분야, 협력체계 구축, 행정기반 확보, 사업수행, 모니터링 및 환류, 문화예술생태계 강화, 문화활동 참여증대, 지역문화 발전,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지역사회, 도시브랜딩 강화, 문화공간 강화, 도시공간관리 기여)

－ 공통핵심지표

- 공통핵심지표의 필요성 여부 확인

- 제시된 세부지표의 공통핵심지표로서의 적정여부 평가 (비전 호응도, 실천전략 현실화, 일반회계 반영 사업 수, 시민참여 경험, 문화도시 추진주체 사업 수행 만족도, 추진체계, 행정기반, 자체진단 및 환류, 예산집행률, 문화도시 이미지 개선도, 문화도시의 지역사회 기여도)

- 공통핵심지표에 추가적으로 포함할 내용 혹은 지표 의견

－ 문화도시 성과관리 관련 추가 제안 사항 및 의견 기재

○ 성과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주요 의견

－ ‘성과관리 방향’의 성과관리의 지향점이 성과관리가 끝난 5년 후에 편중되어 있어서, ‘사업계획의 결과 예측 및 중간 모니터링, 계획 수정 보완의 근거’라는 내용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성과관리라는 부분의 지향점을 첨가할 필요

－ ‘성과관리 활용방안’의 내용은 지역 자체의 성과관리와는 무관하게 심의위에서 최종 성과관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성과관리 결과 활용방안’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 체계의 대분류별로 심의위원을 배정하여 해당 대분류 영역을 평가하는 경우 심의위원 전공에 따라 관점이 한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심의위 전체에서 대분류별 평가

결과 종합하는 방식이 좋을 듯함.

- 개별 문화도시의 자율적 성과관리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에서 예상되는 왜곡현상을 방지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함.
- 심의위원회의 성과관리 심의는 연차별로 평점을 다르게 하는 것을 추천함.
- 공통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성과 관리할 수 있는 표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성과관리의 목적과 활용 방안이 전반적으로 적절함.
- 서베이에서 시민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것뿐만 아니고, 지자체의 전문가그룹(50인정도)에 대한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그룹의 의견에 대한 일치와 차별을 함께 고려할 수 있으면 함.
-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 운영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됨.
- 모니터링이 짜고 치는 판이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단 선발 및 운영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적절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심의위원 배정 및 점수 산정과 환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거버넌스 영역에 대한 분류작업의 제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모니터링의 실시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평가나 효과의 확산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각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와 지원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진단과 개선을 위한 피드백의 효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모니터링과 성과관리를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하는지, 2년에 한번 실시하는지 등 기간이 매우 중요할 것임. 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함.

○ 성과지표 구성에 대한 주요 의견

- 거버넌스의 추진기반 중 협력체계에 ‘타 도시의 인력, 정책과 협력 및 연계’ 보완 요망
- 문화진흥의 ‘지역문화 발전’이라는 중분류 항목은 ‘지역문화 보존과 발전’으로 변경하고, 그 내용으로 지역문화자원 파악·활용/역사·전통문화/현재 기록·발굴/지역문화 공유와 강화로 수정 요망
- ‘도시의 지역성’ 및 ‘문화도시 비전과 계획의 연계성’은 ‘도시의 정체성’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됨.
- 행정 및 재정기반에서 행정업무나 행정체계가 문화도시를 위해 바뀐 사례와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서술이 가능하여 공유 가능한 형태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성과지표의 구성과 분류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중분류의 내용 설명이 실제 의미에 비해 다소 모호하게 여겨지는 항목이 있음. 예컨대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변화상의 구체화 부분이 그러함.
- ‘도시브랜딩 강화’의 내용에 있어 ‘상징물 및 콘텐츠 제작’은 각론적 사업의 성격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문구 수정을 고려해주시기 바람.
- 문화향수 증가 및 문화 소비자층 확대 → 문화향유 증가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봄.
- 전체적으로 중분류 내용에서 핵심지표의 방향성이 잘 드러나도록 기술해주는 것이 필요
- “조례 확보 및 개정 노력”은 “조례의 실효성 확보 노력”으로 변경 필요
- 일부 지표의 경우 정량지표로만 하기보다는 ‘우수사례’를 1건~2건씩 제시하도록 하여

양적으로 프로그램이나 행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적 우수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윤리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표로 판단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함.

○ 비전공유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비전은 사업들을 통해 달성되어야 할 이상향이고, 그림이므로 1년의 예비도시 사업 후 구체화되고 풍부해졌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함.
- 비전의 풍부함을 비전의 효과성이나 효용성, 실현가능성으로 바꾸면 좋을 것임.
- 비전 이해 및 재해석은 '비전의 이해와 소통'으로 변경되길 요망
- 세부지표가 과다하면 평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오직 평가를 위한 평가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 비전 달성 가능성 인식 항목은 빼도 될 듯함.
- 비전의 '해석'과 '재해석'이라는 용어를 각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음.
- 비전의 풍부함을 비전의 효과성이나 효용성, 실현가능성으로 바꾸면 좋을 듯함.
- 문화도시 비전의 변화에 공감 할 수 있는가를 점점 할 항목이 필요함.
- 비전인지도와 비전호응도는 다르지만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어떨까 함.

○ 실천전략 구현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세부지표들의 순서가 조정되어야 함. 세부지표들이 실천 전략을 잘 구현해서 비전을 확산하는 목표에 초점을 두고 배치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도나 시급도 혹은 주체의 단위 및 목표의 달성 시기별로 순서가 체계화되어야 하기 때문임.
- 사업 지속성 확보라는 표현이 추진 동력을 확보했는지 묻는 것이라면 사업 추진 동력 확보로 수정하는 게 어떨까 함.
- 미래가치구현 지표에 있어, 지표의 설명이 미래가치를 생태, 성 평등, 포용으로 국한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보임.
- '추진 동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함.
- 목표 설정 '사업 수'를 성과지표로 포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듯함. 사업수가 많은 것이 좋은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음.

○ 추진체계 구축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조정된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면 반드시 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변화 혹은 강화되었는가?'라고 질문해서 좋은 체계의 경우 유지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지표 내용 중 진흥원에 소속된 경우, 관계를 질문했는데, 이때는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재단이나 진흥원과의 관계"가 아니라 "재단이나 진흥원 내에서 역할이 적절한가"로 수정되어야함.

- 시민참여 활동의 적정성 지표에 앞서 ‘시민 참여활동의 제도 구비여부’ 혹은 ‘시민 파트너십 제도화’ 등을 문의해야 할 것임. 예를 들면 ‘시민위원회’조직이나 ‘시민 라운드테이블 정례화’ 등 뭔가 제도화된 것이 있을 때 참여가 보장될 수 있음.
- 추진위 운영계획의 적정성과 문화도시 추진위 중장기 운영계획의 지표 내용이 중복되는 건 아닌지 점검 필요
- ‘센터가 재단이나 진흥원에 소속된 경우’ → ‘센터가 독립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에 소속된 경우’로 변경 필요
- 문화도시센터의 전문성은 언급되었으나 문화도시센터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데 인력의 전문성이 센터의 전문성과 동격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함.
- ‘거버넌스 체계’ 지표가 추진과정에 따라 진화 가능한 유연한 형태의 거버넌스 설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지표라면, 지표명이 좀 더 내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시민과 문화예술분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이 구축되어 있는지, 이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자체와 문화도시지원센터 간의 관계가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센터가 전문성, 자율성, 조직적 안정성과 충분한 자원(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진위원회에 주요관계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업 참여경험 비율을 도출하려면 설문 대상자의 표본을 매우 크게 설정해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듯함.

○ 협력체계 구축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제도화 수’의 의미는 알겠지만 제도화라는 활동 자체의 숫자는 표시가 어려우니, ‘~연계 제도화를 실증하는 자료 수’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활동의 효과성 증진에 기여하였는가? 항목은 그 의미가 조금 모호한 듯함. 문화도시 사업이 공공서비스 활동인지, 기존의 다른 공공서비스 활동이 문화도시사업으로 효과가 증가했는지 모호함. 동시에 공공서비스가 워낙 다양해서 효과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듯함.

○ 행정기반 확보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지자체의 노력 수행 항목의 지표 내용이 다소 모호함.
- 지자체의 홍보와 지자체의 언론 홍보 노력 지표의 중복 검토 필요
- 질적 제고를 위한 ‘우수사례’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 고려
- “문화도시의 행정적 위상은 어떻게 보장 하고 있는가? 행정 체계 안에 문화도시 센터장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회의구조가 있는가?”의 문항을 추가할 필요
- “지자체 사업 담당자는 지방 의회에 사업의 의의를 알리고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는가?” 항목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의 공청회, 예산 설명 등 공식적인 부분 외

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임. 의회 내에서 문화도시에 관한 논의나 질의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음.

○ 사업 수행, 모니터링 및 환류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시민과 전문가의 모니터링이 공개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반응을 받고 대응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도 중요한 지표로 입력되었으면 어떨까 함.
- 모니터링 및 환류 영역에 있어, 문화도시별로 보다 자율적인 성과목표를 잡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과 환류방식을 개발하는 자율적 성과관리 부분에 대해 보다 강조하는 방안도 있음.
- “사업 수행과정에 걸쳐서 그리고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였는가?” 항목은 참여하고 있는 행정이나 지원센터의 일원이 범법행위를 했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 한, 윤리적 규범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사업 수행과 그에 대한 모니터링 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수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인지 모니터링의 객관성과 투명성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듯함.

○ 문화예술생태계 강화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지원이 마련되어 있는가’라는 지표 내용은 ‘지원 정책 혹은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 있는가’로 수정해야 함.
- 예술인 수는 기준이 없으면 임의적인 숫자로서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숫자 혹은 예술인활동이 증명된 예술인 숫자(예술인복지재단) 혹은 예총과 민예총 및 지자체에 법인 등록된 문화 예술 활동 기관의 회원 숫자 등으로 기준을 제시해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그래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예술인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전국 2000-3000명 정도의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음. 물론 각 지역의 임의 기준으로 예술인 수를 기술할 수는 있음.
- 지역거주 예술인 수를 파악하는 항목은 이후 문화예술 활동 계획을 위해 중요한 집계자료로 비중을 높이길 희망함.
- 전문예술인과 일반인 간의 자유로운 소통이 더 의미가 있기에 공식적인 ‘소통 횟수’ 평가는 왜곡된 결과를 장려할 수도 있음.
- 지역예술의 활성화 중, ‘지역을 소재로 한 예술 활동’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예술 활동’이 더 적절한 표현으로 보임.
- ‘생활문화 활동의 질적 향상’ 지표에 있어, 생활문화 활동을 통한 전문예술 일거리가 창출된 것으로 질적 향상을 국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지표 내용이 수정되거나 세부지표명이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임.
- 지역문화전문인력을 누구로 특정하는 것인지 모호함.
- 예술인 및 지역문화인력(기획, 창작, 제작, 매개, 유통, 교육 주체)의 정주여건 개선, 활동여건 개선, 활동기회 제공(공연, 전시, 축제, 행사), 가치 창출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 구성 필요
-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문화향유, 문화 참여(생활 문화 참여)의 공간, 시설·장비·

활동의 장(동호회, 커뮤니티),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축제, 공연, 전시 등)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 구성 필요

-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 간에 뚜렷한 경계가 없는 경우가 많음. 전문예술과 생활예술간의 조화보다는 ‘문화예술분야 주체 간 교류와 소통, 협력, 공동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문화활동 참여 증대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일상 축제는 지역 축제를 이르는 것인지, 생활문화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이나 주민 문화 활동 개념인지, 각 개념에 대한 명확한 설명 필요
-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은 통합해도 될 것 같음(사회적 약자에 경제적 취약계층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문화 공간 프로그램의 다양성 → ‘문화 공간 프로그램의 질적 다양성’ 또는 ‘문화 공간 프로그램의 질적 우수성 및 다양성’ 이 더 일관되고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함.
- 문화도시의 복합 문화 공간 규정에 기존 카페나 서점 공방 운영자 등 관련 문화공간들의 기준과 이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설과 참여자 수 등도 포함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임.
- 실제 사업(프로그램)에 있어 생활문화 참여와 문화예술교육을 구분하기 힘든 지점이 있어, 세부지표를 구분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함에 반해 실제 성과관리에 있어 지표의 구분이 모호할 수 있음.
- 지역별 특성과 대상의 수요를 고려하여 절절히 배분되었는지가 중요함.
- 문화 예술 활동 참여횟수가 증가하였는지는 정성적이기 보다는 정량적인 지표가 아닐까 싶음. 횟수는 다른 항목들이 있으니까 제외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 문화시설과 복합 문화 공간 그리고 기존 문화 공간 사이의 구분은 조금 모호한 경우도 많을 듯함.
- 문화 공간 접근성은 서베이 보다는 도시재생정보체계에 생활SOC 접근성 항목의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해도 좋을 듯함.

○ 지역문화 발전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전통문화와 지역문화가 세부 지표 명으로 명기되고 있는데, ‘전통·역사·고유문화’로 보완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람. 현대에 만들어진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의 경우에도 ‘고유한 지역문화’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함. 전통문화 개념을 유산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할 때 적어도 등록문화재가 50년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형성되고 있는 공동체 문화 등이 전통문화의 범위에서는 누락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 전통문화와 지역문화를 유사하고 대등한 개념으로 제시하는 것인지, ‘지역의 전통문화’인지 보다 명확한 표현이 필요할 것 같음(지역문화가 반드시 전통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함).
- 지역문화 발전이 전통문화 측면에 너무 강조된 지표들로 보임. 전통문화 이외에 지역의 특화된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부분에 대한 지표가 추가되는 것을 제안함.

- ‘지자체 및 다른 사업주체와의 연계는 어떠한가?’는 미래문화유산 측정 기준으로는 조금 모호함.

○ 지속가능한 성장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예술인 정주여건 개선은 앞의 문화예술생태계의 지표에서 이미 확인하였기 때문에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데, 실제로 지역민의 정주여건과 관련해서는 문화도시 사업 보다는 도시재생 사업이 좀 더 적절하고, 지역민의 ‘정주여건’을 묻는 것보다는 지역민의 ‘삶의 질 증가 여건’을 묻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 청년 창업과 문화예술분야 창업을 하나의 지표에서 묻고 있는데 서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지표를 두 개로 나누어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가 어떻게 협력을 하는지를 묻는 지표는 질문 자체가 광범위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지자체의 협력 수준을 묻는다거나 지역사회의 기업의 협력 수준을 묻는다거나 협력의 주체를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
- ‘각 도시가 세운 비전 및 브랜드의 성격’ → ‘도시 문화정체성’으로 변경 고려 필요
- ‘콘텐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 필요
- 관광도시 기 추진 도시의 경우, 여기서의 문화관광 관련 지표가 관광도시 평가지표와 충돌, 중복되는 여지가 없을지, 혹은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함.
- 지속가능한 성장 분야의 항목에 ‘콘텐츠 산업화’ 관련 세부지표가 다소 비중이 높다고 판단됨. 자칫 지속가능한 성장이 콘텐츠기획에 기반 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위험이 있어 보임.
- 3년 이상 장기간 유지하는 문화도시 사업의 마지막에 평가 가능하므로 2년 정도로 줄여도 될 듯함.
- ‘관광으로부터 수혜가 도시와 시민 전체에 확산되었는가?’는 검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 사업의 취지와 약간 맞지 않은 듯함.
- ‘지역방문 인구’ 자체 보다는 예비문화도시 사업실행 연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방문인구의 증가’를 집계하는 것이 효과적임.
- ‘문화와 관광의 선순환 구조’는 매우 좋은 지표이지만, 기준이 될 만한 데이터가 마땅하지 않을 듯함.

○ 포용적 지역사회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지표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조금 통합하여 간략화 할 부분을 재고해 보면 좋겠음.
-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문화 활동 기획의 세부유형을 제시하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묶어서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도시 내 불균형 발전 현상이 완화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나 지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듯함.

○ 도시 브랜딩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시민들이 도시브랜딩 상징 콘텐츠를 인지하고 있는지? 이 상징콘텐츠가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외부 방문객이 구매할 것으로 기대하는지?” 등에 대한 지표가

있으면 좋겠음.

- 문화도시 현장실사를 통해서 확인한 ‘도시브랜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평가방식에서 ‘도시브랜드’ 보다는 ‘도시의 문화정체성’ 또는 ‘도시 정체성’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면 좋겠음.
- ‘도시브랜드 상징 개발 콘텐츠 수’는 중요한 지표이나 정량으로 하기에는 콘텐츠의 질과 범주가 다양하여, 정성으로 바꾸고 콘텐츠 수에서 콘텐츠 수와 질로 바꾸면 어떨까함. 한 두 개의 콘텐츠라도 잘 만든 것이 훨씬 효과적일 듯함.
- 도시브랜드 분야 역시 상징 콘텐츠 개발에 국한된 느낌을 줄 수 있어 보임. 문화도시로서의 대외/대내 이미지 인식(변화) 정도, 홍보효과 등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첨가되는 것을 제안함.
- 정량 평가할 경우 형식적 브랜드 상징물/콘텐츠 개발 및 양적 성과에 집중하는 역효과도 예상할 수 있음.
- ‘도시브랜드 상징 개발 콘텐츠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며, 매출보다는 확산, 보급, 활용 등이 자료를 확보하기 쉬울 듯함.

○ 문화공간 강화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시민들에게는 도시재생 및 문화재생을 통해 창출된 공간인지, 기존의 문화공간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그 구별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 문화 공간 이용 시민 비율, 인지도, 방문 의향 등을 서베이 하는 항목은 중요하고 긴요한 내용이므로 비중 있게 배정되길 바람.
- 문화 공간 강화에 접근성 개선 여부도 성과지표로 포함하는 방안 검토, 국토부에서 발표한 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최저기준에 각 시설별 접근성 수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시민의 문화 관련 시설 향유도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성과평가로 산정 가능할 것으로 예상(※ 다만, 격자분석을 통해 시설대비 접근성 분석이 가능한 용역주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으므로 문화도시에서 성과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 필요)
- 문화공간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개수보다 중요한 것은 공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변성과 탄력성,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포용성이 중요함.
- 공간의 다양한 활용과 탄력성은 과도한 시설 조성을 방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문화공간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들도 필요한 지표임. 대중교통 노선변화, 자전거접근성 등, 그리고 공공표지판을 활용한 안내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함.
- 문화공간의 이용이나 프로그램 등은 다른 항목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프로그램이나 이용은 다른 분야에서만 다루고, 문화공간의 확충, 기획/운영 거버넌스 구축 등 공간에만 집중하는 것은 어떨까 싶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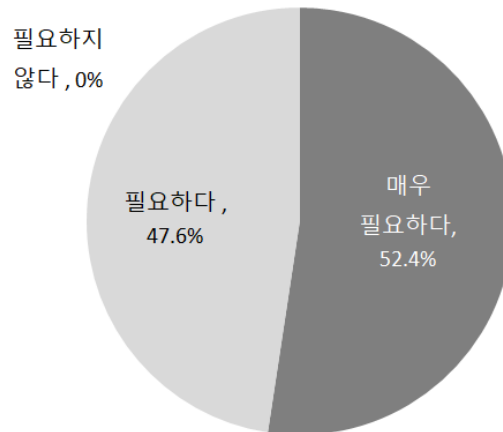
○ 도시공간관리 기여 분야에 대한 주요 의견

- ‘문화 활동을 통해 장소성이 강화된 도시공간 수’를 정량적으로 집계하는 기준이 모호함.
-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도시재생과 도시정책과의 협조로 이루어져야 할 텐데 문화도시 사업에서 이 항목을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장소성이 강화된 도시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소 모호함. 정량보다 정성평가가 적합해 보임.
- 도시공간이라는 의미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도시전체의 공간적 개념을 의미하는 용어로 정량지표로 사용할 때는 도시공간이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 쇠퇴공간이라는 개념도 모호, 공간이 쇠퇴하였다는 점은 사용하지 않고 유희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인지, 노후해서 쇠퇴한 것인지 구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음. 방치되거나 유희공간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혹은 노후한 건물을 문화도시사업으로 리모델링해서 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만들었는지, 혹은 시민들과 함께 팝업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DIY등의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했는지 등을 성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제시
- 젠트리피케이션을 4단계로 구분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문화도시사업을 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진단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대료 상승효과 등에 대한 주기적 분석이 필요), 따라서 4단계로 구분하기 보다는 대안마련, 지속운영, 시민공간으로 3단계로 조정할 필요. 젠트리피케이션의 효과를 몇 년으로 보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임.
- 젠트리피케이션은 문화공간의 성공과 동시에 일어남으로 일괄적용보다는 성공한 지자체에게 국한되어서 필요한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
- 도시공간의 창조성 강화 방안 관련 항목이 추가되면 어떨지 제안함.
- 오버투어리즘 완화, 생태적 고려(친환경, 기후위기 고려) 등에 대한 추가를 고려할 필요
- ‘장소성 강화된 도시 공간 개수’는 어떤 기준으로 카운트 할 수 있는지 모호해 보임.
- ‘문화 활동을 통하여 공간쇠퇴 현상이 완화되었는가?’ 도시 재생 분야에서 공간의 쇠퇴는 건물의 노후도, 인구의 감소, 사업체의 감소 등 3가지 지표를 현재 사용하고 있으나, 쇠퇴하는 지역에서 이 지표는 상당히 구조적이어서 좀처럼 개선되지 않음.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지 쉽지 않음.
- 젠트리피케이션 완화방안은 현재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대부분 사업의 일부로 채택하고 있음. 물론 공공상가, 주민협정 등 대개 천편일률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유리하거나,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면 거의 대부분 대동소이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

○ 공통 핵심지표의 필요성 관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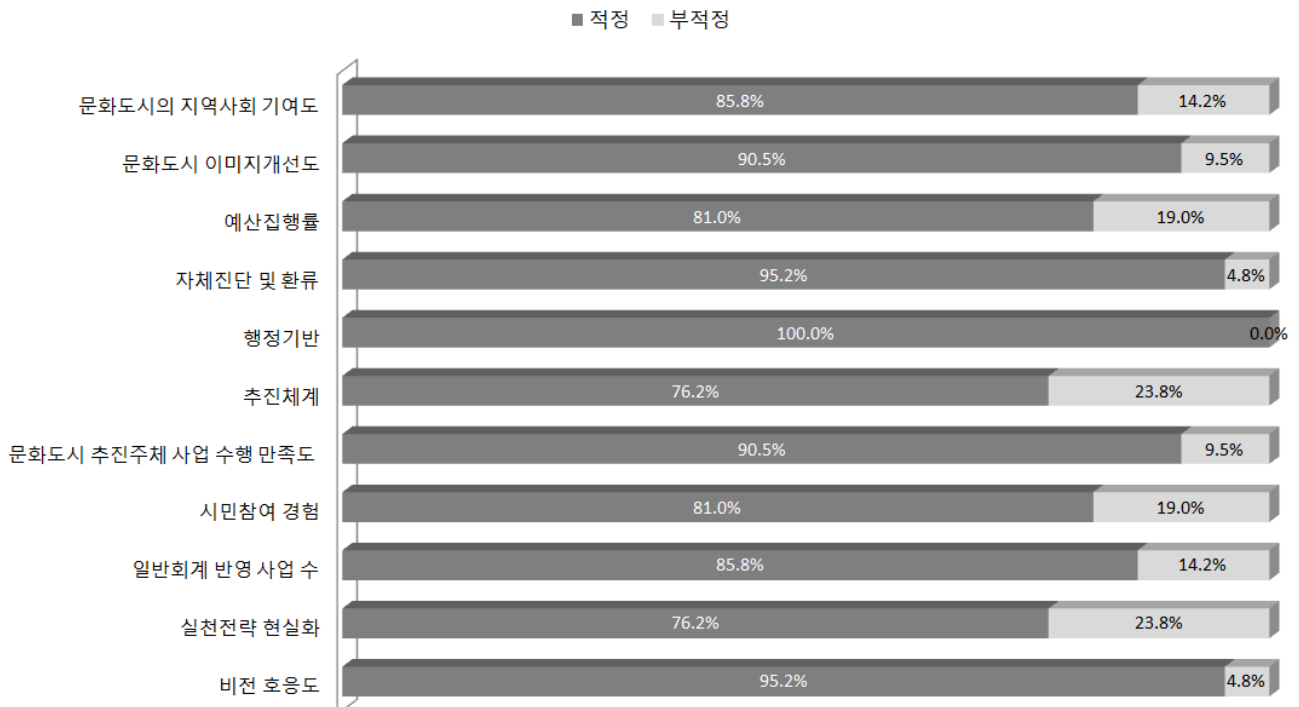
- 공통 핵심지표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조사 전체 응답자 21인(심의위원 11인, 심의위원을 제외한 외부전문가+지자체+추진추체 10인) 중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2.4%로 나타났으며, ‘필요하다’는 응답은 47.6%로 나타났음. ‘필요하지 않다’는 0%로 모든 응답자가 공통 핵심지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음.

<그림 20> 공통 핵심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 조사에서 제시된 공통 핵심지표 중 ‘행정기반’ 지표는 전체 응답인원 모두 ‘적절’하다고 답하였으며, 나머지 각각의 공통 핵심지표에 대한 적정 응답 비율은 다음과 같음.
- 비전 호응도 95.2%, 실천전략 현실화 76.2%, 일반회계 반영 사업 수 85.8%, 시민참여 경험 81.0%, 문화도시 추진주체 사업 수행 만족도 90.5%, 추진체계 76.2%, 행정기반 100%, 자체진단 및 환류 95.2%, 예산집행률 81.0%, 문화도시 이미지개선도 90.5%, 문화도시의 지역사회 기여도 85.8%

<그림 21> 제시된 공통 핵심지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 공통 핵심지표 중 심의위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각각의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문화도시 추진주체 사업 수행 만족도: 실질적 의미가 없어 보임.
- 추진체계: 자율지표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함.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예산집행률: 불필요한 예산집행 가능성

○ 공통 핵심지표 추가 관련 의견

- 성과 중 문화진흥의 지역문화발전 코드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지표로 충분히 가늠될 수 있음.
- 가장 중요한 지표는 결국 주민의 공감도, 이해도, 만족도 같은 지표가 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동일한 측정방식과 측정주체에 의해 실행하여야 함.
- 모니터링의 주체를 지자체 혹은 지원센터가 담당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문화부나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평가할 지표가 필요함.

○ 서면조사 후 개최된 문화심의위원회(2020년 12월 10일)에서 서면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심의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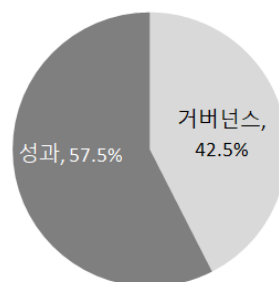
(2) 문화도시심의위원(성과평가위원) 대상 AHP 조사

○ 문화도시심의위원은 성과평가의 평가위원으로서, 의견조사 기간 동안 전체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각 지표별 AHP 조사를 함께 수행하였음.

○ AHP 조사 설문지 구성

- 첫 번째 문항은 문화도시 성과지표의 2개 영역의 가중치 적정 비율에 대한 설문으로, 조사 응답 평균 ‘거버넌스 42.5%, 성과 57.5%’의 비율로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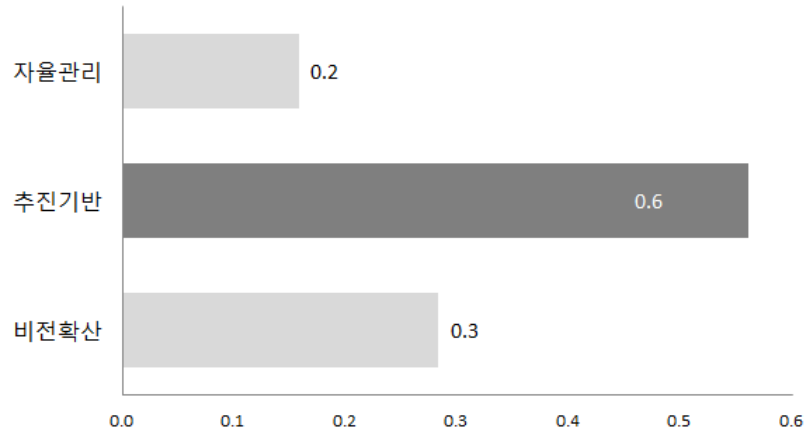
<그림 22> 거버넌스, 성과 영역에 대한 가중치 적정 비율 조사 결과



- 두 번째 문항은 거버넌스 영역의 중분류 항목 중 어느 항목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으로, 응답결과 추진기반(0.560133971) > 비전확산(0.2826481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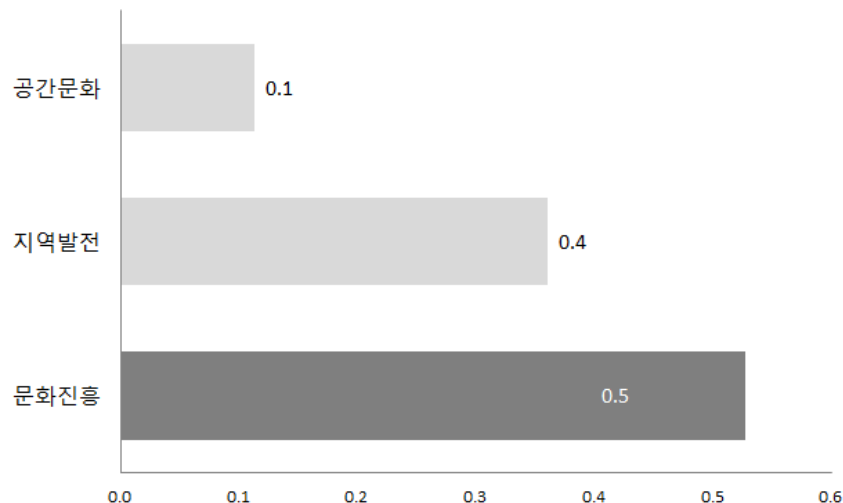
자율관리(0.157217871)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3> 거버넌스 영역 중분류 항목 AHP 조사 결과



– 세 번째 문항은 성과 영역의 중분류 항목 중 어느 항목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으로, 응답결과 문화진흥(0.527080128) > 지역발전(0.360468327) > 공간문화(0.112451545)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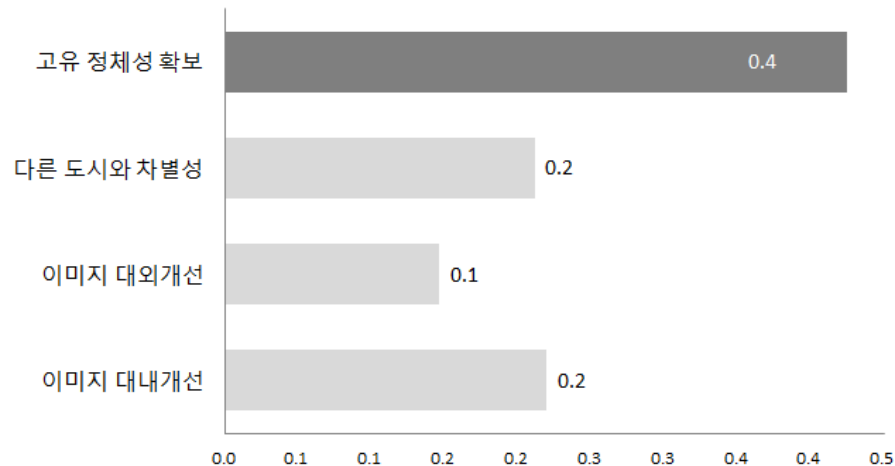
<그림 24> 성과 영역 중분류 항목 AHP 조사 결과



– 네 번째 문항은 문화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도시 이미지 개선도’를 측정 조사를 고려하여 ‘문화도시 이미지 개선도’ 관련 세부항목에 대한 가중치 의견을 구한 설문으로, 응답 결과 문화도시로서 고유 정체성 확보(0.424357) > 문화도시로서 이미지 대내개선(0.219225917) > 문화도시로서 다른 도시와 차별성(0.210954802) > 문화도시로서 이미지 대외개선(0.145462281) 순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화도시로서 이미지 대내 개선: 문화도시 시민에게 문화도시로서 이미지가 개선된 정도
- 문화도시로서 이미지 대외 개선: 문화도시 외부의 국민에게 문화도시로서 이미지가 개선된 정도

<그림 25> '문화도시 이미지 개선도' 관련 세부항목 AHP 조사 결과



(3)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통한 연구의 방향성 및 설계안 검증

- 연구 과정에서 설계된 계획 및 체계에 대해, 연구의 진행 단계별로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검증 절차를 밟았음.

[표 48]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검증

일정	개최 성격	참석자	장소
20.8월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워크숍	문체부, 지문원, 문화도시심의위원 연구진 중 문화도시심의위원	세종시
20.8월 (4박 5일)	찾아가는 현장방문 공유 워크숍	문체부, 지문원, 문화도시심의위원 연구진 중 문화도시심의위원, 문화도시별 지자체/추진주체	문화도시별 현장 방문
20.8월	지역문화진흥원 합동 워크숍	문체부, 지문원, 문화도시심의위원 연구진 중 문화도시심의위원, 문화도시 컨설턴트	세종시
20.09.24.	문화도시심의위원회 1차 보고	문체부, 지문원, 문화도시심의위원 연구진 중 문화도시심의위원	세종시
20.12.10.	문화도시심의위원회 2차 보고	문체부, 문화도시심의위원, 연구진	서울역 인근 회의실
21.02.04.	문화도시심의위원회 3차 보고	문체부, 문화도시심의위원, 연구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회의실

- 1차 보고 안건 및 논의 사항
 - 1차 보고는 성과관리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성과관리체계의 보완 방향을 안건으로 논의 되었음.

- 1차 보고에 앞서 진행된 3차례의 워크숍 과정에서 제시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도시 사업의 수행 현황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성과관리 체계가 보완되고 있는 현황을 공유하였음.
- 1차 보고를 통해 문화도시 대상 개별 FGI진행 경과, 성과관리체계의 보완 방향, 운영안, 성과관리 계획 및 일정 등을 공유하여 연구과정의 계획 및 방향성을 검토 받는 한편, 보완사항과 수정방향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의위원들의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음.

○ 2차 보고 안건 및 논의 사항

- 2차 보고는 문화도시 성과지표 점검 및 평가위원 배정, 평가방식 점검 등을 안건으로 하여 논의되었음.
- 문화도시 성과지표의 현재안을 공유하고, 보완 및 점검을 위해 심의위원, 전문가, 지자체, 추진주체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견조사 현황 및 공통핵심지표 도입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였음.
- 개별 문화도시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 방안을 공유하여 심의위원들의 보완 의견을 수렴하였음.
- 심의위원의 평가 참여 방식 및 평가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한 후, 각 영역별 평가 위원을 배정하였음.

○ 3차 보고 안건 및 논의 사항

- 3차 보고는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을 점검하고 확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심의위원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위 자리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음.
- 심의위 의결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고, 추가 편집 및 후속 작업(가이드라인의 예시 문항 구체화, 관련 사례 제시 등)을 거쳐 21.02.17.문체부 담당 부서를 통해 가이드라인 최종본이 각 문화도시에 전달되었음.

2. 문화도시 추진 현황 분석

1) 문화도시 1년차 사업 현황

(1)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과 진화

- 첫째, 각 문화도시의 고유한 특징을 바탕으로 발굴된 다양한 사업 시행과 함께 추진 주체 역량 강화 계기 확보
 - 지역 특성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발굴된 다양한 사업이 조성계획에 따라 수행되기 시작함.
 -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따른 전문인력 영입으로 추진주체의 사업수행역량 강화 계기 마련됨.
- 둘째,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 내 관심과 참여 분위기 고조
 - 문화도시 준비과정에서부터 참여·협력해 온 시민, 예술가, 기획자의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학습과 이해도 증진으로 관심과 참여 제고
 - 지역현실에 대한 문제의식도 강해지면서 개선 의지도 강화되는 상황
- 셋째, 사업 모델의 발전적 진화
 - 예비도시 사업에서 사업 모델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실행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이나 현실성 검증은 바탕으로 사업 모델 보완이 진행됨.
 - 문화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 재해석 과정이 지속되면서 사업모델의 발전적 진화가 수행되는 상황임.
 - 도시 내 타부서, 타분야와의 협력 가능성이 발굴되고 사업화되는 상황

(2) 1년차 사업 수행의 어려움

- 첫째, 광범위하고 난이도 높은 사업 수행에 따른 어려움
 - 여타 지역문화사업에 비해 난이도 높은 문화도시 사업 수행에 따른 어려움이 크고, 추진 주체의 적은 인력으로 방대한 사업 관리 어려움 발생
 - 회계 지침에 맞는 예산집행과 실제 사업 계획 의도 사이의 괴리로 사업운영의 어려움이 나 불확실성 처리 어려움
 - 시민 참여 확대 과정에서 직면하는 일부 불합리한 시민 요구 처리 어려움
- 둘째, 예비사업에서부터 본 사업 이행 과정에서 사업수행 주체의 역량 축적 여건 취약

- 예비사업에서 축적된 사업역량이 본 사업기간에 연결되지 않는 상황 다수 발생
- 사업수행 주체의 근로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안정성, 지속성, 확장성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3) 코로나 19 감염 확산의 영향

- 첫째,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른 방역 대책으로 문화도시 1년차 사업 수행에 상당한 장애 초래
 -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한 소통과 공유에 바탕을 둔 문화도시 사업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으로 문화도시 사업 수행에 큰 지장 초래
 - 특히, 문화도시 사업 시작 단계에 코로나 19 감염 상황 발생하고 초유의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로 사업 실행 계획 조정과 실제 사업 수행에 막대한 어려움 발생
- 둘째, 코로나 19 감염 확산으로 문화도시 참여 확대에 어려움 발생
 - 문화도시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 교육 프로그램 취소 혹은 연기 발생
 - 수년간 문화도시 준비 과정에서 형성된 핵심 그룹 참여는 대체로 유지되는 반면, 문화도시의 인지도를 시민들 사이에 높이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봉쇄됨으로써 문화도시의 기반 확장에 상당한 장애 초래

2) 문화도시 사업의 성격과 성과관리를 통한 해결 과제

(1) 문화도시 사업의 과정 중심적 성격과 성과 제시 미흡 가능성

- 첫째, 도시 전체 대상 사업으로서 문화도시가 달성해야 할 목표와 가치에 대한 설명논리가 미흡
 - 문화도시 사업은 이전 유사 사업들의 단기적, 가시적 결과 중심 편향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과정 중심적 성격을 표방해 왔음.
 - 과정 중시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성과를 명확히 제시하고 가치 부여를 하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함.
 - 문화도시 사업들이 도시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다각적으로 존재하지만, 사업의 의의에 대한 설명 논리 개발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개별 사업의 산출물 자체만을 성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비전과 설명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경우들이 많음.
 - 혹은 일부 계량화된 파급효과 산출만을 성과 제시로 생각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만 인식하는 왜곡된 이해가 존재함.
 - 현실적으로 문화도시 대조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도시 사업의 엄밀한 계량적

- 파급효과 산출은 한계가 있음.
- 전체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 도출의 필요성 인식 결여에도 원인이 있지만, 지역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사업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여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성숙하지 못한 것에도 원인이 있음.
 - 결과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의 정당성, 사회적 가치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 초래
- 둘째, 문화도시 목표 실현을 위한 현실적 전략이 미흡함.
- 1차로 지정된 문화도시들은 예비문화도시 사업 이전 문화특화지역 조성 등 유사 관련 사업의 경험을 수년간 축적하면서 문화도시 비전 달성의 현실적 노하우를 축적하고 네트워크를 지역 내 구축해 왔으며, 이는 1차 지정 문화도시의 큰 강점임
 - 하지만,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과 같이 사업의 공간적, 내용적 범위가 제한된 사업으로부터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도시 사업으로 규모와 범위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사업의 가짓수와 종류는 늘어났으나 다양한 사업들 간 연계 구조가 불명확하고 나열식 제시에 머문 경우
 - 도시환경과 문화자원 조사가 수행되었으나 현황조사 분석 내용이 비전 도출이나 기대 성과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기 힘든 경우들이 많음.
 - 또한,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존재하는 장애요인에 대한 진단이나 해결 방법에 대한 논의 보완이 필요함.
 -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집행만을 강조하는 경우, 조성계획이 치밀하게 수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환경변화 대응과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전략적 대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귀결될 위험이 큰 상황임.
- 종합적으로 볼 때, 문화도시 사업이 개별 지구 단위를 넘어 도시 전체 사업을 표방하면서 사업 예산과 사업 추진기간을 확장시켜 왔으나, 도시발전 차원에서 뚜렷한 기여를 남기지 못한 자족적 사업으로 귀결될 위험이 존재함.
- 문화도시 사업이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문화도시의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 작성 유도 필요

(2) 상향식 조성계획 수립 이후 공급자 중심 추진 가능성

-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상향식으로 수립된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적절한 방법이나, 조성계획 수립 이후 실행과정에서도 진화적 관점에 따른 발전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 실제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구체성, 현실화 가능성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 대부분 시민의 적극 호응을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사업성과의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임.

- 다수의 사업들이 실제 효과가 검증되었기보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수준으로 파일럿 성격의 사업들이 많아서 성패가 갈릴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실제 사업 수행에서 나타난 성과와 지역 반응을 바탕으로 선택적 추진과 재구성 작업이 필요한 상황임.
- 시민 반응과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 운영이 진화해 나가지 않고 조성 계획 실행만을 강조할 경우, 개별사업들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공급자 중심의 추진이 이루어질 위험이 존재함.
- 사업의 진화적 발전과 조성계획 변경 필요성의 관계는 개별 사례마다 상이할 것으로 보여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움.
 - 조성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명시하되, 지역의 모럴 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가 엄중하게 운영되는 방안이 필요함.

(3) 문화민주주의의 의의와 폐쇄성의 가능성

- 문화민주주의와 시민 참여는 문화도시 사업의 특성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이며 실제 문화도시의 아젠다 발굴을 위한 토론회 개최는 그 동안 지역문화정책의 방법론에 비해서 큰 성과로 평가될 수 있음.
- 문화민주주의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 수준의 제고와 전체 시민의지지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야 함.
- 시민들이 문화도시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주체라기보다는 공공의 부름에 호응하는 수준의 소극적 주체에 머물러 있어 참여수준의 제고 필요함.
- 아른스테인(Arnstein)의 시민 참여 사다리 모형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시민 참여의 수준은 의견청취나 아젠다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형식적 참여(tokenism)에 머물러서 파트너쉽과 같은 주민권력의 실질적 참여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임.
- 시민 일부만의 참여가 아니라 시민 다수가 인식하고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통해서 강조되어야 함.
- 시민 다수의 인식과 호응이야말로 문화도시 지속성의 실제 핵심 요건임으로 성과관리 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고관여자 참여 중심 사업 구조로 폐쇄성이 발생할 가능성 높음.
 - 전체 시민 대상의 시민조사 필요성 인식 공유와 객관적인 시민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 조성 및 수행 주체 논의 필요

(4)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경쟁과 지정 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무관심 가능성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예비도시, 본 도시 지정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사업추진주체 역량 축적이 이루어졌으나 지정 이후에는 문화도시 추진 역량이 선정 이후 유지되지 못하는 다수 도시 상황 발생
 - 추진주체 인력의 취약한 계약구조에 따라 준비과정기간 축적된 지역 내 사업경험과 노하우 역량의 손실 발생
 - 추진주체가 안정적으로 추진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미흡한 상황임.
-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반면, 지정 이후 문화도시의 지속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 우려됨.
 - 문화도시에 대한 국비지원 의의가 문화도시 지원기간 이후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를 포괄하는 장기 전망 적용 필요함.
- 성과관리를 통해서 문화도시 지속성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확보하는 방안 추진이 현실적으로 중요함.
 - 개최연도 사업 수행에 초점을 맞추어 1회 상급 지급하는 유럽문화수도 사업과 달리 5년 동안 국비 지원되는 우리나라 문화도시 사업의 특성 이해가 필요함.
 - 추진주체가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내용에 포함하여 지자체의 문화도시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 또한, 문화도시 사업이 지원기간 이후에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해당 도시의 사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성 확보 방안을 성과관리에 포괄하는 것이 필요함.

(5) 문화도시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객관적 평가 어려움 가능성

- 문화도시 사업 초기부터 문화도시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해 왔음.
 - 이러한 주장은 문화도시 추진 과정에서 우수 사례의 단순 모방이 빈번했던 과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당성을 가짐.
- 실제 문화도시 지정과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문화도시의 정체성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음.
 - 일부 문화도시나 전문가 사이에서 문화도시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 제시가 요구되고 있으나, 문화도시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상황에서 문화도시 정체성을 특정화하기 어려운 상황임.

- 또한, 특성화에 대한 이해에서도 문화도시 사업 전체를 통한 특성화로 이해하는 시각과 문화도시 일부 사업만을 특성화로 보는 경향이 혼재하고 있음.
- 하지만, 막대한 국비 예산 관리와 문화도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문화도시의 차등 예산, 지정취소 등의 행정행위가 불가피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과관리의 객관성이 요구되는 상황임.
- 문화도시의 개별성을 존중하면서도 성과관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성과관리에서 확보되어야 함
 - 시민, 전문가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근거의 축적과 투명한 공유
 - 해당 도시 시민의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지지 및 참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성을 갖춘 시민조사 수행
 - 환경변화 대응과 진화적 사업 발전 및 문화도시 지속성 확보 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평가위원의 전문성

3. 문화도시 성과관리 추진 방향

1) 문화도시 성과관리 균형의 필요성

- 문화도시 사업의 상당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위험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균형 잡힌 인식이 필요함.
 - 잠재적 위험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가지되, 위험에 대한 과장이 문화도시 사업의 의의나 성과를 폄훼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함.
- 개별성 vs. 형평성
 - 개별 문화도시의 고유성과 차별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획일적 기준 적용을 지양하되, 성과 관리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성과관리 지표체계 및 운영방안 도출 필요
 - 공통지표를 최소화하고 고유지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의 정보 제공을 통해 고유지표의 자율 작성을 지원함.
- 자율 관리 vs. 객관적 타당성
 - 문화도시의 자율적 성과관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 평가 설계를 하고 자율적 성과관리 결과가 객관적인 평가결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
 - 개별 문화도시가 자율적으로 성과관리를 운영하고, 평가위원들은 개별 문화도시의 성과 관리 체계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을 판단하며 계획 대비 집행 실행 여부를 평가하도록 역할 조정함.
 - 계획 대비 실행에 대한 평가는 정량화된 성과 달성 확인을 넘어서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문화도시의 지속성 요건 확보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수행함.
- 부담 최소화 vs. 근거 확보
 - 성과관리를 위한 행정 부담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노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성과관리를 위한 자료 생산이 아니라 개별 문화도시 내 성과공유를 위한 근거 생산 방향으로 성과관리 추진
 - 개별 문화도시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성과관리를 위한 시민, 전문가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유하는 형태로 성과관리 근거를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문화도시 성과관리 방향성

- 개별 사업 산출(output)에 못지않게 성과(outcome)를 중심으로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impact)을 파악

- 성과는 계량적 파급효과 산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도시 발전에 문화도시 사업이 기여한 바를 설명하는 관점에서 제시함으로써 문화도시 사업의 사회적 의의를 설명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 개별 문화도시의 주체적 성과관리 추진과 전체 성과관리의 역할 구분

- 개별 문화도시 - 자체 성과관리 역량 향상
- 전체 성과관리 - 성과관리 지원 및 성과 객관화

○ 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초점

- 문화도시의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에 초점
- 추진주체 역량 강화, 시민 참여 및 지지 확대, 문화도시 사업의 지자체 일반회계 사업 포함 가능성 등을 성과관리에 포괄함

○ 정량 기준을 포함한 정성 평가

- 사업 자료 및 조사 통계 등 정량적, 객관적 근거 생산 확대하되, 궁극적으로는 맥락을 고려한 정성 평가로 정량 평가 의존의 왜곡 가능성 방지함.
- 문화도시 사업의 계량적 파급효과 산출은 개별 문화도시 차원에 수행하도록 요구하지 않음.

3) 문화도시 성과관리의 영역과 내용

○ 성과관리 영역은 ‘거버넌스’와 ‘성과’로 이원화하여 구성

- ‘거버넌스’는 투입(input)과 과정(process) 및 활동(activity)을 포괄하며, ‘성과’는 산출(output) 및 성과(outcome)를 포괄함

○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소통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거버넌스의 속성을 반영하여 중분류 구분

- 문화도시가 추구하는 가치와 변화상을 공유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비전과 전략’
- 문화도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추진기반’
- 문화도시가 지자체와 시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관리’

○ 소통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학술적 논의로는 협력적 거버넌스 논의(Ansell & Gash, 2008)와 진화적 거버넌스 논의(Van Assche et al., 2013; Beunen et al., 2016) 참조

- 문화도시가 추구하는 가치와 변화상을 공유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비전과 전략’은 문화도시의 비전을 시민 전체와 공유하는 것이 가지는 가치를 강조하고, 문화도시 사업의 실제 진화적 발전 가능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임.
 - 문화도시가 추구하는 목표가 외적, 가시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도시의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문화도시 조성계획이 연차적 목표를 담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문화도시 사업의 성격과 실제 진행 과정을 볼 때 진화적 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과 실행에 대한 강조 필요
 - 코로나 19 감염 확산과 같이 문화도시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요인에 대한 대응을 성과관리에 포괄하여 추진주체의 합리적 계획 수립 및 적응노력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
- 문화도시가 지자체와 시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관리’도 진화적으로 거버넌스가 발전하기 위한 중요한 구성 요소로 판단하여 거버넌스 영역에 포괄함.
- 성과 영역에서는 개별 문화도시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중분류 구분
 - 개별 문화도시가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표를 자율 구성하는 ‘고유성과’와 모든 문화도시에서 기대되는 ‘공통성과’를 구분하되, ‘공통성과’의 비중은 가능한 낮춤.
 - 실제적으로는 각 도시별 자율 성과지표를 구성하도록 하되, 고유성과를 ‘문화예술진흥’과 ‘지역발전’으로 구분함으로써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도시발전 기여를 부각시키도록 제시함.

4. 성과지표 설계 및 평가기준 마련

1) 성과관리 기본방향 및 지표체계 마련

○ 연구 진행과정에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 시행을 위해 진행한 과정은 다음과 같음.

[표 49]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 적용 과정

단계	진행 사항	추진 내용
1. 문화도시 추진 현황 분석	여섯 가지 의제 추출 1)단위 사업 묶음의 투입 중심 계획 2)현실적인 실천 전략 불명확 3)진화적 관점 미흡 4)문화민주주의 5)추진주체의 불안정성 6)특성화와 도시 전체 비전 사이의 긴장	문화도시 현장 점검 및 FGI, 문화도시 이해관계자와의 수시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파악된 문화도시 추진 현황에 대해 기술
2.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진행과정에서 수회의 자문 (문화도시심의위원, 외부전문가, 대학교수, 사업의 이해관계자 등)과 FGI(사업의 이해관계자, 일반시민 등), 현장점검, 사례분석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 성과관리 운영방안 및 성과지표체계는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으로 별도 제작되었음.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수록 사항 1) 성과관리 운영 방안 2) 성과지표체계 3) 분야별 지표내용 4) 전체 지표 일람
3. 문화도시 성과평가 시행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 영역을 3개 유형으로 담당하는 것을 확정하여 평가 진행 - 거버넌스 영역 평가자 - 고유성과 영역 평가자 - 전 영역(거버넌스+고유성과)	평가는 1차 서면평가 후 도출된 질의사항에 대해 각 문화도시가 답변자료를 제출한 후, 2차 온라인 미팅을 통해 질의응답 및 논의 시간을 갖고 최종적으로 2차 평가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 연구 과정에서 성과관리의 기본방향 및 지표체계 마련을 위한 다수의 회의를 진행
 - 공식적인 회의 진행 이외에도 ZOOM 미팅, SNS 채널, E-mail, 유선 연락을 통한 수시 커뮤니케이션으로 연구 진행상황을 공유하여, 적합성 있는 결과 마련

[표 50] 연구 진행과정에서의 연구진 회의 주요 일정

일자	주요 안건
20.05.13.	- 문화도시 사업 성격 이해(가이드라인 분석) - 본 연구의 목적 및 방향성 공유 - 연구 수행 세부계획 공유 및 역할 분담, 일정 확인 - 제1차 문화도시 계획 요약 분석 내용 공유, 성과지표 사례 공유
20.05.23.	- 지표 설정 및 배점 방식 검토 - 제1차 문화도시 사업관리카드 공유
20.05.29.	- 연구 착수보고회
20.06.11.	- 7개 도시 현장 검토 회의 준비 - 연구 예산 및 역할 분담 관련 논의 - 연구 추진 실무 상황 공유
20.07.01.	- 연구 추진 실무 상황 공유 - 선행 연구 사례 분석 검토
20.07.22.	- 향후의 연구 진행 과정 수정 - 문화도시 현장 상황 공유
20.08.01.	- 제1차 문화도시 사업계획 검토 구체화 - 문화도시별 특성 및 차별점 확인 - 현장검토 단계에서의 주안점 파악
20.08.20.	- 시민참여, 거버넌스 관련 사례 검토 - 거버넌스 관련 지표 항목 구체화
20.09.02.	- 연구 수행 실무 상황 공유 - 문화도시 현장 상황 공유
20.10.12.	- 배점 형식 검토 구체화, 현장진행 상황을 적용한 지표 설정 구체화 - 자문 의견 적용 구체화 - 중간보고 준비 구체화
20.10.16.	- 중간보고 준비 상황 점검, 평가 방식 논의
20.10.26.	- 연구 중간보고회
20.11.18.	- 자문 의견 적용 구체화 회의
20.12.01.	- 평가위원 의견 수렴을 위한 서면 조사지 확정
20.12.30.	- 서면조사 수렴 반영을 통한 성과지표체계 논의
21.02.10.	- 성과평가 과정 논의
21.03.13.	-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도시별 질의사항 도출
21.03.26.	- 최종 평정 후 논의
21.03.30.	- 연구 최종보고회

2) 문화도시별 특성화 계획 평가기준 마련

- 연구 과정에서 수립된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관리지표에 대해 지자체·추진주체·외부자문위원·문화도시심의위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
- 문화도시별 특성화 계획에 적합한 평가방식으로 도시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성과관리지표를 마련하였으며, 예시로 제시된 세부지표를 활용하여 각 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성과지표를 설계하고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가이드라인의 세부지표는 개별 문화도시들이 자체적으로 성과관리 지표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지표 풀의 DB 역할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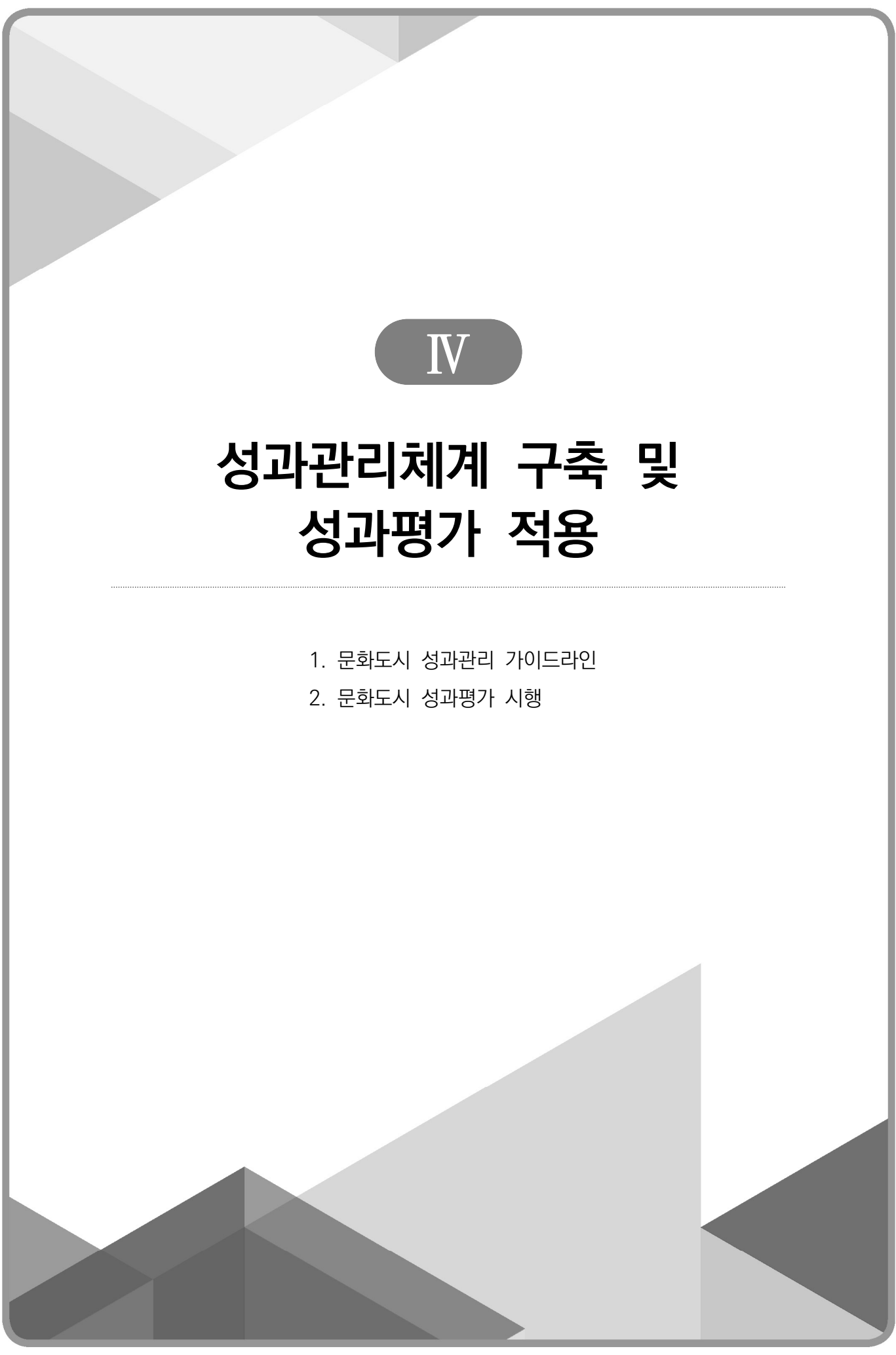
3) 연차별 성과지표 고도화 작업

-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내에 사업비 지원 기간(1차년도~5차년도) 동안 목표치를 설정하여 제시하는 것을 요청하여, 연차별 성과지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사업 초반기에 사업의 추진체계 확립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성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초반기에는 거버넌스의 비율을 높이고, 연차가 진행될수록 성과의 비율이 높아지도록 구성함.
- 다만, 문화도시 사업의 거버넌스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5년차에도 5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설계함.

[표 51] 연차별 성과지표 영역 비율

영역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거버넌스	65	60	50	50	50
성과	35	40	50	50	50

- 3년차 평가는 중간평가 성격을 실행하여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의 지속성을 판단하며, 5년차 평가는 지원기간 이후 문화도시의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함.
- 1년차 평가는 사업의 연차별 계획 및 성과지표 수립에 초점을 맞추며, 5년차 평가는 문화도시 사업 예산의 차년도 일반회계 포함 여부에 초점을 맞춤.



IV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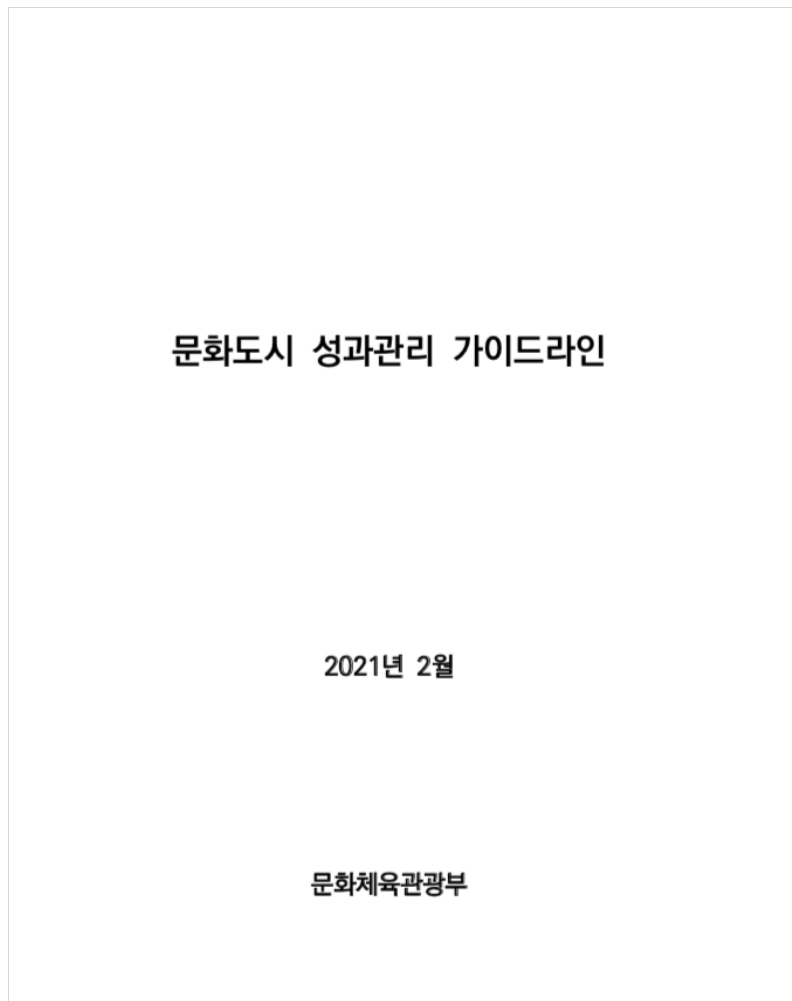
1.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2. 문화도시 성과평가 시행

Ⅳ.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성과평가 적용

1.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 연구 진행과정에서 수회의 자문(외부전문가, 문화도시심의위원, 대학교수, 사업의 이해관계자 등)과 FGI(일반시민, 사업의 이해관계자 등), 현장점검, 사례분석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된 성과관리 운영방안 및 성과지표체계는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으로 별도 제작되었음.
- －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은 사업 담당자(지자체, 추진주체) 및 문화도시심의 위원에 배포('21.2.)하였으며, 각 문화도시는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

<그림 26>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표지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의 전문을 아래에 수록하였음.
(가이드라인에 사용된 서체 및 서식을 그대로 수록함.)

I) 성과관리 운영 방안

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및 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의 문화도시 추진실적 심사
- 평가운영방향
 -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이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문화도시의 자율적 성과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함.
- 평가대상
 - 제1차 법정 문화도시 총 7곳 (부천시, 천안시, 청주시, 원주시, 포항시, 부산 영도구, 서귀포시)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행한 문화도시 활동을 평가함
- 평가주체 : 문화체육관광부(문화도시심의위원회)

2. 평가 절차

-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심의위 의결 (2월 4일)
- 문화도시 지자체 담당자 및 사업 실무자 대상 설명 (2월 9일)
- 문화도시별 성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3월 초)
- 심의위 평가 수행 과정
 - 도시별 성과 보고서가 제출된 후 심의위는 1차 평가를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개별 문화도시별로 질의 사항을 도출하여 서면 응답과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개별 문화도시별은 질의 사항과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서면 응답과 자료를 제출함.
 - 심의위는 서면 응답과 자료를 제출받은 후, 필요에 따라 개별 문화도시별로 온라인 질의응답을 요청할 수 있음.
 - 심의위는 2차 평가를 수행한 후 종합 평정을 함
- 심의위 성과평가 결과 활용
 - 인센티브 사업비 배분(3월 말)
 - 우수 사례의 공유 확산을 추진함.
 - 성과 보완이 필요한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수행함

2) 성과지표체계

1. 성과지표체계의 구성

- 영역과 중분류
 - 문화도시의 투입(input)과 과정(process) 및 활동(activity)을 다루는 ‘거버넌스’와 산출(output) 및 결과(outcome)를 다루는 ‘성과’로 영역을 구분함.
 -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소통과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거버넌스의 속성을 반영하여 중분류를 구분함.
 - 거버넌스 영역의 중분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문화도시가 추구하는 가치와 변화상을 공유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비전과 전략’
 - 문화도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추진기반’
 - 문화도시가 지자체와 시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관리’
 - 성과 영역에서는 개별 문화도시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중분류를 구분함.
 - 성과 영역의 중분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개별 문화도시가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표를 자율 구성하는 ‘고유성과’
 - 모든 문화도시에서 기대되는 ‘공통성과’

[표 52] 영역과 중분류

영역	중분류
거버넌스	비전과 전략
	추진기반
	자율관리
성과	고유성과
	공통성과

2. 성과지표체계의 연차별 적용

- 문화도시 사업 자원기간 동안 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연차별로 영역별 비중을 조정함.
 - 문화도시 조성 초기에는 거버넌스 구축에 비중을 높게 두고 점차 성과의 비중을 높여감.
 - 거버넌스의 지속성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후반기에도 거버넌스의 비중을 유지함.

[표 53] 영역별 연차별 적용

영역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거버넌스	65	60	50	50	50
성과	35	40	50	50	50

3. 제1차 문화도시 1년차 성과지표체계

○ 2개 영역, 5개 중분류, 11개 지표 및 세부지표(예시)로 구성

[표 54] 1년차 성과지표체계의 구성

영역	중분류(배점)	지표 코드	지표(배점)	지표 정의	세부지표 예시	
거버넌스 (65)	1 비전과 전략 (10)	1.1	비전공유 (5)	문화도시 비전을 보다 많은 시민과 효과적으로 공유하여 문화민주주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정성	· 비전 제시의 적합성 · 비전 공감을 위한 소통 노력
					정량	· 비전 소통 실적 · 문화도시 인지도 · 비전 공감 정도
		1.2	전략적 접근 (5)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문화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정성	· 실천전략의 구체화
					정량	· 실천전략의 지속성
	2 추진기반 (30)	2.1	거버넌스 구축 (10)	문화도시를 시민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체계적인 논의와 협의 구조 발전을 위한 노력	정성	· 거버넌스 강화 노력 · 시민참여 제고 노력
					정량	·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개최 · 문화도시 시민참여율 · 문화도시 재정민주주의 수준
		2.2	사업 추진역량 강화 (10)	사업 추진주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역량 강화와 지자체 행정역량 강화	정성	· 사업 추진주체 자율성 확보 · 사업 추진주체 인력의 역량 강화 · 지자체 행정역량 강화
					정량	· 사업 추진주체 인력의 연수·교육 · 사업 추진주체 인력의 근속연수
		2.3	협력과 네트워크 (10)	다른 정책 주체 및 도시와의 협력을 통한 문화도시 발전의 노력	정성	· 다른 정책 주체와의 협력 · 다른 도시와의 협력
					정량	· 협력사업 및 협력프로그램 수 · 문화도시 상생협업체 참여 횟수
	3 자율관리 (25)	3.1	여건 조성사업 수행 (10)	문화도시 수행을 위한 법제도 환경 조성 및 재원확보, 지자체 행정지원을 통한 여건 조성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성 및 윤리성, 갈등관리 노력	정성	· 법·제도 환경 조성 및 재원확보 · 개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및 윤리성 · 지자체 행정지원의 적정성 · 갈등관리 노력
		3.2	자체 성과관리 체계운영 (15)	문화도시 고유성과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와 지자체 별로 제시한 세부지표의 적절성, 모니터링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시민과 결과를 공유하는 노력	정성	· 자체성과관리의 충실성 · 모니터링 운영 및 결과 공유의 적정성 · 환류 활동
성과 (35)	4 고유성과 (30)	4.1	문화예술 진흥 (15)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문화예술활동 참여 증대, 지역문화 예술발전, 문화예술공간 강화 등의 문화예술진흥 성과 관리를 위한 지자체 자율 지표 설정 및 지표 달성 내용	자율	· 세부지표는 자율 구성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예시 참고)
		4.2	지역발전 (15)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지역사회, 도시브랜딩 강화, 도시공간 발전 등의 지역발전 성과 관리를 위한 자체 자율 지표 설정 및 지표 달성 내용	자율	· 세부지표는 자율 구성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예시 참고)
	5 공통성과 (5)	5.1	대표사업 참여자 만족도 (2)	각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3개 사업 참여자 만족도의 목표 대비 수준	정량	· 3개 사업 참여자 만족도
		5.2	문화도시 정체성 (3)	문화도시를 통한 지역이미지 대내외 개선, 고유 정체성 창출, 타 도시 대비 차별성 확보에 대한 시민 평가	정량	· 이미지 대내외 개선 · 고유 정체성 창출

4. 지표의 유형

[표 55] 지표의 구성

구분	정량지표	정성지표	자율지표
속성	현상에 대한 기술이 계량적인 수치로 산출되는 지표	결과가 수치로 산출되지 않아 현상에 대한 판단에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이 필요한 지표	개별 문화도시가 세부지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지표
평가 방법	사전에 설정한 목표 대비 달성도나 객관적 기준 대비 성과에 따른 평가	결과의 내용 뿐 아니라 현상의 맥락과 질적 속성을 고려하여 평가	개별 문화도시가 작성한 세부지표 체계에 따라 평가

- 각 영역 및 지표의 성격에 따라 부여되는 자율성은 다음과 같음.
 - 거버넌스 영역은 7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별 세부지표(정성, 정량)는 도시의 특성에 맞게 일부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고유성과의 2개 지표 및 배점은 고정으로 하되, 각 지표별 세부지표는 고유성과 예시를 참조하여 자율지표로 구성함.
 - 공통성과의 2개 지표 및 배점, 세부내용은 변형 없이 작성함.
- 문화도시 성과관리의 정량지표는 주관적 속성을 계량화한 자료 이용까지 포괄함. 세부지표로 작성되어 지표 평가를 위한 종합적 판단의 근거자료로 기능함.
 - 이는 개별 문화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량지표에 의해서만 평가가 수행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임.
 - 성과 영역의 공통성과 지표만 목표 대비 달성도에 의해 정량지표로 평가 수행
 - 과소목표 설정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평가방법

- 거버넌스 영역의 7개 지표와 고유성과의 2개 지표는 세부지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지표별로 5단계 등급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함.

[표 56] 등급별 점수 부여 기준

등급	점수	기준
매우 우수	5점	기대 수준을 상당히 초과한 탁월한 성과
우수	4점	기대 수준을 상회하는 만족스러운 성과
보통	3점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평균 수준의 성과
미흡	2점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
매우 미흡	1점	기대 수준 보다 상당히 낮아 개선이 필요한 성과

- ‘매우 우수’ 등급의 5점을 받았을 때, 성과지표체계에 제시된 배점의 만점을 받고, 다른 등급을 받았을 때는 만점에 비례하여 배점의 점수를 받음.
- 산출 예시: 해당 지표의 배점이 10점인 경우, ‘매우 우수’는 10점, ‘우수’는 8점($10 \times 4/5$), ‘보통’은 6점($10 \times 3/5$), ‘미흡’은 4점($10 \times 2/5$), ‘매우 미흡’은 2점($10 \times 1/5$)이 부여됨. 해당 지표의 배점이 15점인 경우, ‘매우 우수’는 15점, ‘우수’는 12점, ‘보통’은 9점, ‘미흡’은 6점, ‘매우 미흡’은 3점이 부여됨.

3) 분야별 지표내용

거버넌스 영역

1. 비전과 전략

중분류 (배점)	지표 코드	지표	지표 정의	배점(점)
1 비전과 전략 (10)	1.1	비전공유	문화도시 비전을 보다 많은 시민과 효과적으로 공유하여 문화민주주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5
	1.2	전략적 접근	조성계획과 환경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화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5

1.1 비전 공유

유형	코드	세부지표 예시	내용 예시
정성	1.1.1	비전 제시의 적합성	· 문화도시 비전을 시민이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제시한 내용의 적합성
	1.1.2	비전 공감을 위한 소통 노력	· 문화도시 비전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기울인 소통 노력의 적극성과 적합성
정량	1.1.3	비전 소통 실적	· 비전 소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노력
	1.1.4	문화도시 인지도	· 문화도시 지정을 인지하는 시민 비율
	1.1.5	비전 공감 정도	· 문화도시 비전에 대해 시민이 공감하는 정도

1.1.1 (정성) 비전 제시의 적합성

〈정의〉

- 문화도시 비전을 시민이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제시한 내용의 적합성

〈세부평가내용〉

- 추상적으로 표현된 문화도시 비전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울인 노력은 무엇인가?
- 문화도시를 통한 도시의 변화 목표를 시민에게 어떻게 제시하였는가?

〈작성방법 예시〉

- 문화도시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조성계획의 내용을 제시함.
- 조성계획이 담고 있는 비전, 가치, 추진방향 등의 추상적인 개념을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전략을 제시함. 예컨대, 시민의 일상 관심사(안전, 환경, 교육, 보육, 일-가정 양립 Work and Life Balance, 고독 등) 속에서 접점을 찾아 문화도시 사업의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제시함.

- 시민 집단의 다양한 관심이나 인지 수준에 맞추어 문화도시 비전을 변용한 표현이 있다면 제시함(예: 청소년, 고령층 등 연령층에 맞게 비전을 제시한 특별한 내용이 있었다면 제시, 혹은 지역 이슈를 반영하여 문화도시 비전을 제시한 특별한 내용이 있었다면 제시).

1.1.2 (정성) 비전 공감을 위한 소통 노력

〈정의〉

- 문화도시 비전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기울인 소통 노력의 적극성과 효과성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 비전을 시민이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였는가?
- 비전에 대한 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 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반응과 해석을 반영하거나 설득하였는가?

〈작성방법 예시〉

- 문화도시 비전을 시민과 공감하기 위하여 수립한 전략이나 계획을 제시함. 소통 대상과 방법, 채널 등의 계획 내용이 있다면 제시함.
- 비전 공감을 위하여 소통하였던 집단들을 분류하여 제시함. 지역 예술단체, 활동가, 상인회, 부녀회, 기타 직능단체 등 여러 집단들과 소통한 빈도를 제시함.
- 소통 과정에서 문화도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기대, 해석을 접한 바가 있다면 제시함. 이를 통해서 문화도시 비전의 적합성이나 현실수용성을 확인한 바가 있다면 제시함. 또한 소통 과정에서 문화도시 비전이나 사업 방법의 개선과 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면 이를 제시함.
- 온라인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한 내용도 유의미한 부분을 제시함.
- 문화도시 비전을 소통하기 위하여 여타 기관과 협력한 사례가 있다면 제시함(예: 교육기관, 복지시설, 대중교통관리 기관, NGO 등과 협력하여 문화도시 비전을 알린 사례를 제시함).

1.1.3 (정량) 비전 소통 실적

〈정의〉

- 비전 소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의 목표 대비 달성 수준

〈산출방법〉

- 자료: 행정집계
- 간담회 개최, 협력대상 집단이 주최한 모임 참석, SNS 포스팅 등 각 소통 종류별 실행 횟수로 정량화
- 소통 종류별 목표 대비 달성 수준을 산출하여 평균 달성 수준 제시

- [산식] 문화도시 비전 소통 실적 목표달성 (%)
 $\{(\text{관측치}/\text{목표치})\} \times 100(\%)$

- 1차 문화도시 1년차 사업의 경우 비전 소통 실적과 잔여 사업기간에 대한 목표치 설정 및 근거 제시

1.1.4 (정량) 문화도시 인지도

〈정의〉

- 문화도시 지정을 인지하는 시민 비율의 목표 대비 달성 수준

〈산출방법〉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설문 문항 예시: 우리 ____시/구가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산식] 문화도시 인지도 (%)

$$(\text{문화도시 지정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수} / \text{전체 응답자 수}) * 100$$
- [산식] 문화도시 인지도 목표달성 (%)

$$\{(\text{관측치}/\text{목표치})\} * 100(\%)$$
- 1차 문화도시 1년차 사업의 경우 잔여 사업기간에 대한 목표치 설정 및 근거 제시

1.1.5 (정량) 비전 공감 정도

〈정의〉

- 문화도시 비전에 대해 시민이 공감하는 정도

〈산출방법〉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설문 문항 예시: 우리 ____시/구는 법정 문화도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목표에 대하여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문화도시를 통한 변화의 목표를 3개 내외의 표현으로 제시)
- 7점 척도 응답
- [산식] 문화도시 비전 공감 정도(점)

$$\sum\{(\text{7점 척도}-1) \times 16.7\} / \text{전체 응답자수}$$

7점 척도	점수
1	0
2	16.7
3	33.4
4	50.1
5	66.8
6	83.5
7	100.0

- [산식] 문화도시 비전 공감 정도 목표달성 (%)

$$\{(\text{관측치}/\text{목표치})\} * 100(\%)$$
- 1차 문화도시 1년차 사업의 경우 잔여 사업기간에 대한 목표치 설정 및 근거 제시

1.2 전략적 접근

유형	코드	세부지표 예시	내용 예시
정성	1.2.1	실천전략 구체화	· 조성계획, 사업 환경 변화, 전년도 사업성과를 고려한 당해 연도 실천전략의 적정성
정량	1.2.2	실천전략의 지속성	· 당해 연도 사업 수행 계획 수립 여부 (1년차~4년차)
			· 전체 사업 중 연차별 목표를 설정한 사업 수 (1년차)
			· 차년도 일반회계 반영 문화도시 사업 수 (5년차)

1.2.1 (정성) 실천전략 구체화

〈정의〉

-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환경 변화, 전년도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수립한 당해 연도 실천전략의 적정성

〈세부평가내용〉

- 조성계획의 내용이 실천전략에 잘 반영되었는가?
- 사업 환경 변화, 전년도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당해 연도 실천전략을 구체화하였는가?
- 당해 연도 실천전략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무엇이었으며,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하였는가?

〈작성방법 예시〉

- 당해 연도 실천전략을 구체화하는데 고려한 조성계획, 사업 환경 변화, 전년도 사업성과를 제시함.
- 사업 환경 변화는 국책 사업이나 도시 사업 시행, 공간적, 물리적 변화, 혹은 경제적, 재정적 변화, 여론 동향, 재난 발생 등 문화도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변화를 포괄
- 1년차의 경우 전년도 사업성과로서 예비 문화도시 사업성과를 고려할 수 있음.
-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장애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안 모색 과정과 내용을 제시함.
- 당해 연도 실천전략 구체화에 고려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SWOT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음.
-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당해 연도 실천전략이 반영된 부분을 설명함.

1.2.2 (정량) 실천전략의 지속성

1) 당해 연도 사업 수행 계획 수립 수 (1년차~5년차)

〈정의〉

- 문화도시 전체 사업 중 당해 연도 수행 계획을 수립한 사업 수

〈산출방법〉

- 자료: 사업 문서
- 당해 연도 사업 수행 계획을 수립한 사업 수 제시

- [산식] 당해 연도 사업 수행 계획 수립 사업 비율(%)
(당해 연도 사업 수행 계획 수립 사업 수/전체 사업 수)*100

2) 전체 사업 중 연차별 목표를 설정한 사업 수 (1년차)

〈정의〉

- 조성계획 수립 당시 연차별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던 경우, 1년차에 문화도시 전체 사업에 대한 연차별 정량, 정성 목표를 수립

〈산출방법〉

- 자료: 사업 문서
- 문화도시 전체 사업들에 대한 연차별 정량, 정성 목표를 제시하되, 연차별 정량 목표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 정량 목표 불가 사유를 명기하고 정성 목표만 제시

- [산식] 연차별 목표설정 사업 비율(%)
(연차별 목표설정 사업 건수/전체 사업 수)*100

3) 차년도 일반회계 반영 문화도시 사업 수 (5년차)

〈정의〉

- 문화도시 사업 중 하드웨어 조성 등의 일과성 사업을 제외한 지속성 사업 중 문화도시 지원 종료 후 지자체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속되는 사업 수의 비율

〈산출방법〉

- 자료: 사업 문서 및 차년도 예산 자료
- 문화도시 사업 중 하드웨어 조성 등의 일과성 사업을 제외한 지속성 문화도시 사업 수 제시
- 차년도 일반회계 반영 문화도시 사업 수 제시

- [산식] 차년도 일반회계 반영 문화도시 사업 비율(%)
(일반회계 반영 사업 수/전체 지속성 사업 수)*100

2. 추진기반

중분류 (배점)	지표 코드	지표	지표 정의	배점(점)
2 추진기반 (30)	2.1	거버넌스 구축	문화도시를 시민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체계적인 논의와 협의 구조 발전을 위한 노력	10
	2.2	사업 추진역량 강화	사업 추진주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역량 강화와 지자체 행정역량 강화	10
	2.3	협력과 네트워크	다른 정책 주체 및 도시와의 협력을 통한 문화도시 발전의 노력	10

2.1 거버넌스 구축

유형	코드	세부지표 예시	내용 예시
정성	2.1.1	거버넌스 강화 노력	· 거버넌스의 효과성 및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2.1.2	시민참여 제고 노력	· 시민참여의 범위를 확장하고 참여 수준을 높이며 자원배분에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노력
정량	2.1.3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개최	·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개최 계획 대비 건수
	2.1.4	문화도시 시민참여율	· 문화도시 거버넌스 및 사업 참여율
	2.1.5	문화도시 재정민주주의 수준	· 문화도시 전체 사업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비율

2.1.1 (정성) 거버넌스 강화 노력

〈정의〉

- 거버넌스의 효과성 및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지자체, 문화도시센터, 사업단, 워킹그룹, 공유모임 등 간에 유기적 관계가 만들어졌는가? 문화도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모임의 정례화와 기반 확충을 통해 거버넌스 기반이 안정화되었는가?
-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문화도시 사업을 위한 대표성,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었는가?
-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문화도시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울인 노력은 무엇인가? 문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한 내용이 사업 수행에 반영되었는가?

〈작성방법 예시〉

- 개별 문화도시 거버넌스 체계나 운영 원칙의 고유한 특성이 무엇인지가 잘 드러나게 작성함.
- 문화도시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지자체, 문화도시센터(혹은 사업단), 워킹그룹, 공유

모임 등 간의 관계를 도해로 요약 제시하고, 각 주체의 역할을 설명함.

- 문화도시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하는 조례 내용을 제시함.
-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제시하고 위원회가 확보한 대표성, 전문성을 설명하거나, 대표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설명함.
-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개최 실적을 제시하고, 개최 안건과 주요 논의 사항을 제시함.
-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논의 내용에 따라 문화도시 사업의 개선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와 적용 내용을 제시함.
-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논의기구가 있는 경우, 이 기구의 운영현황 및 역할수행을 제시함.
- 문화도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모임이 정례화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울인 노력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던지 제시하고, 실제 운영현황과 성과를 제시함.

2.1.2 (정성) 시민참여 제고 노력

〈정의〉

-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의 범위를 확장하고 참여의 수준을 높이며 자원배분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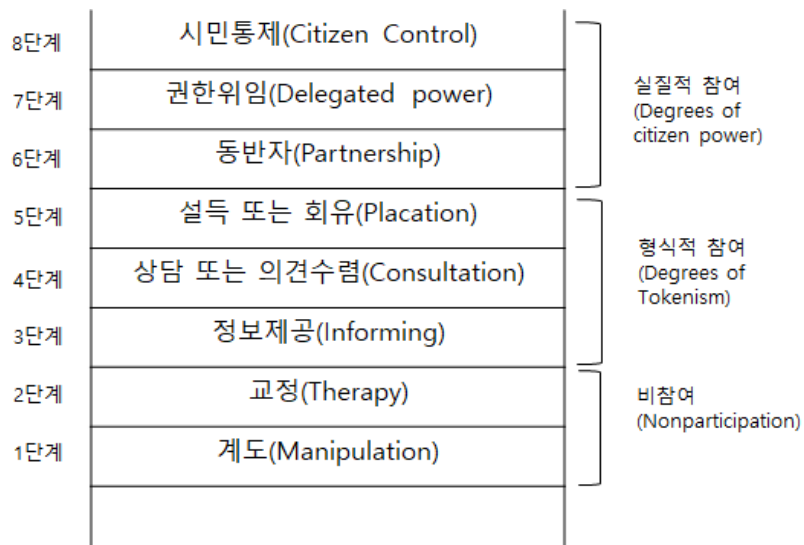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배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문화도시 사업의 주요 결정 과정에서 성, 세대, 연령, 장애, 직군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였는가?
- 전년에 비해서 시민참여 수준이 고도화되거나 확장된 것은 무엇인가?
- 문화도시 사업의 자원 배분에 시민 의견이 반영되었는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는 경우,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한 시민 숙의 과정이 충실히 진행되었는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수행되었는가?

〈작성방법 예시〉

- 문화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초점을 맞춘 대상 집단이 있었다면, 어느 집단인지 제시함. 특히, 문화취약계층의 참여 제고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있다면 제시함.
- 시민참여자들의 구성 비율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제시하여 다양한 집단의 참여 수준을 파악함.
- 아른스테인(S. Arnstein)의 참여 사다리 모형과 같은 시민참여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시민참여가 어떤 수준인지 진단하고, 참여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그 내용과 실제 성과를 제시함. 아른스테인의 모형 외 별도의 적절한 참여 모형을 사용할 수 있음.
- 문화도시 비전을 이해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의 사례가 있다면 제시함 (예: 마을모임, 학부모모임, 상인모임, 청소년모임 등에서 자발적인 활동 사례를 제시함.)
- 문화도시 사업의 자원 배분에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해 기획한 방안이 무엇이었던지 설명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실현되었는지 그 결과를 제시함. 주민참여형 예산 제도를 문화도시 사업에 적용한 경우,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을 제시함.

<그림 27> 아론스테인의 참여 사다리 모형



출처: 장원경·이선우·김광구(2018),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재구성

2.1.3 (정량)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개최

〈정의〉

-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개최 계획 대비 건수

〈산출방법〉

- 자료: 사업 문서
-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개최 횟수에는 서면 개최도 포함하나, 서면 개최의 불가피성 설명 필요
- [산식]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개최 비율(%)

$$(\text{당해 연도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개최 실행 건수} / (\text{당해 연도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계획 건수}) * 100$$

2.1.4 (정량) 문화도시 시민참여율

〈정의〉

- 문화도시 거버넌스 및 사업 참여 경험 비율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도시 연계 사업 포함)

〈산출방법〉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설문 문항 예시: 귀하는 문화도시 사업의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도시와 관련한 각종 거버넌스 활동 및 사업을 나열한 후 거버넌스 활동과 사업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참여경험 유무를 파악함. 또한 문화도시 활동의 참여경험을 산출함.
- [산식] 문화도시 시민참여율 (%)

$$(\text{문화도시 활동 참여한 적 있다고 답변한 수} \times 100) / \text{전체 응답자 수}$$
- [산식] 문화도시 시민 참여 목표달성 (%)

$$\{(\text{관측치}/\text{목표치})\} \times 100(\%)$$
- 1차 문화도시 1년차 사업의 경우 잔여 사업기간에 대한 목표치 설정 및 근거 제시

2.1.5 (정량) 문화도시 재정민주주의 수준

〈정의〉

- 문화도시 사업예산 중 주민참여형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 행안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중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비율

* 주민참여예산제도(행안부)

공청회,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의미함. 주민참여예산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등 다른 주민참여제도와 함께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역할을 함.

*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요

2005년 9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조항 신설.

제39조(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39조 의무사항으로 규정

제39조(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15년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 조항 신설

제39조(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017년 7월. 국정과제 75번의 실천과제로 선정

국정과제(75번): 실천과제(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지방자치단체 핵심정책, 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 통제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개발, 재인용

〈산출방법〉

- 자료: 사업 문서
- 문화도시 예산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중 주민참여형으로 결정한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 [산식] 문화도시 주민참여형 예산 비율 (%)

$$(\text{주민참여형으로 결정한 문화도시 사업예산} / \text{문화도시 사업예산}) \times 100$$

- [산식] 문화도시 주민참여형 예산 목표달성 (%)
 $\{(\text{관측치}/\text{목표치})\} \times 100(\%)$
- 행안부를 통해 도입한 주민참여예산 중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비율
- [산식] 행안부 주민참여예산 중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비율 (%)
 $(\text{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예산} / \text{행안부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times 100$
- [산식] 행안부 주민참여예산 중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비율 목표달성 (%)
 $\{(\text{관측치}/\text{목표치})\} \times 100(\%)$
- 1차 문화도시 1년차 사업의 경우 잔여 사업기간에 대한 목표치 설정 및 근거 제시

2.2 사업추진 역량 강화

유형	코드	세부지표 예시	내용 예시
정성	2.2.1	사업 추진주체 자율성 확보	· 사업 추진주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전문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2.2.2	사업 추진주체 인력의 역량 강화	· 사업 추진주체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와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2.2.3	지자체 행정역량 강화	· 지자체 내 문화도시 전담 행정인력 배치와 전문역량 강화 노력
정량	2.2.4	사업 추진주체 인력의 연수·교육	· 추진주체의 연수·교육 참여 실적
	2.2.5	사업 추진주체 인력의 근속연수	· 추진주체 역량강화를 위한 고용 안정성

2.2.1 (정성) 사업 추진주체 자율성 확보

〈정의〉

- 사업 추진주체가 문화도시 조성계획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전문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센터(혹은 이에 준하는 기구나 조직)가 지역사회 신뢰를 얻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보하는 운영규정이나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운영규정이나 발전계획이 수립된 경우 운영규정이나 발전계획에 따라 문화도시센터가 운영되었는가?
- 문화도시센터가 독립되지 아니하고 재단이나 진흥원에 소속된 경우, 재단이나 진흥원 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자율성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 조례, 사업 문서
- 문화도시센터가 재단이나 진흥원에 소속된 경우 활동이 자율성을 갖추도록 제도화한 노력을 중점으로 제시하고, 문화도시센터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존재하는 경우 안정성과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화한 노력을 제시함.
- 현재 문화도시센터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부족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제시함.

2.2.2 (정성) 사업 추진주체 인력의 역량 강화

〈정의〉

- 사업 추진주체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와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센터가 센터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센터 인력이 전문성과 지속성을 갖고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조직구조의 설계와 고용관계가 이루어졌는가?
- 문화도시센터 인력의 보상체계가 합리적으로 마련되었는가?
- 센터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가 제공되었는가?
- 센터 인력의 활동에 작용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수행되었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 사업 문서
- 문화도시센터 직원의 정원과 현원 규모 변화를 제시함
- 문화도시센터 직원의 구성, 고용상태, 평균 급여수준, 직급별 급여수준, 복지 및 수당체계를 제시함
- 문화도시센터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상황을 제시하고, 역량의 지속적 축적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제시함. 현재 문화도시센터 인력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부족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제시함.

2.2.3 (정성) 지자체 행정역량 강화

〈정의〉

- 지자체 내 문화도시 전담 행정인력 배치와 전문역량 강화 노력

〈세부평가내용〉

- 지자체 내 문화도시 사업을 전담하는 행정인력을 배치하였는가?
- 지자체 행정 담당자는 문화도시 사업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는가?
- 지자체 행정 담당자가 사업수행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는가?
- 인사이동 등으로 행정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문화도시 사업이해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 사업 문서, 행정집계
- 지자체 내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전담하는 행정인력의 인원과 직급을 제시하고, 문화도시 관련 워크숍, 강연 등의 교육 프로그램 참가 경험을 제시함.

2.2.4 (정량) 사업 추진주체 인력의 연수·교육

〈정의〉

- 문화도시센터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참여 실적

〈산출방법〉

- 자료: 사업 문서, 행정 자료
- 문화도시센터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 참여 인원과 횟수를 제시함.
- [산식] 사업 추진주체 인력의 연수·교육 (연 회)
 $\Sigma(\text{연수·교육} * \text{참여 인원})$
- [산식] 사업 추진주체 인력의 연수·교육 목표 달성 (%)
 $\{(\text{관측치}/\text{목표치})\} * 100(\%)$
- 1차 문화도시 1년차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주체 인력의 연수·교육 참여 인원 및 횟수와 사업 추진주체 인력의 연수·교육 목표달성 비율을 모두 제시

2.2.5 (정량) 문화도시센터 직원 근속 연수

〈정의〉

- 문화도시센터 설립 연수 대비 문화도시센터 직원 평균 근속 연수

〈산출방법〉

- 자료: 사업 문서, 행정 자료
- 문화도시센터 직원의 정원 대비 현원의 센터(혹은 사업단 등) 근속 연수 평균을 직급별로 산출함.
- 직급별 기준은 센터 현황에 따라 관리자급, 중간관리자급, 사원급 등으로 구분함.
- 재단이나 진흥원 직원이 센터에 배치된 경우는 센터 업무 종사 연수를 기준으로 함.
- [산식] 문화도시센터 직원 근속연수 (점)
문화도시센터 직원의 센터 근속 평균 연수/문화도시센터 설립 연수
- 문화도시센터의 정원이나 현원 규모가 연차별로 조정되었을 경우, 조정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산출함.
- 자료 해석의 보조 자료로 센터 직원 이직 현황을 제시함.

2.3 협력과 네트워크

유형	코드	세부지표 예시	내용 예시
정성	2.3.1	다른 정책 주체와의 협력	· 여타 정책 및 사업, 문화기반시설과의 협력 · 정책 간 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속성 확보 노력
	2.3.2	다른 도시와의 협력	· 도시 간 협력을 통한 문화도시 정보교류와 역량강화 및 지역 문화발전 기여
정량	2.3.3	협력사업 및 협력프로그램 수	· 도시 간 협력사업 수 · 여타 정책 협력사업 수 · 여타 정책 연계 제도화 수
	2.3.4	문화도시 상생협약체 참여 횟수	· 문화도시 상생협약체 모임 개최 건수 대비 참여 건수

2.3.1 (정성) 다른 정책 주체와의 협력

〈정의〉

- 문화도시 사업 이외 여타 정책 및 사업, 문화기반시설과의 협력

〈세부평가내용〉

1) 여타 정책 및 사업, 문화기반시설과의 협력

- 문화도시 사업 수행 조직 외의 다른 정책 수행자와 소통하였는가? 협의 사항은 무엇인가? 정기적인 소통 창구가 확보되었는가? 협력을 위한 조정 가능 등의 운영시스템이 마련되었는가?
- 문화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다른 개별 문화사업 혹은 문화기반시설과 협력하였는가? 다른 정책주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추진된 사업들이 있는가? 문화정책이 연계되어 효과성이 증진되었는가?
- 문화정책 내 불필요한 중복 사업을 줄이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 다양해지는 성과를 거두었는가?
-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활동의 효과성 증진에 기여하였는가?
- 다른 정책과의 협력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거나, 지속성을 확보한 사례가 있는가?

2) 정책 간 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속성 확보 노력

- 다른 정책과의 협력과정에서 제도 개선 노력이 수행되고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수행되었는가?
- 다른 정책 연계를 위해 행정협약체 등의 제도가 마련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는가?
- 다른 정책 분야의 중장기 계획에 문화도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반영되었는가?
- 다른 법정계획 및 발전계획을 통해서 문화도시의 지속성 확보 가능성이 증진되었는가?
- 민간부문도 정책 간 협력에 참여하였는가? 민간부문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기울인 노력은 무엇이었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 행정집계, 사업 문서
- 조직 내외의 다른 문화사업, 문화기반시설이나 다른 정책 주체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룬 성과를 문화도시 발전에 도움이 된 부분과 다른 정책 분야에 기여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지자체 내 행정협약회의 운영 내용과 부서 간 협력 사례가 있을 시 내용을 제시함.

2.3.2 (정성) 다른 도시와의 협력

〈정의〉

- 다른 문화도시 혹은 기타 다른 도시들과의 협력을 통한 문화도시의 성장과 확산 노력

〈세부평가내용〉

- 도시 간 협력을 통해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정보와 노하우의 상호교류가 일어났는가?
- 도시 간 협력을 통해 문화도시 참여주체의 역량이 강화되었는가?
- 도시 간 협력을 통해 문화정책의 새로운 아젠다 발굴이나 이해 심화에 기여하였는가?
- 인접 도시 간 협력을 통해 광역 단위의 문화발전에 기여하였는가?
- 도시 간 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 노력이 수행되었는가?
- 문화도시 행사에 다른 도시의 시민, 예술가, 문화기획자들이 참여하여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가졌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 문화도시로 지정된 다른 도시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추진한 공동행사나 공동사업의 기획, 수행과정, 성과 등을 제시함.
- 문화도시 지정을 준비하는 도시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수한 사례를 제시함.
- 도시 간 협력 행사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 활동가, 공무원, 센터 직원의 현황을 제시하고, 참여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함.

2.3.3 (정량) 협력 사업 및 협력 프로그램 수

〈정의〉

- 당해 연도 타 부서, 시설,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의 건수
- 도시 간 협력사업 수
- 여타 정책 협력사업 수
- 여타 정책 연계 제도화 수

〈산출방법〉

- 자료: 사업 문서, 행정집계
- 당해 연도 타 부서, 시설, 기관과 일회성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의 건수
- [산식] 협력 사업 및 협력 프로그램 수
협력 사업 수 + 협력 프로그램 수

2.3.4 (정량) 문화도시 상생협약체 참여 횟수

〈정의〉

- 문화도시 상생협의체 각종 모임 개최 건수 대비 참여 건수

〈산출방법〉

- 자료: 사업 문서, 행정 집계
- 상생협의체의 각종 모임 및 행사를 종류별로 구별하여 참여 횟수를 명기하고, 산출하도록 함.
- [산식] 문화도시 상생협의체 참여율(%)
(당해 연도 문화도시 상생협의체 행사 참여 횟수
/당해 연도 문화도시 상생협의체 행사 개최 수)*100
- 상생협의체 모임은 정기모임, 성과공유회, 워크숍, 각종 활동주체별 모임 등이 해당되며 상생협의체 의장 도시의 사전 공지여부를 기준으로 횟수를 집계함.
- 모임 종류별로 개최 횟수 대비 참여 횟수를 제시함.

3. 자율관리

중분류 (배점)	지표 코드	지표	지표 정의	배점(점)
3 자율관리 (25)	3.1	여건 조성 과 사업 수행	문화도시를 위한 법제도 환경 및 자원 확보, 지자체 행정지원과 같은 여건 조성 과 개별 사업 수행의 적정성	10
	3.2	자체 성과관리체계 운영	문화도시 고유성과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와 모니터링의 적정한 운영	15

3.1 여건 조성 과 사업 수행

유형	코드	세부지표 예시	내용 예시
정성	3.1.1	법제도 환경 조성 및 자원 확보	· 법제도 환경 조성 및 자원 확보
	3.1.2	개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및 윤리성	· 개별 사업 기획 및 운영의 적정성 · 사업 수행의 윤리성 · 시민별 혜택 배분의 적정성
	3.1.3	지자체 행정지원의 적정성	· 지자체 행정 담당자의 사업수행역량 강화 · 지자체의 노력 수행
	3.1.4	갈등관리 노력	·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갈등 관리
정량	3.1.5	자원 조성	· 필요 자원의 조성
	3.1.6	목표 달성 사업 비율	· 연차별 목표 달성 사업 비율
	3.1.7	예산집행률	· 예산집행률

3.1.1 (정성) 법제도 환경 조성 과 자원 확보

〈정의〉

-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성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환경 조성 여부와 필요 자원의 조성 여부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 사업수행의 지속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문화도시 조례가 적절하게 포괄하였는가?
- 문화도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경우, 문화도시 조례 개정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였는가?
-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가?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적시에 확보하였는가?

〈작성방법 예시〉

- 문화도시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제시하고 문화도시를 거버넌스 기반으로 추진하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파악함.
- 특히, 문화도시 사업 담당의 지자체 행정인력과 문화도시센터의 실무 인력들이 느끼는 규정 보완이나 개정 필요성이 없는지 확인해 봄.
- 만약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개정 추진 계획이나 노력을 제시함.

- 국비에 대응하여 문화도시 자원조성에 필요한 지방재원이 차질 없이 마련되었음을 제시함.

3.1.2 (정성) 개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및 윤리성

〈정의〉

- 문화도시의 개별 사업들이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와 다양한 윤리적 이슈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

〈세부평가내용〉

- 개별 사업이 문화도시 조성계획과 실천전략에 따라 적정하게 기획되어 사업계획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의 기획, 홍보, 집행, 환류 활동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가?
- 개별 사업별로 계획된 연차별 정량, 정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 문화도시 사업의 회계 관리에서 국가사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 문화도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윤리적 차원의 문제는 없었는가? (예시: 성추행, 갑질 행위, 부적절한 언사 및 예산 사용 등)
- 사업 수행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윤리 교육이 제공되거나 윤리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었는가?
- 문화도시 사업의 혜택이 특정한 지역, 특정한 세대에 편중되지 않도록 점검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수행되는가? 문화도시 사업 수행이 특정한 집단이나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점검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수행되는가?
- 취약 계층 및 고령자, 일육아 병행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이 문화도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가?
- 금년도 성과에 대한 자체 진단을 통해 시민별 혜택이 고르게 배분될 수 있도록 차년도 계획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가?
- 도시 내의 각 지역별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

〈작성방법 예시〉

- 개별 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규정한 내규가 있다면 제시함.
- 사업기획부터 수행 및 환류 활동의 사례를 제시함.
- 연차별 사업목표가 설정된 경우, 사업별로 당해 연도 사업목표 달성 정도를 표로 요약 제시함.
-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의 원인 분석을 제시함.
- 사업 수행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사건을 다루기 위한 노력을 제시함.
- 문화도시 전체 사업별 수혜 집단이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분석해 보고, 편중된 상황이 없는지 점검한 결과를 제시함.

3.1.3 (정성) 지자체 행정자원의 적정성

〈정의〉

- 지자체 단체장의 리더십, 지방의회, 지자체(행정지원)와 문화도시 사업 추진주체(센터, 사업단, 워킹그룹 등) 간 협력

〈세부평가내용〉

1) 문화도시 리더십

- 지자체 단체장이 문화도시 추진 및 지원과 관련한 원칙 및 방향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 지자체 단체장은 의원들 대상의 설명과 자료 제공을 통하여 지방의회에 문화도시 사업의 의의를 알리고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적절하게 수행하였는가?
- 지방의회에서 문화도시에 대하여 제기된 질의나 지적사항이 있다면,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협력 및 공감을 이끌어냈는가?
- 지자체 연간 업무 계획에 문화도시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 문화도시 사업이 읍면동, 마을 단위까지 협력하여 진행되도록 노력하였는가?
-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구조, 체계 및 지원 방안 등이 개선된 사례가 있는가?

2) 지자체(행정지원)와 문화도시 사업 추진주체(센터, 사업단, 워킹그룹 등) 간 협력

- 지자체 문화도시 행정부서와 문화도시센터 사이에 업무 협의를 위한 소통경로가 마련되어 있는가? 지자체 문화도시 행정 담당자가 다양한 문화도시 사업수행주체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는가?
-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문화도시 사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행정지원을 수행하였는가?

〈작성방법 예시〉

- 지자체 단체장의 문화도시에 대한 의지나 신념이 담긴 문건이나 공개 발언을 통해서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작성함.
- 지자체 단체장이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 등의 실적을 제시함.
- 지자체 연간 업무계획에 문화도시 계획이 반영된 내용을 제시함.
- 지자체 단체장이 일선 행정조직에 내린 문화도시 관련 지침 내용을 제시함.
- 지자체 단체장이 문화도시 사업의 부처 간 협력을 위해서 지시한 사항이나 조치가 있다면 제시함.
- 지방 의원들 대상의 설명회나 간담회 개최 실적이 있다면 제시하고 주요 논의 내용을 제시함.
- 지자체 행정 담당과 문화도시센터 사이의 협의 방식을 제시하고 협의 빈도와 협의 방식에 대하여 제시함.

3.1.4 (정성) 갈등관리 노력

〈정의〉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사업 추진주체, 사업 관련 참여자 등의 갈등에 대한 대처의 적정성과 해결 사례

〈세부평가내용〉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사업 추진주체, 사업 관련 참여자 등의 갈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된 사례가 있는가?

〈작성방법 예시〉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를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제시함. 잠재적인 갈등에 대한 예방적 대처와 실제 발생한 갈등을 수습한 사례를 구분하여 제시함.

- 실제 발생했던 갈등 중 적절하게 해결된 사례와 끝내 해결되지 않는 사례를 대비하여 제시하고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함.
-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이 있다면 제시함.

3.1.5 (정량) 자원 조성

〈정의〉

- 필요 자원의 조성 수준

〈산출방법〉

- 자료: 행정자료
- 국비 지급에 맞춘 지방재원 조성 여부 확인
- [산식] 자원 조성 비율 (%)

$$(\text{지방재원 조성액} / \text{국비 기준 필요 자원 조성액}) \times 100$$
- 적시 자원조성 여부를 병기함.

3.1.6 (정량) 목표 달성 사업 비율

〈정의〉

- 연차별 목표 달성 사업 비율

〈산출방법〉

- 자료: 행정자료, 사업 문서
- 당해 연도의 사업 중 정량 목표가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연차별 정량 지표를 달성한 사업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함.
- [산식] 목표 달성 사업 비율(%)

$$\{(\text{당해 연도 목표 달성 사업 수} / \text{당해 연도 사업 수})\} \times 100(\%)$$

3.1.7 (정량) 예산집행률

〈정의〉

- 당해연도 사업 종료까지 집행한 예산 비율

〈산출방법〉

- 자료: 행정자료
- [산식] 사업 종료시점 기준 예산 집행률

$$\{(\text{당해 연도 사업 집행액} / \text{당해 연도 예산현액})\} \times 100(\%)$$

3.2 자체 성과관리체계 운영

유형	코드	세부지표 예시	내용 예시
정성	3.2.1	자체 성과관리의 충실성	· 자체 고유성과지표의 대표성 · 목표치의 도전성 · 자체 고유성과지표 측정의 적정성
	3.2.2	모니터링 운영 및 결과 공유의 적정성	· 모니터링 운영의 체계성 · 모니터링 결과의 투명한 공개 · 모니터링 인력 교육
	3.2.3	환류 활동	· 환류 활동의 적극성 · 환류 활동의 효과성
정량	3.2.4	모니터링 수행 정도	· 사업 대비 모니터링 수행 정도

3.2.1 (정성) 자체 성과관리의 충실성

〈정의〉

- 고유성과지표의 대표성과 목표치의 도전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자체 고유성과 지표 측정의 적정성

〈세부평가내용〉

- 자체 고유성과지표는 문화도시가 추구하는 비전과 전략, 조성계획, 예산 비중을 적정하게 고려하였는가?
- 자체 고유성과지표는 개별 단위사업의 성과물을 넘어서 도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시되었는가?
- 자체 고유성과지표별 목표치를 설정할 때 과거의 성과나 업무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전제로 한 목표치를 설정하였는가?
- 자체 고유성과지표의 달성도가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 수행에 의하여 측정되었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행정집계, 사업문서
- 자체 고유성과지표 선정의 근거로서 조성계획의 해당 내용이나 관련 사업의 중요도를 제시함
- 개별 단위사업 참여자의 시점에서 지표를 작성하기 보다는 가능한 전체 시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지표를 작성함.
- 목표치 설정의 근거로서 조성계획의 내용, 관련 조사 결과, 환경요인 등을 제시함.
- 자체 고유성과지표 측정을 위해 수집된 자료의 목록 등을 제시하고, 만족도 조사 등 별도의 조사를 수행한 경우 조사 수행 주체 및 경과를 제시함.

3.2.2 (정성) 모니터링 운영 및 결과 공유의 적정성

〈정의〉

- 모니터링 인력 교육을 포함한 모니터링 운영의 체계성과 모니터링 결과의 투명한 공개

〈세부평가내용〉

- 시민과 전문가의 모니터링 수행에 적용하는 원칙과 운영지침이 포함된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개별 사업의 수행에 대해서 시민과 전문가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었는가? 모니터링 계획이 수립된 경우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이 수행되었는가?
- 시민 모니터링단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는가?
- 시민과 전문가가 모니터링한 결과가 일반 시민에게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었는가?
- 문화도시 블로그, SNS 등의 채널에 모니터링 결과가 적시에 업로드 되고, 시민의 댓글 등의 반응에 대한 피드백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는가?
- 개별 사업 단위에서 참여인원 파악, 만족도 조사, 효과 측정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행정집계, 사업문서
- 모니터링 수행 계획이 수립된 경우 모니터링 계획을 제시하고, 모니터링에 참여한 인원 규모와 특성을 제시하며, 시민과 전문가 모니터링단 구성 방법도 제시함.
- 모니터링단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을 제시하고, 모니터링 내용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가 있다면 링크를 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니터링 결과의 사례를 제시함.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시민의 공유과정이나 반응이 있다면 제시함.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SNS나 댓글로 나타난 시민 의견이 있다면 제시함.

3.2.3 (정성) 환류 활동

〈정의〉

- 환류 활동의 적극성과 효과성

〈세부평가내용〉

- 시민과 전문가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다음 사업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가?
- 시민과 전문가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개선이나 새로운 사업 기획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행정집계, 사업문서
-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개선이 이루어졌거나 새로운 사업이 기획된 경우, 혹은 차기 사업계획이 수정된 경우가 있다면, 모니터링 내용과 환류 결과를 제시함.

3.2.4 (정량) 모니터링 수행 정도

〈정의〉

- 사업 대비 모니터링 수행 정도

〈산출방법〉

- 자료: 사업 문서
- [산식] 모니터링 수행 정도 (%)

$$\{(\text{당해 연도 모니터링 수행 사업 수} / \text{당해 연도 사업 수}) \times 100(\%)$$

성과 영역

4. 고유성과

■ 고유성과 자율 구성

중분류 (배점)	지표 코드	지표	지표 정의	지표 배점(점)
4 고유성과 (30)	4.1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문화예술활동 참여 증대, 지역문화예술발전, 문화예술공간 강화 등의 문화예술진흥 성과 관리를 위한 지자체 자율 지표 설정 및 지표 달성 내용	15
	4.2	지역발전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지역사회, 도시브랜딩 강화, 도시공간 발전 등의 지역발전 성과 관리를 위한 자체 자율 지표 설정 및 지표 달성 내용	15

〈지표 구성〉

- 고유성과는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도시 관련 규정에서 나타난 문화도시 지향점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진흥
지표와 지역발전 지표로 구성하도록 함.
- 각 지표별로 5단계 등급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함.

제2조(정의)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지표 정의〉

- 문화예술진흥 -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문화예술활동 참여 증대, 지역문화예술발전, 문화예술공간 강화 등의 문화예술
진흥 성과 관리를 위한 지자체 자율 지표 설정 및 지표 달성 내용
- 지역발전 -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지역사회, 도시브랜딩 강화, 도시공간 발전 등의 지역발전 성과 관리를
위한 자체 자율 지표 설정 및 지표 달성 내용

〈작성방법 예시〉

- 2개 지표에 대한 세부지표는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개별 문화도시가 자율적으로 구성함.
- 세부지표를 선정한 후 각 세부지표에 대한 정의와 세부평가내용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지표의
이용과 변형 혹은 신규작성 여부를 밝힘.
- 정성 세부지표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세부 평가항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함.
- 정량 세부지표의 경우 목표치 설정의 근거와 함께 목표치를 제시하고 〈산출방법〉을 기술하며, 산출방법에 따라
지표값을 산출하여 달성도를 파악함.

- 정량 세부지표는 관련된 정성 세부지표를 판단할 수 있는 보조 자료로 활용함.
- 문화도시 사업성과 인정을 위해서는 ① 성과에 대한 경험적 자료 제시와 함께 ② 문화도시 조성계획 및 사업 내용과의 관련성이 제시되어야 함.
- 또한 특정성과에 문화도시 이외의 사업이 영향을 미친 경우, 함께 작용한 다른 사업이나 요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함.

〈평정〉

-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지표별로 5단계 등급으로 평정함.

4.1 문화예술진흥 세부지표 예시

4.1.1 문화예술생태계 강화

유형	코드	세부 지표 예시	내용 예시
정성	4.1.1.1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진단 및 강화	·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진단 노력 · 지역문화예술 자원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성 제고 ·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강화의 제도화 · 시민과 예술가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조화
	4.1.1.2	지역문화예술 인력 강화	· 지역문화예술인력 양성 노력 · 지역문화예술인력 외부 유입 · 지역문화예술인력의 지속적 활동 여건 · 지역문화예술인력의 역량강화 노력
정량	4.1.1.3	지역문화예술 인력 현황	· 지역거주 예술가 수 · 지역거주 콘텐츠산업 창의 인력 수 · 지역거주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수
	4.1.1.4	지역문화예술 단체 현황	·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 수 및 인원
	4.1.1.5	문화자원봉사자 수	· 문화도시 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수

4.1.1.1 (정성) 지역문화 예술 생태계 변화 진단 및 강화

〈정의〉

-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진단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예술 자원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성 제고를 추구하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를 제도화하고 시민과 예술가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조화를 추구함.

1)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정기적 진단 노력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 조성계획과 세부 활동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한 진단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 지역문화예술 생태계에 나타나는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고 변화의 원인과 의미를 적절하게 진단하고 있는가?
- 지역 내 문화자원의 현황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잘 수행되고 있는가?
- 공식적인 문화기반시설 이외 다양한 성격의 문화자원이 파악되고 있는가?

2) 지역문화예술 자원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성 제고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프로젝트, 행사, 이벤트, 사업의 다양성이 증대하였는가?

3)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강화의 제도화

〈세부평가내용〉

- 지역문화예술진흥 시행계획 등을 통해서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강화를 위한 노력은 구체화되었는가?

4) 시민과 예술가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조화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시민과 예술가의 문화예술 활동이 균형 있게 조화로운 발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는가?
- 문화도시 사업에 예술가의 위치와 역할이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이들의 활동을 제고할 여건을 마련하였는가?
- 시민과 예술가가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였는가?
- 시민과 예술가의 만남을 통해 자극과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가?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예술가의 일거리가 늘거나 창작지원이 증가하였는가?
- 시민과 예술가의 만남을 통해서 기량 향상과 협력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작성방법 예시〉

-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진단의 개요를 제시하고 특히 최근에 일어난 변화 파악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태계 변화 추세를 파악하며 SWOT과 같은 분석 결과가 있다면 제시함.
- 지역문화예술진흥 시행계획 등 문화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다면, 문화예술 생태계 강화의 차원에서 기울이는 노력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문화도시 사업과의 관계성을 설명함.
-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에서 개발한 사업이나 제도가 있다면 제시하고, 기획 의도와 성과를 제시함.
- 예술가가 창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이나 워크숍 등의 문화도시 사업 성과가 있다면 제시함
- 시민과 예술가가 협업한 집단창작이나 교육 활동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참여 인력 간의 소통 증진 노력을 제시함.

4.1.1.2 (정성) 지역문화예술인력 강화

〈정의〉

- 예술가,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외부로부터 유입을 확대하고 이들의 지속적 활동과 역량강화를 위해 여건을 조성하며 기울인 노력

1) 지역문화예술인력 양성 노력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인력이 양성되었는가?
- 세대별, 성별, 분야별로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다양성이 제고되었는가?
- 지역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 전수, 경험 공유, 멘토링 기회가 제공되었는가?

2) 지역문화예술인력 외부 유입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 추진을 통해 외부로부터 지역문화예술인력의 지역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외부에서 유입된 지역문화예술인력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 혹은 지원 사업이 마련되어 있는가?

3) 지역문화예술인력의 지속적 활동 여건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인력의 정주여건과 활동여건이 개선되었는가?
- 지역문화예술인력의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가 강화 혹은 개선되었는가?
- 공연, 전시, 축제 행사 등 활동 기회가 다양하게 제공되었는가?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 개별 사업 종료 이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4) 지역문화예술인력의 역량강화 노력

〈세부평가내용〉

-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주체로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역 이해, 지역 창업 교육, 행정 처리 관련 등)의 기회가 마련되어 있는가?
- 지역문화예술의 인력, 자원을 창의적으로 조화시킨 다양한 실험적 시도들이 이루어지는가?
- 문화도시 조성계획 및 제도적 지원을 통한 지역 예술 활동여건 개선의 우수사례가 작성되었는가?

〈작성방법 예시〉

- 지역문화예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이나 멘토링 운영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교육 후에도 지역 활동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한 노력을 제시함.
- 지역문화예술인력 간의 자발적 모임이나 협력사업 등의 사례가 있다면 제시함.

4.1.1.3 (정량) 지역문화예술인력 현황

1) 지역거주 예술가 수

〈정의〉

-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 수

〈산출방법 예시〉

- 자료: 지역문화실태조사
- 조사 미시행 연도에는 자체 집계

2) 지역거주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수

〈정의〉

- 디지털창작자,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지역거주 콘텐츠산업 창의인력 수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행정 집계, 통계 자료
- 지역거주 콘텐츠산업 창의인력인 전수조사

3) 지역거주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수

〈정의〉

-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의 수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행정 집계, 통계 자료
- 지역문화시설(문예회관, 생활문화센터, 문화의집,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재단 운영시설 등) 종사자 및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 집계

4.1.1.4 (정량) 지역문화예술단체 현황

〈정의〉

-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 수 및 인원

〈산출방법 예시〉

- 자료: 지역문화실태조사
- 조사 미시행 연도에는 자체 집계

4.1.1.5 (정량) 문화예술활동 자원봉사자 수

〈정의〉

- 문화도시 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수

〈산출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통계 자료
- 행사 및 사업 단위별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명부 기반 통계 작성

4.1.2 문화예술활동 참여증대

유형	코드	세부 지표 예시	내용 예시
정성	4.1.2.1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가	· 문화예술 향유 증가 노력 ·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질적 다양화 노력
	4.1.2.2	생활문화 참여 여건 조성	· 생활문화 활동 참여 증가 및 확산 노력 ·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질적 다양화 노력
	4.1.2.3	문화예술교육 강화	·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양적 다양화 노력 · 문화예술교육의 지역별 배분 노력
	4.1.2.4	취약계층 문화예술활동 여건 개선	· 취약계층 문화예술활동 개선 노력
정량	4.1.2.5	문화예술 향유 현황	· 지역민의 분야별 문화예술 관람율
	4.1.2.6	문화예술 참여 활동 현황	· 지역민의 문화예술 참여 (직접 연주, 활동 및 발표회 참여 등) 비율
	4.1.2.7	문화예술교육 참여 현황	· 지역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경험 정도
	4.1.2.8	지역문화예술활동 여건 만족도	· 지역민의 전반적인 문화예술활동 여건 만족도
	4.1.2.9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횟수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의 평균 이용 횟수

4.1.2.1 (정성)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가

1) 문화예술 향유 증가 노력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를 통해 공연 전시 관람 및 축제, 이벤트 참여 등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하는 횟수가 증가하였는가?
- 문화도시를 통해 문화예술 향유집단이 특정한 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개선되었는가?
- 문화예술 향유집단의 확산을 위한 관객개발 노력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었는가?

2)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질적 다양화 노력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를 통해 공연 전시나 축제, 이벤트의 내용이나 형식이 보다 다양해졌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통계 자료
-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가를 위해 문화예술 콘텐츠나 관람 기회 증가에서 이룬 성과를 제시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 증가를 위한 기획, 내용, 성과를 제시함.
- 관객개발의 노력을 한 경우, 기획, 내용, 성과를 제시함.

4.1.2.2 (정성) 생활문화 참여 여건 조성

1) 생활문화 활동 참여 증가 및 확산 노력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를 통해 일상에서 생활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가 증가하였는가?
- 문화도시를 통해 일상에서 생활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의 계층이나 연령대 등이 다양해졌는가?

2)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질적 다양화 노력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를 통해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문화 활동의 내용과 방식이 보다 다양해졌는가?
- 문화도시를 통해 지역의 일상에서 새로운 문화주체들이 등장하였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통계 자료
- 생활문화 활동 참여 증가를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기획, 내용, 성과를 제시함.
- 생활문화 활동 참여 증가를 위한 노력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참여 인원 현황이나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관련 통계 자료를 제시함.

4.1.2.3 (정량) 문화예술 교육 강화

1)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양적 다양화 노력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보다 다양해졌는가?
- 문화도시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시민의 계층이나 연령대 등이 다양해졌는가?
- 문화도시를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주체들이 등장하였는가?

2) 문화예술교육의 지역별 배분 노력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문화도시의 동네별로 고르게 배분되었는가?

〈산출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통계 자료
- 문화예술 교육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 내용, 성과를 제시함.
- 문화예술 교육 개선을 위한 노력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참여 인원 현황이나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관련 통계 자료를 제시함.

4.1.2.4 (정량) 취약계층 문화예술활동 여건 개선

〈정의〉

- 취약계층 문화예술활동 개선 노력
- 사회적 약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문화예술활동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산출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통계 자료
- 지역 내 취약계층 문화예술활동 개선을 위한 사업의 기획, 내용, 성과를 제시함.
- 취약계층 문화예술활동 개선 노력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참여 인원 현황이나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관련 통계 자료를 제시함.

4.1.2.5 (정량) 문화예술 향유 현황

〈정의〉

- 지역민의 분야별 문화예술 관람율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설문 문항은 ‘국민예술활동조사’ 관련 항목 사용

- [산식] 문화예술 관람율 (%)
(문화예술 향유 경험한 적 있다고 답변한 수 * 100) / 전체 응답자 수

4.1.2.6 (정량) 문화참여활동 현황

〈정의〉

- 지역민의 문화참여(직접 연주, 활동 및 발표회 참여 등) 비율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설문 문항은 ‘국민예술활동조사’ 관련 항목 참조
- [산식] 문화참여활동 현황 (%)
- (문화참여활동 참여 경험한 적 있다고 답변한 수 * 100) / 전체 응답자 수

4.1.2.7 (정량) 문화예술교육 참여 현황

〈정의〉

- 지역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경험 정도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설문 문항은 국민예술활동조사 관련 항목 사용
- [산식] 지역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현황 (%)
- (문화예술교육 참여 경험한 적 있다고 답변한 수 * 100) / 전체 응답자 수

4.1.2.8 (정량) 지역문화예술활동 여건 만족도

〈정의〉

- 지역민의 전반적인 문화예술활동 여건 만족도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설문 문항 예시: 우리 _____시에서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에 여건이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 문화예술향유 관람, 문화예술 참여활동, 문화예술교육 등을 구분하여 만족도 질문
- [산식] 지역 주민 만족도 조사 실시(점)
- {Σ(7점 척도-1)X16.7} / 전체 응답자 수

4.1.2.9 (정량)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횟수

〈정의〉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의 평균 이용 횟수

〈산출방법 예시〉

- 자료: 지역문화실태조사

- [산식] 통합문화이용권 발급률(%)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자 수/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자 수)*100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액/통합문화이용권 예산배정액)*100

4.1.3 지역문화 발전

유형	코드	세부 지표 예시	내용 예시
정성	4.1.3.1	지역문화 특성화 노력	· 지역문화 풍부화 · 주체적 문화역량 역량 증대 및 수용성 증가
	4.1.3.2	지역문화 활용 증가	· 지역 소재 예술 활성화 · 지역문화 자원화 활동 및 우수사례 발굴
정량	4.1.3.3	지역특성화 사업 및 지역문화 현황	·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 인지도 ·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 호응도
	4.1.3.4	지역문화 특성화 시설 활용	·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이용되는 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의 수
	4.1.3.5	지역문화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 현황	· 지역문화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4.1.3.1 (정성) 지역문화 특성화 노력

1) 지역문화 풍부화

〈세부평가내용〉

- 지역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담은 지역문화가 강화되었는가?
- 지역의 특화된 문화정체성을 발전시켰는가? 문화에 대한 재해석이나 새로운 지역가치가 발견하고 발전되었는가?

2) 주체적 문화역량 역량 증대 및 수용성 증가

〈세부평가내용〉

- 지역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문화의 가치를 이해하는 주체적 문화역량이 증대하였는가?
- 지역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와 수용성이 제고되었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통계 자료
- 지역특성화 사업의 기획, 내용, 성과를 제시함.
- 지역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 내에서 달성한 시민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질적 자료나 관련 통계 자료를 제시함.

4.1.3.2 (정성) 지역문화 활용 증가

1) 지역 소재 예술 활성화

〈세부평가내용〉

- 지역의 다양한 소재, 전통, 공간을 기반으로 한 예술 활동이나 콘텐츠 제작 활동이 활성화되었는가?

2) 지역문화 자원화 활동 및 우수사례 발굴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를 통해 해석된 지역문화를 지역의 독특성으로 구성하고 자원화 하는 활동이 증가하였는가?
- 미래의 전통이 될 만한 전략과 내용의 실제화과정은 무엇인가? 관련하여 우수사례가 발굴되었는가?
- 지역문화의 특성을 가지는 미래문화유산 발굴 노력을 하고 있는가? 관련하여 우수사례를 확보하였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통계 자료
- 지역의 전통이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한 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의 기획, 내용, 성과를 제시함.
- 지역의 전통이나 고유한 문화를 소재로 한 예술 활동에 의해서 나온 예술작품이나 예술 활동의 목록을 제시함.

4.1.3.3 (정량) 지역특성화 사업 및 지역문화 현황

1)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 인지도

〈정의〉

- 지역특성화 사업에 대한 시민 인지도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설문 문항 예시: 우리 _____시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지역특성화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들을 나열한 후 인지도 조사
- [산식] 지역특성화 사업 인지도 (%)
(문화도시 지정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수 / 전체 응답자 수) * 100
- [산식] 지역특성화 사업 인지도 목표달성 (%)
{(관측치/목표치)}*100(%)
- 지역특성화 사업 인지도 비율과 지역특성화 사업 인지도 목표달성 비율을 모두 제시
- 목표치 설정이 안 된 경우에는 잔여 사업기간에 대한 목표치 설정 및 근거 제시

2)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 호응도

〈정의〉

- 지역문화가 지역의 고유성을 반영하는지에 대하여 시민들이 호응하는 정도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설문 문항 예시: (지역특성화 사업을 인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호응하십니까?
- [산식] 지역문화 호응도 (점)

$$\{\sum(7\text{점 척도}-1) \times 16.7\} / \text{전체 응답자 수}$$

4.1.3.4 (정량) 지역문화 특성화 시설 활용

〈정의〉

-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이용되는 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의 수

〈산출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행정 집계
- [산식] $\sum$ 지역문화 특성화 시설을 이용한 사업 수

4.1.3.5 (정량) 지역문화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 현황

〈정의〉

- 지역문화 특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수

〈산출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행정 집계
- $\sum$ 당해 연도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으로 기획된 프로그램 참여자 수

4.1.4 문화공간 강화

유형	코드	세부 지표 예시	내용 예시
정성	4.1.4.1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 기존 문화공간 내 시민참여 증대 노력 및 이용효과성 제고 · 사업 연계를 통한 기존 문화공간 프로그램의 다양성 증가 · 문화공간 운영의 차별성 및 탄력성
	4.1.4.2	다양한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 다양한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정량	4.1.4.3	문화시설 이용편의성	· 문화공간에 대한 이용편의성 평가
	4.1.4.4	문화시설 프로그램 다양성	· 문화시설 프로그램의 다양성 체감 평가
	4.1.4.5	문화시설 이용	· 문화시설의 이용자 증감
	4.1.4.6	다양한 복합문화공간 방문경험	· 다양한 복합문화공간 방문경험 비율
	4.1.4.7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의 문화적 활용 경험 비율	·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의 문화적 활용 경험 비율

4.1.4.1 (정성)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1) 기존 문화공간 내 시민참여 증대 노력 및 이용효과성 제고

〈세부평가내용〉

- 기존 문화공간의 프로그램 기획 등에 있어 시민참여 기회가 증가하였는가?
- 기존 문화공간과의 협업체계 강화로 시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공급이 제고되었는가?
- 기존 문화공간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와 관심이 높아졌는가?
- 문화공간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어떻게 노력하였는가? 대중교통 노선변화, 자전거접근성, 공공표지판을 활용한 안내 등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가?

2) 사업 연계를 통한 기존 문화공간 프로그램의 다양성 증가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문화공간(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질적으로 다양해졌는가? 문화도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존 문화공간(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양적으로 증가하였는가?

3) 문화공간 운영의 차별성 및 탄력성

〈세부평가내용〉

- 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운영주체를 발굴하였는가? 커뮤니티 및 단체 등(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을 구축하였는가?
- 운영주체 발굴 및 커뮤니티, 단체 등의 구축을 통해 문화공간 운영이 어떠한 측면에서 차별화 되었는가?
- 문화공간이 적재적소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탄력성을 갖고 있는가?
-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간의 탄력적 변화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통계자료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문화시설 운영이 이전보다 활성화된 사례를 제시함.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문화시설 운영을 이전보다 활성화시키려는 시도나 계획을 제시함.

4.1.4.2 (정성) 다양한 복합문화공간 활성화

〈세부평가내용〉

- 전문문화공간은 아니지만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카페, 독립서점, 공방 등)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노력을 수행하였는가?
-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모임을 운영하고 공동 이벤트를 개최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다양한 복합문화공간 운영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통계자료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이 증가하거나 문화적 이용이 활성화된 사례를 제시함.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이 증가하거나 문화적 이용을 활성화시키려는 시도나 계획을 제시함.

4.1.4.3 (정량) 문화시설 이용편의성

〈정의〉

- 문화공간에 대한 이용편의성 평가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설문 문항 예시: 우리 _____시에는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귀하가 이와 같은 시설들을 이용하기에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얼마나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운영시간, 교통, 프로그램, 비용, 내부 동선 등에 대해서 편의성 평가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관점에서 편의성 평가
- [산식] 문화시설 이용편의성 평가(점)

$$\{\sum(7\text{점 척도}-1) \times 16.7\} / \text{전체 응답자 수}$$

4.1.4.4 (정량) 문화시설 프로그램 다양성

〈정의〉

-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공간 프로그램의 다양성 평가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설문 문항 예시: 우리 _____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문화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얼마나 다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식] 문화시설 프로그램의 다양성 평가(점)
 $\{\sum(7\text{점 척도}-1) \times 16.7\} / \text{전체 응답자 수}$

4.1.4.5 (정량) 문화시설 이용

〈정의〉

-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자 증가 정도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행정 집계
- 문화시설 이용자의 전년 대비 증감 정도
- [산식] 문화시설 이용자 증가율 (%)
 $(\text{당해 연도 기존 문화공간 프로그램 이용자 수} - \text{전년 기존문화공간 프로그램 이용자 수} / \text{전년 기존 문화공간 프로그램 이용자 수}) \times 100$

4.1.4.6 (정량) 다양한 복합문화공간 방문 경험

〈정의〉

- 다양한 복합문화공간 방문 경험 비율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설문 문항 예시: 우리 _____시에는 독립서점, 공방, 갤러리 카페 등 소비와 함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방문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산식] 다양한 복합문화공간 방문 경험 (%)
 $(\text{복합문화공간을 방문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수} / \text{전체 응답자 수}) \times 100$
- [산식] 다양한 복합문화공간 방문 경험 목표달성 (%)
 $\{(\text{관측치} / \text{목표치})\} \times 100(\%)$
- 다양한 복합문화공간 방문경험 비율과 다양한 복합문화공간 방문 경험 목표달성 비율을 모두 제시
- 목표치 설정이 안 된 경우에는 잔여 사업기간에 대한 목표치 설정 및 근거 제시

4.1.4.7 (정량)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의 문화적 활용 경험 비율

〈정의〉

-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적 활용을 경험해 본 비율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설문 문항 예시: 우리 ____시에 있는 독립서점, 공방, 갤러리 카페 등에서는 작은 규모의 공연, 전시, 독서토론, 문화예술교육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산식]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의 문화적 활용 경험 (%)

(복합문화공간의 문화예술활동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수 / 전체 응답자 수) * 100
- [산식]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의 문화적 활용 경험 목표달성 (%)

{(관측치/목표치)}*100(%)
- 1차 문화도시 1년차 사업의 경우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의 문화적 활용 경험 비율과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의 문화적 활용 경험 목표달성 비율을 모두 제시

4.2 지역발전 세부지표 예시

4.2.1 지속가능한 성장

유형	코드	세부 지표 예시	내용 예시
정성	4.2.1.1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여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노력에 기여
	4.2.1.2	정주환경 개선과 창의 혁신 환경 조성	· 지역 정주 환경 개선을 우수 인력과 경제활동인구 유입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창조 영역 성장 기여
	4.2.1.3	고용 증가와 창업 활성화	· 문화 전문 인력 일자리 창출 · 노동시장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 창업 지원 활동
	4.2.1.4	콘텐츠 제작	· 비전 및 브랜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콘텐츠 기획 · 지역사회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협력 · 콘텐츠 인력 지원의 실효성 · 콘텐츠 제작의 지속성 및 우수사례 발굴
	4.2.1.5	문화관광의 지속성장	· 문화와 관광의 선순환 관계 · 문화관광 참여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정량	4.2.1.6	창업 현황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창업 업체 수와 창업 후 3년 이상 활동하는 업체 수
	4.2.1.7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 지역 내 주요 문화관광지별 방문인구의 전년 대비 증감율

4.2.1.1 (정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여

〈정의〉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노력에 기여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목표 달성이나 거버넌스 구성, 시민 공감대 확산 등에 기여하였는가?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시민 스스로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행정 집계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바가 있다면, 방향성이나 접점이 되는 사업을 제시함.
- 가능한,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나 유엔환경계획(UNEP)의 지속가능관광회의 등에서 제 기하는 목표 달성에 문화도시 사업이 관련을 맺고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 바를 제시함.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대한 시민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증진시킨 사례가 있다면 제시함.

4.2.1.2 (정성) 정주환경 개선과 창의 혁신 환경 조성

〈정의〉

- 지역 정주 환경 개선을 우수 인력과 경제활동인구 유입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창조 영역 성장 기여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이나 삶의 질 제고를 통해 정주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우수 인력이나 경제활동인구의 유입이나 이탈 방지가 이루어졌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통계자료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하여 지역 이미지가 제고됨으로써 인구 이탈을 방지한 사례를 제시함.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하여 귀촌, 귀농 인구의 정착에 기여한 바를 제시함.

4.2.1.3 (정성) 고용 증가와 창업 활성화

1) 문화 전문 인력 일거리 창출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하여 문화 전문 인력의 특성에 부합하고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일거리가 창출되었는가?
- 문화예술용역의 성격을 가지는 일거리가 창출되었는가?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된 사회적 일거리가 창출되었는가?

2) 노동시장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하여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사회 초년생, 경력 단절 여성,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 등)이 맡을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었는가?

3) 창업 지원 활동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는가?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수행 창업지원의 효과성을 높이는 경우가 있었는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창업인프라 활용이 활성화된 사례가 있는가?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하여 재창업이나 재도전이 원활한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바가 있는가? 창업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성장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사업이 기여한 바가 있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통계자료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고용과 창업 활성화 및 생존율 제고의 사례를 제시함.

4.2.1.4 (정성) 콘텐츠 제작

1) 비전 및 브랜드에 부합하는 새로운 콘텐츠 기획

〈세부평가내용〉

- 각 도시가 세운 비전 및 브랜드의 성격에 부합하는 새로운 콘텐츠들이 기획되었는가?
- 문화도시를 통해 기획된 새로운 콘텐츠들의 양적, 질적 실적은 어떠한가?

2) 지역사회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협력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 활동 과정에서 지자체는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가?
- 지역 내 기업과 추진주체와의 연계 및 협력은 어떠한가?
- 콘텐츠의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위한 협력활동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 콘텐츠를 지역에서 시민이 활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 마케팅 노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콘텐츠 제작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예술가가 증가하였는가?

3) 콘텐츠 인력 지원의 실효성

〈세부평가내용〉

- 콘텐츠 인력의 경력 개발과 역량 강화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졌는가?

4) 콘텐츠 제작의 지속성 및 우수사례 발굴

〈세부평가내용〉

- 콘텐츠 제작 활동이 지속될 만큼의 수익 창출 및 재원 확보가 이루어졌는가?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제작된 콘텐츠 중 시민들에게 높은 공감과 호응을 얻은 콘텐츠가 있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통계자료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 및 활용 지원 사업의 기획, 내용, 성과를 제시함.

4.2.1.5 (정성) 문화관광의 지속성장

1) 문화와 관광의 선순환 관계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 비전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광 매력요인이 발굴되었는가? 문화관광으로부터 얻은 수익이 예술인, 문화기획자, 시민에게 확산되었는가?
- 문화와 관광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과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성 기반이 강화되었는가?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하여 관광지로서 도시 이미지가 제고되었는가?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하여 관광객 증대와 관광객 체류 시간 증가가 나타났는가?

2) 문화관광 참여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세부평가내용〉

- 문화관광에 참여하는 예술인, 기획자, 시민의 의견이 관광 상품 기획, 홍보 등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통계자료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하여 문화관광이 활성화된 사례를 제시하고 관광 수익 증대가 문화 부문 종사인력의 수입 증대나 활동 기반 강화로 이어진 사례를 제시함.

4.2.1.6 (정량) 창업 현황

〈정의〉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창업 업체 수와 창업 후 3년 이상 활동하는 업체 수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행정 집계, 사업 문서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창업 업체와 3년 이상 장기간 유지 업체 수 각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당해 연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지수 산출
- [산식] 창업 지수 (점)

$$\{ \Sigma(\text{실적치}-\text{목표치}) / \text{목표치} \} / 2$$

4.2.1.7 (정량) 지역 관광 활성화 기여

〈정의〉

- 지역 내 주요 문화관광지별 방문인구의 전년 대비 증감율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행정집계, 빅데이터
- 지역 내 주요 문화관광지를 3곳 선정하여 관광지별 방문인구 조사
- [산식] 문화관광지별 방문인구 평균 증가율(%)

$$[\Sigma \{ (\text{당해 연도 문화관광지별 방문인구} - \text{전년 문화관광지별 방문인구}) / \text{전년도 문화관광지별 방문인구} * 100 \}] / 3$$

4.2.2 포용적 지역사회

유형	코드	세부 지표 예시	내용 예시
정성	4.2.2.1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노력	·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노력
	4.2.2.2	지역문제 해결 기여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기획 ·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지속 노력 ·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노력
	4.2.2.3	지역사회 통합 기여	· 불균형 발전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기획 및 지속 노력
정량	4.2.2.4	지역 소속감 강화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지역 소속감 강화 동의 비율
	4.2.2.5	지역 자부심 강화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지역 자부심 강화 동의 비율
	4.2.2.6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 수	·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도시 사업 수
	4.2.2.7	지역문제 해결 기여도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기여에 대한 시민 평가
	4.2.2.8	지역사회 통합 기여도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기여에 대한 시민 평가

4.2.2.1 (정성)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노력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역민의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 등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해 고려한 사항 혹은 구체적인 사업이 있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통계자료
-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인물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지역 정체성이 강화된 사례를 제시함.

4.2.2.2 (정성) 지역문제 해결 기여

〈정의〉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기획
-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지속 노력
-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노력

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기획

〈세부평가내용〉

- 지역 갈등 완화, 지역 재난 극복 기여 등의 지역문제를 적절하게 진단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예술 활동이 기획되었는가?
- 기획된 문화예술활동은 지역의 문제 해결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2)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지속 노력

〈세부평가내용〉

-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지역문제가 해결되거나 완화되었는가?
-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이 지속성을 갖추었는가?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의 우수사례가 발굴되었는가?
-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노력에 대하여 시민이 공감하였는가?

3)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노력

〈세부평가내용〉

- 도시에서 삶의 질에 관련된 취약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문화예술활동이 기획되었는가?
- 재난/재해 트라우마 극복, 코로나 블루 예방/지원, 치매 예방/지원 등과 관련한 문화예술활동이 수행되었는가?
-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였는가?
- 도시에서 삶의 질에 관련된 취약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문화예술활동이 기획되었는가?
- 도시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보접근, 무장애 환경, 문해자 포용의 문화예술활동이 수행되었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통계자료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 성과가 나타난 사례를 제시함.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도나 계획을 제시함.

4.2.2.3 (정성) 지역사회 통합 기여

〈정의〉

- 불균형 발전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기획 및 지속 노력

〈세부평가내용〉

- 도시 내 불균형 발전의 현상을 진단하여 불균형 발전을 완화하기 위한 문화예술활동이 기획되었는가?
- 도시 내 불균형 발전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도시 내 불균형 발전 현상이 완화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는가?
-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불균형 발전 완화에 대하여 시민이 공감하였는가?
- 문화도시를 통해 도시의 포용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통계자료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나 집단 갈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를 제시함.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불균형 발전이나 집단 갈등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시도나 계획을 제시함.

4.2.2.4 (정량) 지역 소속감 강화

〈정의〉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지역 소속감 강화 동의 비율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설문 문항 예시: 귀하는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우리 _____시를 고향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강해졌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동의 정도에 대해서 7점 척도로 응답
- [산식] 지역 소속감 강화 (점)
 $\{\sum(7\text{점 척도}-1) \times 16.7\} / \text{전체 응답자 수}$
- [산식] 지역 소속감 강화 목표달성 (%)
 $\{(\text{관측치}/\text{목표치})\} \times 100(\%)$
- 지역 소속감 강화 점수와 지역 소속감 강화 목표달성 비율을 모두 제시
- 목표치 설정이 안 된 경우에는 전여 사업기간에 대한 목표치 설정 및 근거 제시

4.2.2.5 (정량) 지역 자부심 강화

〈정의〉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지역 자부심 강화 동의 비율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설문 문항 예시: 귀하는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우리 _____시의 시민이라는 사실이 더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는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동의 정도에 대해서 7점 척도로 응답
- [산식] 지역 자부심 강화 (점)
 $\{\sum(7\text{점 척도}-1) \times 16.7\} / \text{전체 응답자 수}$
- [산식] 지역 자부심 강화 목표달성 (%)
 $\{(\text{관측치}/\text{목표치})\} \times 100(\%)$
- 1차 문화도시 1년차 사업의 경우 지역 자부심 강화 점수와 지역 자부심 강화 목표달성 비율을 모두 제시

4.2.2.6 (정량)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 수

〈정의〉

- 다양한 지역문제(재난 극복, 독거노인, 학교 밖 청소년, 치매예방, 스트레스 해소 등)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도시 사업 수

〈산출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행정 집계
-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수

4.2.2.7 (정량) 지역문제 해결 기여도

〈정의〉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기여에 대한 시민 평가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재난 극복, 독거노인, 학교 밖 청소년, 치매예방,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형 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 예시
- 설문 문항 예시: 다음과 같은 _____ 사업이 시민의 재난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식]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기여 가능성 (점)

$$\{\sum(7\text{점 척도}-1) \times 16.7\} / \text{전체 응답자 수}$$

4.2.2.8 (정량) 지역사회 통합 기여도

〈정의〉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기여에 대한 시민 평가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빈부격차, 지역격차, 세대격차 등 다양한 사회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 예시
- 설문 문항 예시: 다음과 같은 _____ 사업이 우리 _____시가 _____격차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식] 문화도시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기여 가능성 (점)

$$\{\sum(7\text{점 척도}-1) \times 16.7\} / \text{전체 응답자 수}$$

4.2.3 도시브랜딩 강화

유형	코드	세부 지표 예시	내용 예시
정성	4.2.3.1	도시브랜딩 강화 및 도시이미지 개선	· 기존 도시브랜딩 강화 및 새로운 도시브랜딩 창출 · 새로운 도시브랜딩 및 문화도시 이미지 창출
정량	4.2.3.2	도시브랜드 상징 콘텐츠 제작	· 문화도시 도시브랜드 상징 기능을 갖추어 개발된 콘텐츠 수
	4.2.3.3	도시브랜드 상징 콘텐츠 활용	· 문화도시 도시브랜드 상징 기능을 갖춘 개발 콘텐츠의 확산, 보급, 활용 현황

4.2.3.1 (정성) 도시브랜딩 강화 및 도시이미지 개선

〈정의〉

- 기존 도시브랜딩 강화 및 새로운 도시브랜딩 창출
- 새로운 도시브랜딩 및 문화도시 이미지 창출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를 통해 기존의 도시브랜딩이 풍부해지고 강화되었는가?
- 기존의 도시브랜드나 도시이미지와 연계성이나 차별성은 어떻게 해석하고 전략화 하였는가?
- 문화도시를 통해 새로운 도시브랜딩이 창출되었는가? 도시브랜드를 상징하는 새로운 콘텐츠들이 기획되었는가?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문화도시로서 도시 이미지가 새로 창출되거나 강화되고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이 부각 되었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통계자료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도시브랜딩이 풍부해지거나 관련 활동이 활성화된 사례를 제시함.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도시브랜딩이 풍부해지거나 관련 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시도나 계획을 제시함.

4.2.3.2 (정량) 도시브랜드 상징 개발 콘텐츠 개발

〈정의〉

- 문화도시 도시브랜드 상징 기능을 갖추어 개발된 콘텐츠 수

〈작성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 문화도시 도시브랜드 상징 기능을 가진 콘텐츠의 목록을 작성하고 집계

4.2.3.3 (정량) 도시브랜드 상징 개발 콘텐츠 활용

〈정의〉

- 문화도시 도시브랜드 상징 기능을 갖춘 개발 콘텐츠의 확산, 보급, 활용 현황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문화도시 도시브랜드 상징 기능을 갖춘 대표적인 콘텐츠 예시
- 설문 문항 예시: 다음과 같은 _____콘텐츠가 우리 _____시의 문화도시로서 상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산식] 문화도시 도시브랜드 인지도 (%)

$$(\text{문화도시 상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수} \times 100) / \text{전체 응답자 수}$$
- [산식] 문화도시 도시브랜드 인지도 목표달성 (%)

$$\{(\text{관측치}/\text{목표치})\} \times 100(\%)$$
- 1차 문화도시 1년차 사업의 경우 문화도시 브랜드 인지도 비율과 문화도시 도시브랜드 인지도 목표달성 비율을 모두 제시

4.2.4 도시공간 발전

유형	코드	세부 지표 예시	내용 예시
정성	4.2.4.1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장소성 강화	· 정기적/일시적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장소성 강화 활동
	4.2.4.2	문화기반 도시재생 활성화	· 도시쇠퇴의 물리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 재생 문화공간의 문화적 활용성 증가
	4.2.4.3	문화적 공간 활용의 지속성	· 문화적 공간 활용의 지속성 장애 요인 파악 · 문화적 공간 활용의 지속성 확보 노력
정량	4.2.4.4	도시쇠퇴 완화	· 공가율, 공실율 변동을 통해 문화기반 도시재생의 영향 파악
	4.2.4.5	문화기반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 호응	·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이나 도시 쇠퇴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 호응도

4.2.4.1 (정성)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장소성 강화

〈정의〉

- 정기적/일시적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장소성 강화 활동

〈세부평가내용〉

- 공공예술이나 거리공연 등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장소성 강화에 기여한 노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행

되었는가?

- 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과 같이 일시적이고 유연한 활용을 통하여 공공공간의 장소성 강화 시도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바가 있는가?
- 지역의 자생적 활동에 기반 한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지역의 장소성이 강화되었는가? 장소성이 강화된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호감 정도나 반응은 어떠한가?
- 인식되지 못한 도시의 공간이 문화도시를 통해 재해석됨으로써 마을, 골목 등의 장소성이 새롭게 확장되었는가?

* 택티컬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

택티컬 어바니즘은 도시설계에 있어 영구적인 개선 대안을 확정하기 전에 일시적인 설계와 적용을 통해 사전에 그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일컬으며, 단기적 적용으로 장기적 변화를 이끄는 방법임(Lydon and Garcia, 2015).

일례로 뉴욕시의 교통국은 광장의 조성 및 사후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소규모 예산과 간단한 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단기간에 구현 가능한 임시 광장을 조성하는 방식을 제안하여,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뉴욕시 교통국 내에 공공공간 사업부(Public Spaces Unit)를 신설하였음. 임시광장은 10만 달러의 소규모 자본으로 계획되었으며, 평균 5~6개월의 짧은 설계 및 건설 기간이 소요되었음. 임시 조성이었기 때문에 디자인 검토나 환경영향평가 등 길게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는 생략할 수 있었음. 택티컬 어바니즘 기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지역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뉴욕시 사례(상세한 내용은 참고)와 같이 공모 방식으로 운영·추진될 필요가 있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손동필·고영호·윤주선(2018), 택티컬 어바니즘 기법의 도입 방안, 건축공간연구원'을 참고하기 바람)

〈작성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행정집계
- 공공예술을 통하여 장소성 강화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 기획의도, 추진과정, 지리공간적 속성, 산출물, 효과 등을 간략히 제시함.
- 시민이나 예술가의 유연하고 일시적인 공간 사용을 통해서 창의성이 발휘된 사례가 있는 경우 경과를 제시함.
- 문화적 창작이나 소재를 바탕으로 일시적(temporary), 게릴라(guerrilla), 팝업(pop-up), 임시의(ad-hoc), DIY 어바니즘에 해당하는 활동을 통해서 장소성 강화를 시도한 경우 경과를 제시함.

4.2.4.2 (정성) 문화적 도시재생 활성화

〈정의〉

- 도시쇠퇴의 물리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 재생 문화공간의 문화적 활용성 증가

1) 도시쇠퇴의 물리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세부평가내용〉

- 문화도시 사업을 통하여 방치된 공간, 유휴공간, 노후공간 등에 대한 개선 및 활성화 노력이 기획되고 수행되었는가?
- 노후한 건물을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리모델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켰는가?
-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개선되고 활성화된 공간에 대하여 시민이 공감하였는가?

2) 재생 문화공간의 문화적 활용성 증가

〈세부평가내용〉

- 도시재생 및 문화재생을 통해 창출된 문화공간의 문화적 활용성이 증가하였는가?
- 공간 활용을 통해 예술적 가치가 부각된 사례가 있는가?
- 다른 분야 전문가, 활동가 등과의 만남 기회가 만들어졌는가?
- 다른 도시의 시민, 예술가, 문화기획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행정집계
- 방치된 공간, 유휴공간, 노후공간 개선과 활성화 노력이 이루어진 경우 기획의도, 추진과정, 지리·공간적 속성, 산출물, 효과 등을 간략히 제시함.
- 공간 재생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공간 운영 과정에서 시민이나 예술가가 수행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제시함.
- 공간 재생과 공간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진 문화예술 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제시함.

4.2.4.3 (정성) 문화적 공간 활용의 지속성

〈정의〉

- 문화적 공간 활용의 지속성 장애 요인 파악
- 문화적 공간 활용의 지속성 확보 노력

1) 문화적 공간 활용의 지속성 장애 요인 파악

〈세부평가내용〉

- 문화적 공간 활용이 지속성을 갖추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장애 요인을 파악하였는가?
- 급격한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으로 인해 문화적 공간 활용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파악하였는가?

2) 문화적 공간 활용의 지속성 확보 노력

〈세부평가내용〉

- 문화적 공간 활용에서 시민 참여를 통한 기획이 이루어졌는가?
- 문화적 공간 활용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시민 자산화나 상생협약 등의 노력을 수행하였는가?
- 문화적 공간 활용이 문화도시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는가?
- 문화적 공간 활용의 지속성에 대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이 수행되었는가?

〈작성방법 예시〉

- 자료: 사업 문서, 행정집계
- 문화적 공간 활용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수행한 제도화 노력이 있다면, 기획의도, 추진과정, 지리·공간적 속성, 산출물, 효과 등을 간략히 제시함.

4.2.4.4 (정량) 도시쇠퇴 완화

〈정의〉

- 공기율, 공실율 변동을 통해 문화기반 도시재생의 영향 파악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행정집계
- 당해 연도 공기율 비율(%)

· [산식] 공기율 변동율(%)
$$\{(\text{당해 연도 공기율} - \text{전년 공기율}) / \text{전년도 공기율}\} \times 100$$

4.2.4.5 (정량) 문화기반 도시재생에 대한 시민 호응

〈정의〉

-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이나 도시 쇠퇴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시민 호응도
문화기반 도시재생의 대표적 사례 예시하여 질문

〈산출방법 예시〉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설문 문항 예시: 우리 ____시의 _____ 공간에는 _____ 등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공간의 활력을 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 공감 정도에 대해서 7점 척도로 응답

· [산식] 문화기반 도시재생 호응도 (%)
$$\{ \sum (7\text{점 척도} - 1) \times 16.7 \} / \text{전체 응답자 수}$$

5. 공통성과

■ 공통성과 일괄 적용

중분류 (배점)	지표 코드	지표	지표 정의	배점(점)
5 공통성과 (5)	5.1	대표사업 참여자 만족도	각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3개 사업 참여자 만족도의 목표 대비 수준	2
	5.2	문화도시 정체성	문화도시 이미지와 정체성의 창출 수준	3

5.1 대표사업 참여자 만족도

유형	코드	세부 지표	내용 예시
정량	5.1.1	대표사업 참여자 만족도	· 각 문화도시별로 대표하는 3개 사업 참여자 만족도의 목표 대비 수준

5.1.1 (정량) 대표사업 참여자 만족도

〈정의〉

- 각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3개 사업 참여자 만족도의 목표 대비 수준

〈산출방법〉

- 자료: 문화도시 사업 참여자 대상 서베이
- [산식] 문화도시별 대표사업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7점 척도) 후 100점 기준으로 점수 환산
- [산식] 대표사업 참여자 만족도 목표달성 (%)

$$\{(\text{관측치}/\text{목표치})\} \times 100(\%)$$

〈평정〉

- 1차 문화도시 1년차 사업의 경우 잔여 사업기간에 대한 목표치 설정 및 목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경우 2점, 목표치가 설정 되었으나 근거 제시가 안 된 경우 1점, 목표치 설정과 근거 제시가 모두 안 된 경우 0점
- 목표에 대한 근거로는 도시의 예비조사 결과, 해당 도시의 보고서, 기사 등을 통해 언급된 정량화된 수치를 활용할 수 있음.

5.2 문화도시 정체성

유형	코드	세부 지표	내용 예시
정량	5.2.1	문화도시 이미지 개선 및 정체성 창출	· 이미지 대내외 개선 · 고유 정체성 창출

5.2.1 (정량) 문화도시 이미지 개선 및 정체성 창출

1) 이미지 대내외 개선

〈정의〉

- 문화도시를 통한 지역이미지 대내외 개선에 대한 시민 평가

〈산출방법〉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설문 문항 예시: 우리 ____시가 법정 문화도시가 되고 나서 문화도시로서 이미지가 향상되었다고 보십니까?
- 문화도시 대내 이미지, 문화도시 대외 이미지 각각에 대한 향상도 조사
- 문화도시를 통한 이미지 향상도 조사(점)

$$\{ \sum (7\text{점 척도}-1) \times 16.7 \} / \text{전체 응답자 수}$$

7점 척도	점수
1	0
2	16.7
3	33.4
4	50.1
5	66.8
6	83.5
7	100.0

- [산식] 문화도시 이미지 개선 및 정체성 창출 목표달성 (%)

$$\{ (\text{관측치} / \text{목표치}) \} \times 100(\%)$$

2) 고유 정체성 창출

〈정의〉

- 문화도시를 통한 고유 정체성 창출에 대한 시민 평가
- 문화도시를 통한 타 도시 대비 차별성 확보에 대한 시민 평가

〈산출방법〉

- 자료: 표본 대표성을 갖춘 시민 대상 서베이
- 설문 문항 예시: 우리 _____시가 법정 문화도시가 되고 나서 정체성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 고유 정체성 창출과 타 도시 대비 차별성 확보 각각에 대한 향상도 조사
- 문화도시를 통한 정체성 창출 조사(점)

$$\{ \sum (7\text{점 척도}-1) \times 16.7 \} / \text{전체 응답자 수}$$

7점 척도	점수
1	0
2	16.7
3	33.4
4	50.1
5	66.8
6	83.5
7	100.0

- [산식] 고유 정체성 창출 목표달성 (%)

$$\{ (\text{관측치} / \text{목표치}) \} \times 100(\%)$$

〈평정〉

- 이미지 대내외 개선과 고유 정체성 창출의 평균 점수 산출
- 1차 문화도시 1년차 사업의 경우 잔여 사업기간에 대한 목표치 설정 및 목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경우 3점, 목표치가 설정 되었으나 근거 제시가 안 된 경우 1.5점, 목표치 설정과 근거 제시가 모두 안 된 경우 0점
- 목표에 대한 근거로는 도시의 예비조사 결과, 해당 도시의 보고서, 기사 등을 통해 언급된 정량화된 수치를 활용할 수 있음.

4) 전체 지표 일람

거버넌스 영역

중분류 (배점)	지표 (배점)	지표 정의	코드	유형	세부 지표	평가 출처	산출방법
1 비전과 전략 (10)	1.1 비전 공유 (5)	문화도시 비전을 보다 많은 시민과 효과적으로 공유 하여 문화민주주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	1.1.1	정성	비전 제시의 적합성	문화도시 성과 보고서	해당 없음
			1.1.2	정성	비전 공감을 위한 소통 노력	문화도시 성과 보고서	해당 없음
			1.1.3	정량	비전 소통 실적	행정집계	문화도시 비전 소통실적(%) {(관측치/목표치)}*100(%) 비전 소통 실적 목표달성 (%) {(관측치/목표치)}*100(%)
			1.1.4	정량	문화도시 인지도	시민 대상 서베이	문화도시 인지도 (%) (문화도시 지정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수 / 전체 응답자 수) * 100 문화도시 인지도 목표달성 (%) {(관측치/목표치)}*100(%)
			1.1.5	정량	비전 공감 정도	시민 대상 서베이	문화도시 비전 공감도(점) Σ(7점 척도-1)X16.7} / 전체 응답자수 비전 공감 정도 목표달성 (%) {(관측치/목표치)}*100(%)
	1.2 전략적 접근 (5)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문화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 하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1.2.1	정성	실천전략의 구체화	문화도시 성과 보고서	해당 없음
			1.2.2	정량	실천전략의 지속성	사업 문서	당해 연도 사업 수행 계획 수립 여부 제시 당해 연도 사업 수행 계획 수립에 조성 계획, 사업 환경 변화, 전년도 사업성과, 실천전략의 반영 여부 각각 제시
						사업 문서 사업 문서 예산 자료	연차별 목표설정 사업 비율(%) (연차별 목표설정 사업 건수 /전체 사업 수)*100 차년도 일반회계 반영 문화도시 사업 비 율(%) (일반회계 반영 사업 수 /전체 지속성 사업 수)*100

중분류 (배점)	지표 (배점)	지표 정의	지표 코드	지표 유형	세부 지표	평가 출처	산출 방법
2 추진 기반 (30)	2.1 거버 넌스 구축 (10)	문화도시를 시민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체계적인 논의와 협업의 구조 발전을 위한 노력	2.1.1	정성	거버넌스 강화 노력	문화도시 성과 보고서	해당 없음
			2.1.2	정성	시민참여 제고 노력	문화도시 성과 보고서	해당 없음
			2.1.3	정량	문화도시추진 위원회 개최	사업 문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개최 비율(%) {당해 연도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개최 실행 건수 / (당해 연도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계획 건수
			2.1.4	정량	문화도시 시민참여율	시민 대상 서베이	문화도시 시민참여율 (%) (문화도시 활동 참여한 적 있다고 답변한 수 * 100) / 전체 응답자 수 문화도시 시민 참여 목표달성 (%) {(관측치/목표치)}*100(%)
			2.1.5	정량	문화도시 재정민주주의 수준	사업 문서	문화도시 주민참여형 예산 비율 (%) (주민참여형으로 결정한 문화도시 사업예산 / 문화도시 사업예산) * 100
	2.2 사업 추진 역량 강화 (10)	사업 추진주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역량 강화와 지자체 행정역량 강화	2.2.1	정성	사업 추진주체 자율성 확보	문화도시 성과 보고서	해당 없음
			2.2.2	정성	사업 추진주체 인력의 역량 강화	문화도시 성과 보고서	해당 없음
			2.2.3	정성	지자체 행정 역량 강화	문화도시 성과 보고서	해당 없음
			2.2.4	정량	사업 추진주체 인력의 연수·교육	사업 문서, 행정 자료	사업 추진주체 인력의 연수·교육 (연 회) Σ(연수·교육 * 참여 인원) 사업 추진주체 인력의 연수·교육 목표 달성 (%) {(관측치/목표치)}*100(%) 1차 문화도시 1년차 사업의 경우
			2.2.5	정량	사업 추진주체 인력의 근속연수	사업 문서, 행정 자료	문화도시센터 직원 근속연수 (점) 문화도시센터 직원의 센터 근속 평균 연수 / 문화도시센터 설립 연수

중분류 (배점)	지표 (배점)	지표 정의	지표 코드	지표 유형	세부 지표	평가 출처	산출 방법
2 추진 기반 (30)	2.3 협력과 네트 워크 (10)	다른 정책 주체 및 도시와의 협력을 통한 문화도시 발전의 노력	2.3.1	정성	다른 정책 주체와의 협력	문화도시 성과 보고서	해당 없음
			2.3.2	정성	다른 도시와의 협력	문화도시 성과 보고서	해당 없음
			2.3.3	정량	협력사업 및 협력 프로그램 수	사업 문서, 행정집계	협력 사업 수 + 협력 프로그램 수
			2.3.4	정량	문화도시 상생협약체 참여 횟수	사업 문서, 행정 집계	문화도시 상생협약체 참여율(%) (Σ 당해 연도 문화도시 상생협약체 행사 참여 횟수 / Σ 당해 연도 문화도시 상생 협약체 행사 개최 수)*100
3 자율 관리 (25)	3.1 여건 조성과 사업 수행 (10)	문화도시 수행을 위한 법제도 환경 조성 및 재원확보, 지자체 행정지원을 통한 여건 조성과 사업 수행을 위한 적정성 및 윤리성, 갈등관리 노력	3.1.1	정성	법제도 환경 조성 및 재원 확보	문화도시 성과 보고서	해당 없음
			3.1.2	정성	개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및 윤리성	문화도시 성과 보고서	해당 없음
			3.1.3	정성	지자체 행정 지원의 적정성	문화도시 성과 보고서	해당 없음
			3.1.4	정성	갈등관리 노력	문화도시 성과 보고서	해당 없음
			3.1.5	정량	재원 조성	행정자료	국비 지급에 맞춘 지방재원 조성 여부 확인
			3.1.6	정량	목표 달성 사업 비율	행정자료, 사업 문서	목표 달성 사업 비율(%) {(당해 연도 목표 달성 사업 수/당해 연도 사업 수)}*100(%)
			3.1.7	정량	예산집행률	행정자료	사업 종료시점 기준 예산 집행률 {(당해 연도 사업 집행액 / 당해 연도 예산현액)}*100(%)
	3.2 자체 성과 관리 체계 운영 (15)	문화도시 고유성과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체계와 지자체 체별로 제시한 세 부지표의 적절성, 모니터링을 적절하게 운영 하고 시민과 결과를 공유하는 노력	3.2.1	정성	자체성과관리의 총실성	문화도시 성과 보고서	해당 없음
			3.2.2	정성	모니터링 운영 및 결과 공유의 적정성	문화도시 성과 보고서	해당 없음
			3.2.3	정량	환류 활동	사업 문서	모니터링 활용 환류 성과(건수)
			3.2.4	정량	모니터링 수행 정도	사업 문서	모니터링 수행 정도 (%) {(당해 연도 모니터링 수행 사업 수 / 당해 연도 사업 수)}*100(%)

성과 영역

※ 4. 고유성과(30) 내 세부지표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므로 전체 일람표에는 적시하지 않음.

중분류 (배점)	지표 (배점)	지표 정의	지표 코드	지표 유형	세부 지표	평가 출처	산출 방법
5 공통 성과 (5)	5.1 대표 사업 참여자 만족도 (2)	각 문화도시를 대표하는 3개 사업 참여자 만족도의 목표 대비 수준	5.1.1	정량	대표사업 참여자 만족도	문화도시 사업 참여자 대상 서베이	문화도시별 대표사업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7점 척도) 후 100점 기준으로 점수 환산 대표사업 참여자 만족도 목표달성(%) {(관측치/목표치)}*100(%)
	5.2 문화 도시 정체성 (3)	문화도시를 통한 지역이미지 대내외 개선, 고유 정체성 창출, 타 도시 대비 차별성 확보에 대한 시민 평가	5.2.1	정량	문화도시 이미지 개선 및 정체성 창출	시민 대상 서베이	1)이미지 대내외 개선 문화도시를 통한 이미지 향상도 조사(점) {Σ(7점 척도-1)X16.7} / 전체 응답자 수 문화도시 이미지 개선 및 정체성 창출 목표달성 (%) {(관측치/목표치)}*100(%) 2)고유 정체성 창출 문화도시를 통한 정체성 창출 조사(점) {Σ(7점 척도-1)X16.7} / 전체 응답자 수 고유 정체성 창출 목표달성 (%) {(관측치/목표치)}*100(%)

2. 문화도시 성과평가 시행

1) 성과평가 일정

- 문화도시 성과평가는 문화도시 예산 집행 완료('21.2.) 직후 각 문화도시별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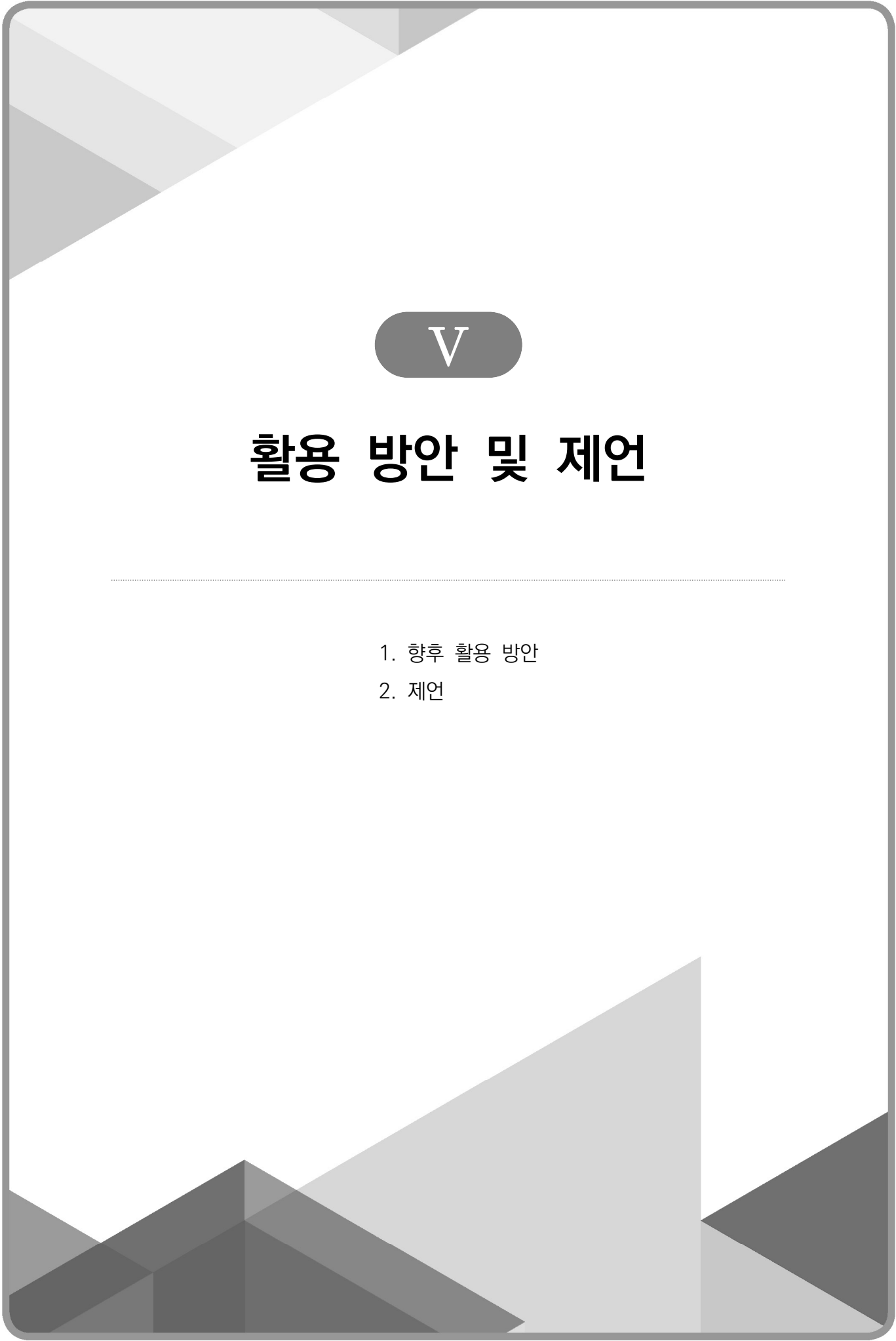
[표 57] 성과평가 추진 일정

일자(시간)	추진 사항	수행
21.2.7.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 및 성과보고서 양식 지자체·추진주체·심의위 배포	연구팀→문체부 →지자체·추진주체·심의위
21.3.9.(18:00)	각 도시별 성과보고서 제출 마감	문화도시→연구팀
21.3.12.	성과보고서 인쇄본 심의위원 전달 완료 심의위원 대상 성과평가 설명회 시행(zoom)	연구팀→심의위원
21.3.17.(18:00)	1차 서면평가서 및 질의서 제출 마감	심의위원→연구팀
21.3.18.	도시별 추가 질의사항 각 문화도시로 전달	연구팀→문화도시
21.3.23.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자료 제출	문화도시→연구팀
21.3.24.	문화도시별 추가 답변자료 전달	연구팀→심의위원
21.3.26. (14:00~17:00)	문화도시별 온라인(Zoom) 질의 응답 및 종합 논의 - 각 도시별 질의응답 15분 이내, 논의 5분 이내 - 심의위원 종합논의 30분 이내	질의: 심의위원 응답: 각 문화도시 논의: 심의위원
21.3.26.(18:00~) ~3.27(18:00)	2차 서면평가서 제출 마감	심의위원→연구팀
21.3.31.	성과평가 결과 의결	심의위원

2) 성과평가 방식

- 거버넌스 영역 평가자, 고유성과 영역 평가자, 전 영역(거버넌스+고유성과) 평가자로 구분하여 평가를 수행
- 총 16인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심의위 및 연구 과정 보고 단계에서 심의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거버넌스 영역 11인, 고유성과 영역 14인이 평가자로 참여함(2개 영역 모두 평가자 9인, 1개 영역 평가자 7인: 거버넌스 한정평가 2인/ 고유성과 한정평가 5인 참여).

- 평가는 1차 서면평가 후 도출된 질의사항에 대해 각 문화도시가 답변자료를 제출한 후, 2차 온라인 미팅을 통해 질의응답 및 논의 시간을 갖고 최종적으로 2차 평가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
 - 1차 평가 점수 산출 이후 심의위원이 도출한 질의사항에 대한 각 문화도시의 질의응답 사항을 확인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 점수를 확정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 2차 평가 시에는 평가 점수 입력 이외에 평가의 근거 및 개선사항을 함께 제출
 - 2차 평가 결과를 근거로 차년도 인센티브 예산 배정 기준을 도출함.
 - 평가위원의 평가 근거 및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개별 문화도시별 평가 근거 및 개선사항을 제안함.



V

활용 방안 및 제언

1. 향후 활용 방안
2. 제언

V. 활용 방안 및 제언

1. 향후 활용 방안

- 문화도시 성과관리를 통해서 관찰되고 판단된 내용을 각 문화도시에 구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문화도시 사업 수행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 도출의 환류 작업을 진작시킴.
 - 문화도시 성과평가의 정성 결과를 해당 문화도시에 공유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각 도시 안에서 여러 주체들이 논의와 진단을 수행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환류 성과를 차년도 성과관리에 제시하도록 함.
- 문화도시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반영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시민주도형으로 출발한 문화도시 사업은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하고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통해 기존의 문화도시 관련 사업이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는 의의를 가지나, 문화도시의 사업실행을 위한 방법과 노하우의 축적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임.
 - 문화도시의 개념 규정이 특정한 내용에 한정되거나 고정될 수 없는 상황에서 문화도시의 지향점과 정체성 논의는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도시문제의 다양성만큼 새로운 비전을 찾아 갈 수밖에 없음.
 - 문화도시와 관련된 정책 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정책 아젠다들이 제시되는 가운데 문화도시가 이에 부단히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함.
 - 다양한 문화도시의 속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이나 아이디어 발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임.
 - 이상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통해서 문화도시 발전의 촉진자 겸 현황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2020년 문화도시 성과관리 과정을 통해서 문화도시 비전과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 사이의 관계나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실효적 기능과 같은 주제가 중요한 평가 고려사항으로 부상하였으며, 문화도시 시민 멤버쉽 운영이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문화도시 참여층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게 되었음.
 - 이와 같이 성과관리 과정을 통해서 제기된 이슈들을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역문화진흥원과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수 있음.
-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조사 도구 표준화 노력이 필요함.
 -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 측정을 위한 조사 도구로는 1) 참여 인원 계수, 2) 사업 참여자 만족도, 3) 시민의식 조사 등 세 가지 종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참여 인원 계수의 경우, 주민참여 프로그램이 문화도시 사업에 많고 참여인원이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계수 방법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특히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온라인 참여인원 계수방법 제시가 필요함.
- 사업 참여자 만족도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척도가 제시되었으나 실제 다양하게 변형되어 적용되고 있어서 비교가능성이 저하되는 점에 대한 문제가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바, 사업기간 및 사업특성별로 만족도 조사 표준질문지 및 조사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 시민의식 조사의 경우, 문화도시 사업이 소수의 자족적인 사업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2020년도 성과관리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문항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제시하였는데, 지역별 조사 수행 역량 차이를 고려할 때, 표준질문지 제시 및 조사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체화가 필요함.
- 시민의식 조사의 경우, 조사 주관에 따라 조사 결과의 객관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문체부나 지역문화진흥원, 상생협의체와 같은 기구가 조사를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 및 사용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면, 각 도시별 조사 수행을 하되, 중간평가 연도와 같은 시기에 공영 조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2. 제언

- 장기적으로는 문화도시 성과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현재 심의위원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하고 성과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2020년 문화도시 성과평가는 별도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고 문화도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단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과 심의위원의 적극적 참여열기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수행하였음.
-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심의위원의 고유한 심의 업무 외 성격을 가진다는 점과 성과대상 문화도시 수 증가에 따라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방식임.
- 장기적으로 현재의 심의위원이나 현장검토단 인력을 중심으로 성과평가단을 구성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통해 성과평가단이 연중 문화도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성과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문화도시 관리 인력풀 확충을 통해 관리 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음.

- 각 문화도시의 자율적 성과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 운영과 설문조사 도구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 각 도시의 자율적 성과관리 방안은 시민 및 전문가 모니터링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냐 이에 대해서 각 도시의 구체적인 노하우 축적이 미흡한 상황임.
- 모니터링의 형식적 도입과 운영이 아니라 객관성을 갖춘 체계적인 모니터링 수행을 위해서는 각 도시의 운영 체계를 넘어서는 상위의 모니터링단 교육과 역량 강화, 상호 교류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함.
- 이를 통하여 모니터링단의 기술, 지식, 정보 향상 뿐 아니라 모니터링의 중요성 인식, 모니터링 단원으로서 자부심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니터링단의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 타 문화도시 사례에 대한 노출 등을 통하여 개별 문화도시 성과관리의 상향 평준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참고문헌



참고문헌 목록

- 고정민·박지혜(2017),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문화경제연구, 20(1), 51-80
- 교육부(2019),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2018),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8), 지역차등지원제도 해외사례 분석 및 국내 도입방안 연구
- 국토교통부(2020),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설명회
- 국토교통부(2018), 2019년도 도시재생 실현가능성 평가(주거지지원형) 해설서
- 국토교통부(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 국토교통부(2018), 스마트시티 산업활성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인력양성 방안 연구
- 국토교통부(2018),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19~'23) 수행대학 선정 사전 공지
- 국회예산정책처(2018), 도시재생 뉴딜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2018), 도시재생뉴딜분석
- 기획재정부(201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 김면 외(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 김옥연 외(2020), LH참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평가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농림부(2019), 2019년 지역특화사업 신청 공모 계획 (요약)
- 류정아 외(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 류정아 외(2018), 문화다양성정책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평가 연구문화도시 사업의 전개과정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문화경제연구, 22(1), 157-187
- 문화재청(2020), 2020년도 생생문화재 사업공모계획(안)
- 문화체육관광부(2020), 문화영향평가 안내(세부)
- 문화체육관광부(2020), 문화영향평가 안내(요약)
- 박성남·김민경(2016), 도시재생사업 기반 구축 단계의 경험과 과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서우석·조광호(2019), 문화도시 사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 유럽문화수도와 한국의 문화도시 사업의 전개과정에 대한 비교를 바탕으로-, 문화경제연구, 22(1), 157-187
- 서울특별시(2017), 2017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 매뉴얼
- 손동필·고영호·윤주선(2018), 택티컬 어바니즘 기법의 도입 방안, 건축공간연구원
- 양혜원(2017),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도구 개발 연구
- 이상열 외(2018), 문화영향평가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 이상열·이경진(2019),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유형화 기준 연구
- 장원경·이선우·김광구(2018),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장현선 외(2017),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 평가 연구
- 정수희(2018), 도시의 문화자산으로서 공예와 공예도시 연구-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CCN)를 중심으로, 문화콘텐츠연구 (14), 81-108.
- 최영화·김창수·민경선(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 최진욱 외(2016), 책임운영기관 선진 해외사례 조사연구, 한국조직학회
- 최혜자 외(2018),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최혜자 외(2019),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지방세연구원(2014),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7),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모델개발
- 한승준 외(2017),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학회
-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2020), 2020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 Ansell, C. & Gash, A(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18(4), 543-571.
- Beunen, R, Van Assche, K. & Duineveld, M(2016), *Evolutionary governance theory*. Springer.
- European commission(2018), European Capitals of Culture(ECoC) 2020-2033 - Guidelines for the cities' own evaluations of the results of their ECoC
- Van Assche, K, Beunen, R. & Duineveld, M(2013), *Evolutionary governance theory: An introduction*.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홈페이지

- 영국 예술위원회 자기진단(Self-Evaluation) 프로그램
<http://www.artscouncil.org.uk/advice-and-guidance/self-evaluation>
- 위트레히트 대학 데이터베이스 <http://collaborativegovernancecasedatabase.sites.uu.nl/>
- 유네스코창의도시 <http://en.unesco.org/creative-cities/home>
- 정부24 <http://www.gov.kr/portal/ntnadmNews/1981093>

연구진

■ 연구책임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 공동연구

남 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 대표

송경희 행복한상상 대표

김민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박사과정

■ 연구보조

윤정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석사

박소연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석사

문화도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적용

발 행 기 관 : 문화체육관광부
연 구 수 행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발 행 일 : 2021년 3월
인 쇄 처 : AMC

ISBN: 979-11-6357-340-1 93320

비매품



문화체육관광부

비매품/무료

93320



9 791163 573401

ISBN 979-11-6357-340-1